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蘆溪 시가의 주제의식과 山水樂 지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南 承 道

2014年 2月

蘆溪 시가의 주제의식과 山水樂 지도




指導教授 孫 五 圭

南 承 道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南承道の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	남	준	
委 員	현	승	환	
委 員	孫	五	圭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4年 2月

蘆溪 시가의 주제의식과 山水樂 지도

남 승 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손 오 규

이 논문은 蘆溪 朴仁老의 詩歌에 나타난 주제의식과 山水樂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대한 지도법을 연구하였다. 노계(1562~1624)는 松江 鄭澈과 孤山 尹善道와 '近世 三代 詩歌人'으로 칭송되는 조선시대 문인이다. 노계는 교훈적인 내용·웅장한 구상·섬세한 필치 그리고 풍부한 어휘 구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노계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주제의식·산수락 그리고 이에 대한 지도법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번에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다.

첫째, 그가 무관시절 창작한 「태평사」·「선상탄」 그리고 은퇴기에 창작한 시조 「早紅柿歌」 고찰을 통하여 임병양란 시기의 시대정신이었던 충효사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獨樂堂歌」·「立巖二十九詠」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성리학의 학문적 선구자였던 晦齋 李彦迪과 노계의 학문적 스승이었던 旅軒 張顯光을 살펴보았다. 성리학에 전념하는 노계의 삶을 잘 알게 되었다.

셋째, 「노계가」의 隱居樂道와 「누항사」의 安貧一念을 고찰하여, 자연의 이치와 도를 깨닫는 산수락과 자연스럽게 마음을 비우고 욕심 없이 살아가면서 도를 추구하는 安貧을 살펴보았다.

넷째, 고전 시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키고 현대의 변화된 시대를 조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품격을 지키면서 현대의 감각으로 해석하여 우리말과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노계 시가에서 살펴보았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검정 교과서의 출판에도, 고등학교 국어·문학교과서의 지문으로 줄곧 소개되는 노계 시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노계시가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고안하면서, 오늘날 고전시가의 교육적 의의가 전통의 계승 발전이라는 역사적 가치도 발견할 수 있었다.

〈차 례〉

〈국문초록〉

I. 서론	1
II. 壬丙兩亂과 시대정신	5
1. 「太平詞」와 戰勝意識	8
2. 「船上嘆」과 憂國至誠	14
3. 「早紅柿歌」와 終身誠孝	22
III. 躬行聖道와 景慕先賢	29
1. 嶺南學派와 傳統學脈	30
2. 「獨樂堂歌」와 晦齋 景慕	34
3. 「立巖二十九詠」과 旅軒 從游	45
IV. 「蘆溪歌」와 隱居樂道	53
1. 노계와 문학 환경	54
2. 「蘆溪歌」와 幽人處士	59
3. 「陋巷詞」와 山水樂	69
V. 노계 시가 지도의 실제	80
1. 노계 시가 지도의 교육적 의의	82
2.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노계 시가 현황	83
3. 노계 시가의 교수·학습 과정안	85
VI. 결론	95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I. 서론

蘆溪 朴仁老(1562~1624)는 조선시대 명종·선조·광해군·인조 4대에 걸쳐 생존했던 武官 출신의 문인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당파싸움의 시작과 더불어 임진왜란의 발발, 광해군의 즉위, 인조반정 그리고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60여년이였다. 그는 39세 때 武科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지만 미관말직을 거쳐, 50대 이후 성리학에 전념하는 儒學者로 생활했다.

그의 삶은 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 제1기는 출생에서부터 31세까지의 성장기이다. 그는 명종 16년(1561) 음력 6월 21일 永陽 道川里(現 慶北 永川郡 北安面 道川里)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칠언절구의 한시 『載勝吟』²⁾을 지어 어린 나이에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그의 총명함과 뛰어난 시적 재능을 보여 주었다.

제2기는 그의 나이 32세에서 50세까지의 출사기이다. 선조 25년(1592) 4월,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4월 13일에 외적이 부산 동래에 상륙하였다. 노계는 외적들이 동래·울산·경주를 잇달아 공격하여 빼앗고 불과 10일 후인 23일에 영양 땅까지 이르게 되자, 경북 영천의 의병장 鄭世雅의 별시위가 되어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 뒤 선조 31년(1598) 겨울 江左節度使 成允文의 부하로 있을 때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이듬해인 선조 32년(1599), 무관을 뽑는 과거를 통해 벼슬길로 나아갔다. 守門將·宣傳官을 거쳐 경상도 거제의 助羅浦(현재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萬戶라는 벼슬을 지냈다. 의병과 오늘날의 해군인 水軍으로 국가에 봉사하면서 『太平詞』(선조 31년, 1598)·『船上歎』(선조 38년, 1605)을 지어 군사들을 위로하고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드러냈다.

제3기는 그의 나이 51세부터 82세까지의 은퇴기이다. 벼슬을 그만두고 공자의 “朝聞道夕死可矣”를 좌우명으로 삼고 독서와 묵상에 전념하였다. 광해군 3년(1611), 경기 廣州 龍津의 漢陰 李德馨(1561~1613)을 찾아가 함께 지내고, 경주 紫玉山의 晦齋 李彥迪(1491~1553)의 유적을 찾고, 芝山 曹好益(1545~1609)·寒岡 鄭逵(1543~1620)·旅軒 張顯光(1554~1637) 등을 從遊하면서 성리학을 배웠다.

1) 이상보, 『개고 박노계 연구』(일지사, 1962), 15~20쪽; 황폐강 외, 『한국문학작가론2: 조선시대의 작가』(집문당, 2000), 298~301쪽; 황충기, 『노계 박인로 연구』, 고전문학연구18(국학자료원, 1994), 15~19쪽.

2) 朴仁老, 『蘆溪集』, 卷二, 詩 七言絕句, 載勝吟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午睡頻驚載勝吟 如何偏促野人心
啼彼洛陽華屋角 會人知有勸耕禽

다. 인조 8년(1630) 蘆溪谷(現 경북 경주시 山內面 大峴里)으로 이주하여 그곳의 뛰어난 경치를 보고 즐기다가, 다시 고향 도천리로 돌아와 인조 20년(1642) 음력 12월 6일, 82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

이 시기는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때였다. 무관 출신의 문인으로서 四書三經과 성리학에 전념하는 儒者 생활을 했으며, 가사 「莎提曲」·「陋巷詞」(광해군 3년, 1611)·「獨樂堂」(광해군 11년, 1619)·「嶺南歌」(인조 13년, 1635)·「蘆溪哥」(인조14년, 1636), 시조 「辛酉秋與鄭寒岡浴于蔚山椒井」(광해군 11년, 1619)·「立巖二十九詠」(인조 7년, 1629)·「五倫哥」(인조14년, 1636) 그리고 국한문 작품 등 3卷 2冊의 『蘆溪集』을 남겼다.

이렇게 보면, 노계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관직으로 나가갈 때까지, 자신의 삶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지도 못했고 남들과 다른 특출한 성장기를 보낸 인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총명함과 남다른 시적 재능을 드러냈다. 벼슬길에 올라 무관으로 지내던 시절에는 ‘글을 잘 짓는 이’³⁾로 칭찬받았으며, 의병활동과 벼슬을 끝내고 고향에서 지냈던 은퇴기 때에는 학문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하는 성리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가 죽은 후 『노계집』은 교훈적인 내용·웅장한 구상·섬세한 필치와 풍부한 어휘 구사로 시가문학사상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를 국문학사에 뚜렷한 존재로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는 많은 시가 작품을 남긴 문인이다. 가사문학에서는 가사문학의 최고봉인 松江 鄭澈(1536~1593)보다 작품수가 많고, 시조문학에서는 시조문학의 제일인자인 孤山 尹善道(1586~1671)와 비슷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 따라서 노계는 조선시대 문학사상 송강·고산과 함께 ‘近世 三代 詩歌人’⁴⁾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노계는 오늘날 한국문학사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당시 자신의 신분 계층적 한계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임진왜란 후 그는 儒學者들이 지향하는 忠孝와 隱居樂道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지만, 「누항사」와 「耕田哥」 등의 작품에는 가난으로부터 겪게 된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사대부에 속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몸소 농사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양반계층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난리를 겪고 난 후, 무신에 대한 홀대와 극심한 가난함은 그로 하여금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심적 갈등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는 무관의 한계⁵⁾와

3) 朴仁老, 『蘆溪集』 卷二, 附錄, 墓碣銘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公幼而明睿 人誦書史 一聽輒記 長善屬文

4) 이상보, 앞의 책, 9쪽; 박성익, 『송강·노계·고산의 시가 문학』(현암사, 1972), 3~4쪽.

5) 朴仁老,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가난이라는 현실 문제를 문인으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하는 생활양식과 山水樂道를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지키고자 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계의 이러한 인문·지리적 환경이 자신의 시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해서, 선현인 회재에 대한 景慕, 당시 존경받는 이름난 유학자 한음·한강·여헌 등에 대한 尊賢 그리고 은거낙도의 실천 등이 그의 시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무관 출신 문인의 삶을 살았던 노계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강조했던 ‘충과 효’이다. 둘째는 유학자로서 자기 수련의 밑바탕이 되었던 ‘성리학에 대한 전념’이다. 셋째로는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고 자연을 안식처로 삼는 ‘산수락’이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노계의 사상을 도학사상·충효사상·안빈낙도사상·자연애사상으로 분류하여 연구⁶⁾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들과 견주어 보면서, 본 연구에서는 ‘노계 시가의 주제의식과 산수락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폭넓은 의미에서의 노계문학 고찰을 전제로 하여, 그의 시조 문학뿐만 아니라 가사 문학까지 포함한 연구임을 미리 밝혀둔다.

『노계집』에는 노계가 꿈속에서 周公에게 받은 ‘誠·敬·忠·孝’ 四大字를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성리학에 전념했다는 기록⁷⁾이 있다. 그의 시가에는 이에 대한 실천이 잘 나타나 있다. 무관시절의 시가에 나타난 주제의식은 ‘충과 효’였으며, ‘성과 경’을 토대로 문인적 학습과 실천에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연구 범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임병양탄’은 중세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조선시대 전·후기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노계가 직접 전쟁에 참가하여 무관으로 지내면서 창작한 서사적 전쟁가사인 ‘태평사’와 ‘선상탄’이 있다. 이 작품들이 나타내는 시대정신을 고찰하여, 노계의 타고난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충’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시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早紅柿歌’가 나타나고자 했던 어버이에 대한 효와 황충기의 연구⁸⁾를 시발점으로 논란이 되었던 작품 창작경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難後 國家偃武 公纔遞邊守 而時事又大變矣

6) 김기탁, 「노계 박인로의 문학사상」(『영남어문학』 제15집, 1988. 8), 22~31쪽; 이상보, 앞의 책, 36~45쪽; 황충기, 앞의 책, 19~33쪽.

7) 朴仁老, 『蘆溪集』卷二, 附錄, 行狀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嘗夢見元聖 授以誠敬忠孝四大字 公曰 此神聖開我昏蒙也 因手畫成圖 揭壁以自省 謂古人說話太多 非老境精力可及 採存省知行等目之功要者 列書綱下 又撰入德門人鬼關圖 蓋晚年用工 最在庸學上云

8) 황충기, 앞의 책.

둘째, 노계 문학의 정확한 이해는 그에 대한 사상적 이해를 요구한다. 그가 살았던 조선시대는 抑佛崇儒정책으로 인한 儒學思想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는 성리학에 전념하였던 학자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후기에 전래된 성리학에 대한 탐구와 조선시대의 전통의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계가 景慕했던 회재와 그의 유적지인 獨樂堂을 찾아서 노래한 「獨樂堂歌」에 대하여 고찰하고, 아울러 회재의 학문적 근원지라 할 수 있는 당시 개혁세력의 중심, 己卯名賢을 배출한 그의 外家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회재는 노계가 학문적으로 종유할 수 있는 동시대의 인물은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여헌은 노계의 학문적 스승이자 저명한 유학자로서 노계가 추종했던 인물이다. 그는 嶺南學派의 계보를 잇는 성리학자로서 노계의 학문을 완성시켜주었다. 따라서 노계의 「立巖二十九詠」과 여헌 종유 그리고 退溪, 栗谷, 여헌으로 이어지는 학풍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노계의 安貧은 현실도피의 수단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타고난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蘆溪谷의 뛰어난 산수 경관을 述懷하고, 자연의 심오한 이치와 도를 깨닫고 山水樂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노계가」와 그의 隱居樂道를 幽人處士의 삶과 문학 환경을 통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몸소 실천했던 가난과 궁색함을 노래한 「누항사」와 직접 밭을 갈며 가난을 옹호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安貧一念에 대하여 산수락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새 교육과정의 시작과 다양한 교과서가 출판되었지만, 고등학교 국어·문학교과서의 지문으로 줄곧 소개되는 노계 시가의 문학사적 의의와 작품 선정 취지에 부합하여 노계시가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차시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여 본 연구와 부합하는 주제의식과 산수락 학습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壬丙兩亂과 시대정신

임진왜란(선조 25년, 1592~선조 31년, 1598)과 병자호란(인조 14년, 1636)은 조선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역사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 대사건이었다. 특히 임진왜란은 조선 역사의 전·후기 분수령이며, 문학사 시대 구분에서도 조선 전·후기를 구분하는 기점으로 간주⁹⁾되기도 하였다. 陶南 趙潤濟는 이에 대하여 『韓國文學史』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朝鮮의 歷史를 論 하는 이에 壬亂을 中心으로 하여 前期, 後期로 이조의 역사를 둘로 쪼개는 便이 많으니 그만큼 壬亂이란 戰亂은 歷史上 큰 事實이었고, 또 그의 朝鮮 各方面에 미친 影響은 莫大하였다.¹⁰⁾

윗글은 임진왜란이 조선시대 역사 변혁의 큰 외적 요인이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노계는 이 시대를 살았던 시가인이다. 그의 삶은 전쟁과 은거낙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가 직접 참전했던 전쟁과 종전 이후의 시대적 삶이 그의 작품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조선전기의 시대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임진왜란 발발의 원인에 대한 고찰과 노계의 참전을 통한 「태평사」, 「선상탄」의 주제 의식에 대한 언급을 위함이다.

조선은 건국 후 약 100여 년 동안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은 양반들이 잘 정돈된 관료조직을 운용하면서 조선의 정치를 이끌어갔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수립되어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성종(1457~1494) 이후 士林派의 등장으로 조선정치가 새로운 국면에 맞닥트리게 된다. 이때까지 정치를 주도한 양반들은 보수적인 성향의 勳舊派였는데, 지방 재야의 문인·학자들이었던 사림파가 관리가 되어 정계에 진출하였다. 사림파는 정치적으로 관직 진출에 성공은 하였지만, 주도권까지 장악하지는 못하였다. 사림파와 훈구파와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거듭되었고, 그것이 土禍로 나타나게 되었다.

연산군(1494~1506) 때 역사편찬의 기본 자료가 되는 史草에 세조의 찬탈을 비판한 金宗直의 弔義帝文을 발미삼아 훈구파가 사림파를 숙청한 戊午土禍로 시작하여 甲子土禍가 일어났고, 중종(1506~1544) 때에는 유교적 도덕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던 趙光祖 일파의 몰락을 가져온 己卯土禍가 일

9) 조윤제, 『한국문학사』(탐구당, 1987).

10) 조윤제, 앞의 책, 196쪽.

어났다. 그 뒤 명종(1545~1567) 때에 乙巳土禍가 일어나 사림파가 박해를 받았지만, 선조(1567~1608) 때에 이르러 사림파가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사림파는 公論을 중시하여 지배층의 여론을 널리 수렴해서 정치에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이상적인 道學政治를 지향하였으며, 그들이 주장한 至治主義 政治는 유교적 도덕이 구현되는 이상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림정치는 양반관료체제를 바탕으로 조선의 정치를 폭넓고 활기차게 발전시킨 것으로, 성리학을 통하여 유교적 이념을 심화시켰다. 사림정치가 전개되면서 계파간의 대립으로 朋黨들이 나타나고, 마침내 그들 사이에 격렬한 권력투쟁이 당파싸움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사림정치와 봉당정치의 모순과 대립이 야기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조선은 임병양란이라는 외침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사림정치와 성리학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인가? 조선은 임병양란을 겪으면서도 국가체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본래 조선은 오랜 역사에 걸맞은 튼튼한 국가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던 나라였고, 조선의 정치이념이었던 사림정치와 성리학은 국가체제 존립에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가능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전국 도처에서는 당파에 관계없이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다. 노계 역시 의병으로 참전하였다. 그들은 왜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렸던 조선의 戰勢를 바로 잡았다. 의병장은 거의 모두가 양반이었고, 특히 무관이 아닌 문관 출신이었다. 그들은 지방 유림 명문가문의 인재들로서, 지방 관리들의 전쟁 능력에 대한 무능과 비겁함, 관군들의 연전연패에 격분하여 일어났다. 당쟁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사대부들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상황의 조국을 위하여 우리민족의 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응집력'을 발휘한 것이다.

의병에는 평민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동족의 안위와 향토방위를 위하여 의병에 가담하여 서민계급으로 대두되었다. 양반계급의 무력함과 허구성을 알게 되었고, 민족적·평민적 자각이 그들 내부에 싹트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문학을 求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배계층만의 전유물이었던 한문학이 불신되기에 이르렀으며, 평민적 경향의 평민에 의한 문학창작 활동이 촉진되었다. 조운제는 「한국시가사강」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壬辰亂은 朝鮮 國家社會에 莫大한 影響을 기쳤다. 李朝 五百年 歷史를 크게 兩分 한다면 實로 이것이 그 分界線이 될만치 一般 政治 經濟 文化에 또 民心의 趣移와 생활양식에까지 적잖이 前代와 그 傾向을 달리 하였으나, 特히 이 時代에 있어서 顯著히 눈뜨이는 것은 平民階級の 自覺한 생활이다. 입대까지의 平民生活는 無條件으로 兩班을 崇拜하고 그에 順從하여 왔으나, 壬辰亂中에야 겨우 그들의 힘의 存在를

認識하게 되고 同時に 兩班이란 것은 其實 그 內容이 貧弱한 것을 깨달아 空然히 自出로 나아가서 스스로 賤게 굴것이 아닌줄 알았다. 이것은 當時 社會에 미친 影響이 컸을줄 믿는다. 또 한便 兩班階級 自體에 있어서도 많이 反省하여 지금까지의 自己들의 한일은 너무나 國家社會에 實益이 되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앞으로는 좀더 國民의 힘이 될 무엇을 하여야만 되겠다 하게 되었다.

그러게 되면 文化社會에는 제절로 明白한 바와 같이 文學에 있어서는 平民文學이 擡頭하여야지는 것이다.¹¹⁾

윗글은 전란을 기록하는 문학양식이 양반과 서민계급의 거리를 좁혀 주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양한 소재와 문학적 양식 및 표현의 변화가 생겼다. 전쟁의 참상과 그로 인한 고난의 삶 그리고 외적에 대한 적개심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난리 해결을 위한 민족적 역량을 모으자는 글들이 많아졌다. 노계의 「태평사」는 이러한 국면에서 ‘승전의식’ 고취, 「선상탄」은 개인 정서인 ‘우국지성’을 노래하기 위하여 창작되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전쟁이라는 시대상황에서 ‘충’의 실천을 노래한 전쟁가사들이다.

종전 후 노계는 유자의 삶을 지향하였다. 그는 효성이 지극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노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공의 성품은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어머니 朱씨가 노년에 살아 계실 때 공이 매우 근심스러워 하며 날을 아끼어 부지런히 봉양을 하였고 가난 때문에 혹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여름에는 잠자리에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겨울에는 몸으로 자리를 따뜻하게 해 드렸다. 아침저녁으로 곁에서 화한 얼굴로 극진히 모셨고 병이 나심에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닐 때에는 신발을 바로 하지 못하였다.

상을 당하여 신음을 전폐하여 여러 번 혼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났다. 장사지내는 모든 절차에 반드시 정성과 삼감을 다했다. 儒子의 사모함을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하였다.¹²⁾

윗글은 노계의 ‘종신성효’에 대한 기록이다. 노계는 ‘충’과 더불어 ‘효’의 실행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의 충효사상은 노계 자신의 전 일생을 통하여 일관되게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지만, 전쟁가사인 「태평사」와 「선상탄」이 이를 증명

11) 조윤제, 『한국시가사강』(을유문화사, 1951), 297쪽.

12)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100쪽.

公性至孝 母朱氏臨年在堂 公每瞿然愛日 滄瀧之供 不以貧窶或闕 夏則扇枕席 冬則以身溫被 朝夕侍側 極其怡愉 疾病憂遑涕泣 行不正履 及喪 水醬不入口 絕而甦者數四 送終諸節 必誠必愼 孺子之慕

해 주고 있다. 「조흥시가」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노계의 대표적인 시조 작품으로서, 「태평사」·「선상탄」과 더불어 노계의 충효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작품이라 할 수 있다.

1. 「太平詞」와 戰勝意識

「太平詞」는 전쟁의 실상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다. 『노계집』에는 이 작품의 창작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戊戌年에 江左節度使 成允文이 공의 명성을 듣고 佐幕으로 불렀는데 공이 매양 적의 정황을 논하면 允文은 무릎을 치면서 몹시 칭찬하였다. 이해 겨울 적이 해상으로 달아나니 공이 「태평사」를 지어 사졸들을 위로 하였다.¹³⁾

戊戌年 겨울에 釜山에 주둔해 있던 倭賊들이 밤을 틈타 도망하였다. 이 때에 蘆溪公이 左兵使 成允文의 幕下에서 돕고 있었는데, 兵使가 이 소식을 듣고 곧 軍隊를 인솔하여 부산으로 달려가서 10여 일을 머문 후에 本營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公으로 하여금 이 노래를 짓게 하였다.¹⁴⁾

윗글은 「태평사」는 선조 31년(1598) 겨울, 임진왜란 말기에 강좌절도사 성윤문의 명령으로 군사들의 노력과 수고를 위로하고자 노계가 지었다는 기록이다. 「태평사」는 노계가 창작한 최초의 가사작품이다. 무관의 강인함이 화려한 글 솜씨로 표현되어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우리나라 가사 작품들 중 「태평사」만큼 남성적인 강렬한 기백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은 드물다.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으로 반영한 서사적인 가사 작품이다. 이상보는 「태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3)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97쪽.

戊戌 江左節度使成允文聞公名 檄召佐幕 公每論賊情 允文擊節稱善 是年冬 賊遁去海上 公作太平詞 以勞士卒

14)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歌, 太平詞(역락, 1999), 145쪽.

戊戌季冬 釜山屯賊 乘夜奔潰 時公佐左兵使成允文幕 兵使聞卽率軍馳到釜山 留十餘日後還到本營 明日 使之作此歌

建國 以來로 平和스럽게 文化를 누리며 살다가 一朝에 島夷의 侵攻을 받아 國運이 危殆롭게 되었으나 朋兵의 來援과 民兵들의 勇戰으로 賊徒를 무찌르고 凱旋하는 기쁨을 나타내고 다시 맞이한 太平時節에 忠孝一念으로 五倫을 밝히면서 同樂할 것을 祝願하는 노래이다.¹⁵⁾

윗글은 노계가 전란 속에서 애국정신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병사들에게 승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태평성대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에서는 「태평사」를 다음과 같이 11개 단락으로 나누어 작품 속에 나타난 승전의식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각 단락을 서사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11단락의 구분과 내용이다.

제1단락은 “나라히 偏小호야 海東에 벼려셔도~衣冠文物이 漢唐宋이 되어져니” 부분이다. 예로부터 이 나라는 찬란한 문물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제2단락은 “島夷百萬이 一朝에 衝突호야~煙塵이 아득호야 日色이 열워져니” 부분이다. 섬나라의 왜적으로부터 기습을 당하여 처참하게 되었음을 묘사하고 있다.

제3단락은 “聖天子 神武호샤 一怒를 크게내야~英雄仁勇을 喉舌에 셋겨시니” 부분이다. 명의 구원병을 얻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제4단락은 “炎方이 稍安호고 土馬精強호야져니~疾風大雨에 霹靂이 즈치는듯” 부분이다.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 병사들의 전쟁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제5단락은 “淸正小豎頭도 掌中에 잇것마는~有敗灰燼호니 不在險을 알니로다” 부분이다. 적군의 무력함과 전쟁의 승패는 자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제6단락은 “上帝聖德과 吾王沛澤이 遠近업시 미쳐시니~七載를 奔走터가 太平오늘 보완디고” 부분이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태평의 시작이 보이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제7단락은 “投兵息戈호고 細柳營 도라들제~太平模樣이 더욱호나 반가울샤” 부분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위풍당당하게 본영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노래하고 있다.

제8단락은 “揚弓擧矢호고 凱歌를 아뤄오니~人間樂事이 이긋호니 쏘인논가” 부분이다. 개선가를 부르며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제9단락은 “華山이 어더오 이말을 보내고져~白日이 불그니 萬方에 비최노다” 부분이다. 이제는 전쟁도 끝났으니 남은 것은 충효를 실천해야 하는 일 뿐이요, 중국 복희씨의 태평세월을 다시 본 듯함을 묘사하고 있다.

15) 이상보, 앞의 책, 60쪽.

제10단락은 “處處溝壑에 흐터잇던 老羸드리~敎訓生聚 | 라 절로아니 넘어가랴” 부분이다. 살아남은 백성들의 귀향을 반기고 성은에 보답하는 길을 말하고 있다.

제11단락은 “天運循環을 아옵게다 하느님아~우리도 聖主을 피옵고 同樂太平 ㅎ오리라”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도와 영원히 태평을 누릴 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제 위의 단락 구분을 근거로, 「태평사」에 나타난 승전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2단락의 ‘외적의 침입’을 서술한 부분이다.

億兆驚魂이 칼빛 출 조차 나니
平原에 사한 駢는 毘두곤 노파 잇고

외적의 칼날에 희생된 조선 백성의 시체를 활용한 과장을 사용하여 전란의 처참한 현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雄都巨邑은 豺狐窟이 되얏거늘

조선 백성들이 피난을 떠나고 없는 큰 도읍들이 왜적의 천지가 된 원통함을 서술하고 있다. “豺狐窟”에서 노계는 왜적을 승냥이와 여우로 묘사하였다. 조선을 함부로 짓밟고 있는 섬나라 오랑캐들에 대한 그의 적개심과 울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노계는 이 부분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는 목표, 다시 말해서 승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다음은 ‘선조 임금의 의주 피난’ 부분이다.

淒涼玉輦이 蜀中으로 비와드니
煙塵이 아득 ㅎ야 日色이 열워져니

처량하기 짝이 없는 선조의 피난 행렬이 의주에 들어섰을 때, “연기와 먼지가 아득히 쌓여서 햇빛이 엷었더니(煙塵이 아득 ㅎ야 日色이 열워져니)”고 묘사하고 있다. 노계는 풍전등화와 같고, 王威(日色)가 위태로운 비극적 상황을 비극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완곡하게 표현했다. 논의하고 싶지 않은 서사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노계의 탁월한 서사묘사 수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다. 치욕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병사들로 하여금 승전의식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승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제3단락 '명나라 군대의 조선 내원'에 관한 서술이다.

聖天子 神武^호샤 一怒를 크게 내야
平壤群衆을 一劍^하의 다 버히고
風驅南下^호야 海口에 더져두고
窮寇을 勿迫^호야 몇몇히를 디내연고

선조가 의주에 이르러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간청하여, 우리나라에 내원한 명나라 군대와 함께 평양에 머물던 왜적 小西行長을 격파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전과를 묘사한 구절이다. '聖天子'란 표현은 당시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일반적 관념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이 표현은 중국 황제의 호칭으로써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을 사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다. 제1단락의 "나라히 偏小^호야 海東에 버려셔도" 부분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다. 역시 중국을 향한 사대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다. 노계가 유교사상에서 성장했고 그의 사상적 경향이 성리학임을 추론 가능하게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명나라 군대의 구원으로 인한 승리와 외적을 패퇴시킨 전공을 노래함으로써 병사들에게 승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제4단락 '정유재란 발발'을 서술한 부분이다.

皇朝一夕에 大風이 다시 이니
龍 鬚^호 將帥와 구름 鬚^호 勇士들이
旌旗蔽空^호야 萬里에 이어시니
兵聲이 大振^호야 山岳을 썩엿는 듯
兵房 御營大將은
先鋒을 引導^호야 賊陣에 突擊^호하니
疾風大雨에 霹靂이 즈치는 듯

'丁酉再亂'이라는 서사를 대조법을 사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皇朝'는 천자가 다스리는 시기로 세상이 평화롭고 안락한 때를 가리킨다. 皇朝의 '朝'에 一夕의 '夕'을 대조시켜서 암울한 전쟁이 다시 발발하였음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龍 鬚^호 將帥'에 '구름 鬚^호 勇士'를 대조시켜 병사들의 質과 量을 복선적으로 나타내고, '旌旗蔽空^호야'와 '萬里에 이어시니'를 하늘과 땅이라는 높낮이로 대조시켰다.

“皇朝一夕에~山岳을 썩엿는 듯”의 초반부는 용맹스러운 장수와 많은 병사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함성을 지르면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였고, “兵房 御營大將은~霹靂이 즈치는 듯”의 후반부는 어영대장을 선봉으로 적진에 돌격하여 왜적을 물리치는 구체적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노계는 직접 전쟁에 뛰어든 무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유재란에서 왜적을 물리친 장수·어영대장·병사들의 용감한 활약상을 노래함으로써 그들의 사기와 승전의식을 드높이고 있다.

제7단락 ‘귀영 휴식’을 서술한 부분이다.

投兵息戈하고 細柳營 도라들 제
 太平簫 노끈 솔의에 鼓角이 섰겨시니
 水宮 깊은 곳의 魚龍이 다 우는 듯
 龍旗偃蹇하야 西風에 빗겨시니
 五色祥雲 一片이 半空에 썩러딘 듯
 太平模樣이 더욱 하나 반가올사

7년 전쟁 동안 신하로서의 본분을 마친 용사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본영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太平이란 語句가 제6단락의 “七載를 奔走터가 太平오늘 보완디고”의 “太平 오늘~”부터 제7단락의 “太平簫~, 太平模樣이~”까지 세 번 연속적으로 중첩되었다. 이 가사의 제목이 두드러지게 강조된 구절이다.

‘投兵息戈’, ‘龍旗偃蹇’의 성어들의 사용은 노계의 상투적인 묘사 수법이다. 한자 속어를 차용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의 위풍당당함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水宮 깊은 곳의 魚龍이 다 우는 듯 龍旗偃蹇하야 西風에 빗겨시니 五色祥雲 一片이 半空에 썩러딘 듯”의 화려한 표현을 사용하여 개선의 당당함을 서술하고 있다. 위풍당당한 개선을 노래함으로써 병사들의 승전의식 드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8단락 ‘전승의 기쁨’을 서술한 부분이다.

揚弓擧矢하고 凱歌를 아뤄오니
 爭唱歡聲이 碧空에 얼희는다
 三尺霜刃을 興氣계워 둘러메고
 仰面長嘯하야 춤을추려 이려서니

天寶龍光이 斗牛間의 소이느다
手之舞之 足之蹈之 절노절노 즐거오니
歌七德 舞七德을 그칠줄 모르로다
人間樂事 | 이긋히니 쏘인는가

승리의 기쁨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 부분이다. “揚弓舉矢하고 凱歌를 아뢰오니 爭唱歡聲이 碧空에 얼히느다”의 환희의 소리, “三尺霜刃을 興氣계워 둘러메고 仰面長嘯하야 춤을추려 이려서니”의 전투 장비인 칼을 둘러메고 춤을 추려하는 흥이 “手之舞之 足之蹈之 절노절노 즐거오니”에 이르러는 기쁨이 최고조에 달해 저절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 단락은 특이하게 ‘~아뢰오니, ~얼히느다, ~이려서니, ~소이느다, ~즐거오니, ~모르로다’와 같이 각운 형태의 운율이 반복되고 있다. 연결어미 ‘~니’와 종결어미 ‘~다’로 한 소절씩 함께 군가 형태로 歌唱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겠다.

흥이 그치지 않는 기쁨의 정서를 노래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승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제11단락 ‘태평 축원’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天運循環을 아옵게다 하느님아
佑我邦國하샤 萬世無疆 놀리소서
唐虞天地에 三代日月 비최소서
於萬斯年에 兵革을 그치소서
耕田鑿井에 擊壤歌을 불니소서
우리도 聖主을 뵈옵고 同樂太平 하오리라

이 가사의 결사 부분이다. “唐虞天地에 三代日月 비최소서”의 표현은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노계의 중국 사대사상이 마지막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법을 활용하여 표현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 “아옵게다 하느님아” 구절은 도치법을 사용하여 강조 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놀리소서, ~비최소서, ~그치소서, ~불니소서’ 구절들은 열광적 축도의 표현인 ‘~소서’를 중첩 사용함으로써 줄이 바뀔 때 마다 더욱 의미가 강화되는 효과를 유도하였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전쟁 없는 영원한 태평성대를 축도함으로써, 태평세월을 임금과 함께 누리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태평사」는 임진왜란이라는 서사적 국난에서 승전의식을 드높이고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전쟁가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의 역사를 돌로 쪼개는 7년 전란의 시련 속에서도 강직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불굴의 저항의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국충절을 근간으로 하는 태평성대의 염원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2. 「船上嘆」과 憂國至誠

『노계집』에는 「선상탄」의 창작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때에 나라가 아직 남쪽 변방이 근심스러우므로 공을 統舟師로 뽑아 부산을 방어토록 하기 위해 부임케 했다. 공이 배에 臨하여 이 곡을 지었다.¹⁶⁾

윗글은 「선상탄」은 선조 38년(1605) 3월에 노계가 부산의 통주사로 임명되어 갈 때 지은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노계의 나이는 45세였으며, 그는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수군을 통솔하고 鎭東營에 이르러 마음속의 회포를 노래하였다. 「선상탄」도 「태평사」와 마찬가지로 전쟁가사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7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었지만, 일본과의 화친이 선조 40년(1607)에 이르러 부산에 倭館을 허용하는 정도로 시작되었으니,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다. 노계는 「선상탄」에서 命을 받들어 부임지로 떠나는 선상에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대마도를 굽어보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상보는 「선상탄」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늙고 病든 몸으로 命을 받아 關防重地에 一長劍 차고서 對馬島를 굽어보고, 배의 由來와 아울러 일어나는 興氣를 노래하면서, 蠡彼島夷들의 乞降과 太平天下가 돌아오면 漁舟에 唱晚하고 聖代를 누리고 싶다는 소원을 노래한 것이다.¹⁷⁾

16)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歌, 船上嘆(역락, 1999), 160쪽.

時國家尙憂南陲 選公統舟師 赴防釜山 公臨船作此曲

17) 이상보, 앞의 책, 93쪽.

본 연구에서는 「선상탄」을 다음과 같이 8개 단락으로 나누어 작품 속에 나타난 우국지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8단락의 구분과 내용이다.

제1단락은 “늘고 病든몸을 舟師로 보너실시~아득흐 滄波는 긴하늘과 훈빛칠쇠” 부분이다. 을사년 3월, 노계 나이 45세에 명을 받아 일장검 짚고서 배위에서 올라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제2단락은 “船上에 徘徊하며 古今을 思憶호고~普天之下에 萬民怨 길우느다” 부분이다.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 넘어 만리 밖의 왜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된 것은 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배를 처음 만들었던 중국의 軒轅氏를 원망하고 있다.

제3단락은 “어즈버 씨드라니 秦始皇의 타시로다~舟師 이시럽은 견혀업게 삼길렀다” 부분이다. 童男童女들을 바다로 보내어 당해 내기 어려운 적을 만들게 한 현원씨와 徐市를 원망하는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제4단락은 “두어라 既往不咎라 일너무엇 호로소니~浮萍호흐 漁父生涯를 一葉舟 아니면 어디부쳐 던힐노고” 부분이다. 배로 인해서 생겨나는 흥취와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제5단락은 “일언닐 보견던 帑삼긴 制度야 至妙호던트 호다마는~其間 憂樂이 서로호지 못호도다” 부분이다. 술상과 쟁반이 여기 저기 흩어져 어지러운 옛날 배와 대검과 창만 실려 있는 오늘의 배는 그간의 슬픔과 즐거움이 다른 것이니,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한심하게 생각된다는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제6단락 “時時로 멀이드러 北辰을 바라보며~憂國丹心이야 어니刻에 이즐넉고” 부분이다. 작자인 노계 자신의 우국단심을 토로한 구절이다. 葛巾布衣로 노숙하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이다.

제7단락은 “慷慨계운 壯氣는 老當益壯 호다마는~鼠竊狗偷를 저그나 저흠소냐” 부분이다. 늙고 병들었지만, 좀 도둑같은 섬나라 오랑캐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심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8단락은 “飛船에 돌려드러 先鋒을 거치면~聖代海不揚波를 다시보려 호노라” 부분이다. 섬나라 오랑캐들이 빨리 항복하기를 바라며, 전란이 끝나면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배를 타고 세월을 보내면서 즐기겠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제 위의 단락 구분을 근거로, 「선상탄」에 나타난 우국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단락 ‘명을 받아 부임지로 떠나는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늘고 病든 몸을 舟師로 보니실시
 乙巳三夏에 鎮東營 내려오니
 關防重地에 病이 깊다 안자실라
 一長劍 비기치고 兵船에 구테 올라
 勵氣瞋目하야 對馬島을 구어보니
 벼람 조친 黃雲은 遠近에 사혀 있고
 아득흔 滄波는 긴 하늘과 혼빛칠쇠

“늘고 病든 몸을 舟師로 보니실시”는 송강이 관동관찰사로 명을 받았을 때의 “江湖에 病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하고 노래한 것과 비슷한 시상이라 할 수 있다. 노계는 자신의 身病보다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하고 노쇠한 자신의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關防重地에 病이 깊다 안자실라” 구절에서는 ‘關防重地’를 지켜야 하는 무인으로서의 긍지를 드러내고, “一長劍 비기치고 兵船에 구테 올라 勵氣瞋目하야 對馬島을 구어보니”에서는 왜적들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노기에 찬 얼굴과 적들을 집어 삼킬 듯한 패기로 바라보는 ‘勵氣瞋目’의 우국지성을 수군 통솔 정경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태평사」처럼 남성적인 강렬한 기백과 적극적인 반일감정을 노래하고 있지만, “벼람 조친 黃雲은 遠近에 사혀 있고 아득흔 滄波는 긴 하늘과 혼빛칠쇠”에서는 「선상탄」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노계의 기본의식이 전반적으로 소극적 태도임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제2단락 ‘헌원씨에 대한 원망’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船上에 徘徊하며 古今을 思憶하고
 어리미친 懷抱에 軒轅氏를 애드노라
 大洋이 茫茫하야 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風波萬里 밧기
 어니 四夷 엇불넌고 무슴 일 하려 하야
 비 못기를 비롯흔고 萬世千秋에 7업손 큰 弊 되야
 普天之下에 萬民怨 길우는다

“船上에 徘徊하며 古今을 思憶하고 어리미친 懷抱에 軒轅氏를 애드노라”에서 이런 생각이 어리석고 미친 생각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배에서 배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다. 배로 인하여 왜적의 침입이라는 전란을 당하게 되고 만민의 원한을 사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원씨가 배를 만들지 않았고, 배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왜적이 조선을 침범하는 일은 없었을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노계는 조선 침략의 근원이 되는 침략 도구를 탓함으로써, 제1단락에서 예고되었던 전쟁에 대한 소극적 정서를 넘어 어린이이 같은 순진함까지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노계의 이러한 정서를 소극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전쟁을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시가인임을 「태평사」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국의 침공 보다는 태평무사한 국가의 안위를 기원함이 우국지성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3단락 ‘진시황에 대한 원망’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즈버 씨드라니 秦始皇의 타시로다
 벉 비록 잇다흐나 倭를 아니 삼기던들
 日本 對馬島로 뵈 벉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童男童女를 그더도록 드러다가
 海中 모든 섬에 難當賊을 기쳐두고
 痛憤헌 羞辱이 華夏에 다 밋나다
 長生不死藥을 얼미나 어더너여
 萬里長城 놉히 사고 몇 萬年을 사도편고
 놉더로 죽어가니 有益헌 줄 모로로다
 어즈버 생각흐니 徐市等이 已甚흐다
 人臣이 되야서 亡命도 흐논것가
 神仙을 못 보겨든 수이나 도라오면
 舟師 이 시렵은 견혀 업게 삼길렀다

“벉 비록 잇다흐나 倭를 아니 삼기던들 日本 對馬島로 뵈 벉 절로 나올넌가”는 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왜적이 없었다면 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즉흥적인 생각을 노래한 부분이다.

“뉘 말을 미더 듯고 童男童女를 그더도록 드러다가 海中 모든 섬에 難當賊을 기쳐두고”의 “童男童女”는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고자 서부를 시켜 미혼남녀 삼천 명을 데리고 삼신산으로 보내 고사의 내용이다. 노계의 시가에는 중국 고사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 많다. 이에 대하여 이상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漢文成語와 中國故事를 그 作品에서 수없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欠이라고 할 것이나, 그 時代 一般의 常用語가 그런 것이었음을 認定한다면 다만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레 調和시켜 놓은 것도 蘆溪詩歌의 特徵이라 할 것이다.¹⁸⁾

그리고 “海中 모든 섬에 難當賊을 기쳐두고 痛憤한 羞辱이 華夏에 다 밋나다”의 ‘華夏’는 중국을 달리 이르는 표현으로 노계의 시가에 등장하는 중국에 대한 사대사상을 알 수 있다. 노계가 진시황과 그의 사신이었던 서불을 탓하고 있는 이유는 서불의 후손이 왜인이라는 중국 전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시황의 사신이 없었다면, 조선을 침략한 왜적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조선의 침략 도구인 배를 탓했다. 이 번 단락에서는 조선을 침략한 주체인 왜적을 존재하게 한 왜적의 조상을 탓함으로써 반일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人臣이 되야셔 亡命도 ㅎ는것가” 부분에서 서불의 일본 망명에 대한 표현이 그 근거가 된다. 아울러 왜적들의 조상이 된 서불을 탓하면서 노계 자신은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우국지성이 변치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효과도 있다. 『태평사』처럼 직접적인 전투장면의 묘사는 없지만, 『선상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충’을 노래하는 효과를 극대화되고 있다.

제4단락 ‘이미 지난 일은 허물하지 않고 있다는 심정’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두어라 既往不咎라 일너 무엇 ㅎ로소니
 속절업손 是非를 후리쳐 더더두자
 潛思覺寤 ㅎ니 내 뜻도 固執고야
 黃帝作舟車 ㄴ 윈 줄도 모르로다
 張翰江東에 秋風을 만나신들
 扁舟 ㄴ 아니 타면 天淸海闊 ㅎ다
 어너 興이 절로 나며
 三公도 아니 밧골 第一江山에
 浮萍 又 ㅎ 漁父生涯를 一葉舟 아니면
 어더 부쳐 ㄴ힐ㄴ고

18) 이상보, 앞의 책, 55쪽.

“黃帝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구절은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을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고 배의 공덕을 생각하고 있다. ‘원망’을 ‘인정’으로 시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단락이다.

“張翰江東에 秋風을 만나신들 扁舟가 아니 타면 天淸海闊하다” 구절은 중국 이백의 詩에서 ‘張翰江東, 秋風, 天淸’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미 지난 일들의 과오를 따지지 않고 있으며, “三公도 아니 밧골 第一江山에” 부분에서는 이백의 시 구절 “산공 벼슬 준다 한들, 이 강산을 놓을 쏘냐(三公不換此江山)”를 풀어썼다. 이 부분은 노계의 작품의 상투적인 기교라고 할 수 있다. 중국문학의 영향과 활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문학은 중국문화가 유입된 삼국시대 이후 그들의 문화를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을 모방하고 따르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노계의 작품에서 이백의 작품 인용 빈도는 3회 정도이다.¹⁹⁾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浮萍又호 漁父生涯을 一葉舟 아니면 어디 부쳐 屯堠는교”에서 작은배 하나에 몸을 실어 넓은 바다에서 유유자적하는 어부의 풍류적인 기상을 노계가 품고 있는 평화주의 정신으로 드러내어 그의 우국지성을 노래하고 있다.

제5단락 ‘과거와 지금의 憂樂’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언 닐 보견된 杯盤인 制度야
至妙호 덕 호다마는 엇디호 우리 물은
늑는 듯호 板屋船을 晝夜의 빗기 타고
臨風咏月호디 興이 전혀 업는게오
昔日舟中에는 杯盤이 狼籍터니
今日舟中에는 大劍長鎗뿐이로다
훈가지 碇안마는 가진 碇 다라니
其間憂樂이 서로 긋지 못호도다

“昔日舟中에는 杯盤이 狼籍터니”라 하여 이 구절은 전함의 살풍경한 분위기를 더욱 애절하게 서술하고 있다. 풍류의 상징인 술잔과 술상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옛날의 배와 큰 칼과 긴 창뿐인 오늘의 배를 對句시켜 전투준비 분위기를 표현하는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 “훈가지 碇안마는 가진 碇 다라니 其間憂樂이 서로 긋지 못호도다”에서 배가 침략의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도 할 수 있겠지만, 배를 이용해 전쟁을 일으킨 왜적들의 잘못된 근성

19) 황충기, 앞의 책, 119쪽.

을 내포시켜 반일의 정서로 환기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노계 자신의 우국지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제6단락 ‘우국단심’ 부분이다.

時時로 멀이 드러 北辰을 바라보며
傷時老淚를 天一方의 디이느다
吾東方 文物이 漢唐宋에 디라마는
國運이 不幸하야 海醜兇謀에
萬古羞을 안고 이셔 百分애 헛가지도
못 시셔 버려거든 이 몸이 無狀흔들
臣子 | 되야 이셔다가
窮達이 길이 달라 몬 뵈옵고 늘거신들
憂國丹心이야 어니 刻애 이즐넉고

이 작품에서 작가 노계의 우국지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時時로 멀이 드러 北辰을 바라보며”는 노계 시가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시가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법²⁰⁾이다. ‘북신’은 북극성으로 임금이 계신 곳을 뜻하며, 시골에 살고 있든 귀양살이 하든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것은 충성스런 신하의 습관이다.

“傷時老淚를 天一方의 디이느다”의 ‘노인의 눈물’은 군왕을 향한 일편단심을 묘사하고 있으며, “臣子 | 되야 이셔다가 窮達이 길이 달라 몬 뵈옵고 늘거신들 憂國丹心이야 어니 刻애 이즐넉고” 부분에서는 신하로서 임금조차 옆에서 모실 수 없는 애타는 심정의 우국단심을 잊지 못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노계는 이 단락에서 우국충신의 습관, 군왕을 향한 일편단심과 우국단심을 피력하여 자신의 우국지성을 노래하고 있다.

제7단락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慷慨계운 壯氣는 老當益壯하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病中에 드러시니

20) 朴仁老, 『蘆溪集』 卷三, 歌, 莎提曲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時時로 머리 드러 北辰을 바라보니

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ㅎ건마는
 그러나 死諸葛도 生伸達을 멀리 좃고
 발 업손 孫臏도 龐涓을 잡아거든
 ㅎ믈며 이 몸은 手足이 ㄱ자 잇고
 命脈이 이어시니 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흠소냐
 飛船에 둘러드러 先鋒을 거치면
 九十月 霜風에 落葉가치 헤치리라
 七縱七禽을 우린들 못홀것가

「선상탄」에서 왜적을 위압하고자 하는 기상과 절개, 기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상보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此章은 「船上嘆」에서도 가장 豪氣스런 대목이니, 저 中國의 戰國時代에 勇戰奮鬪하던 諸葛武侯 와 孫子 등을 본받아 倭寇를 무찌르겠다고 壯談한 것이다. 그러나 ‘死者葛’과 ‘발 없는 孫臏’과 ‘病中の 蘆溪’라고 모두가 逆境의 狀態로써 雪憤伸冤하려는 意中을 말한 것은 霸氣奔放함이 不足하다 아니할 수 없다.²¹⁾

‘죽은 제갈공명’과 ‘불구의 손빈’처럼 병중의 노계도 오로지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각오가 비장함을 잘 나타낸 기록이다. 병중의 몸이지만 우국지성의 신념으로 왜적의 무리를 추풍낙엽처럼 무찌를 수 있다는 노계 자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手足이 ㄱ자 잇고 命脈이 이어시니”는 중국 故事에서 적을 무찌르는 뛰어난 지혜와 결단력·용기 등을 갖추고 있는 손빈과 제갈공명을 언급하여 왜적에 대한 자신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노계 자신은 손빈과 제갈량 보다는 나은 처지에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七縱七禽을 우린들 못홀것가”에서 공명의 ‘칠종칠금’을 인용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노계의 우국지성을 노래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선상탄」은 우국지성을 노래한 전쟁가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작품 내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태평사」와는 다른 전쟁 성향의 서술이다. 「태평사」와 비교하여 노계의 무관적 기질이 결여되어 있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첫째, 작품의 창작의 시기이다. 「태평사」는 임진왜란 중에 창작되었고, 「선상탄」은 전쟁이 끝나고

21) 이상보, 앞의 책, 108~109쪽.

10여년이 지난 뒤의 작품이다. 따라서 「태평사」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었지만, 「선상탄」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쟁을 분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전투 장면의 묘사이다. 「태평사」에서는 왜적과 실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선상탄」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없다. 실제적인 전투가 아니라 왜적에게 항복을 권유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난리에 대한 권태와 왜적과의 싸움에 대한 종료를 기대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태평성대의 염원이다. 「태평사」에서는 하느님께 축도하여 하늘의 운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태평성대이다. 「선상탄」에서는 오랑캐의 항복에 의한 전쟁승리로써, 전쟁에 패한 왜적을 무리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만민공생의 태평성대를 염원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선상탄」은 늙고 병든 몸으로 대마도를 바라보며 왜적들의 항복과 태평성대를 염원을 노래한 전쟁가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섬나라 오랑캐들에 대한 적개심과 왜적을 격파하고 항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는 조선민족의 평화주의 정서도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태평사」에 비하여 무관의 기질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노계의 소극적인 성향도 분석되기도 했지만, 「선상탄」 전체에서 드러나는 우국지성의 정서는 노계의 생애에 이념적 지주로 자리 잡고 있는 충효사상의 실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早紅柿歌」와 終身誠孝

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윤리이다. 특히 동양사상에서 효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규범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노계는 효성이 지극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노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공의 성품은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어머니 朱씨가 노년에 살아 계실 때 공이 매양 근심스러워 하며 날을 아끼어 부지런히 봉양을 하였고 가난 때문에 혹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여름에는 잠자리에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겨울에는 몸으로 자리를 따뜻하게 해 드렸다. 아침저녁으로 곁에서 화한 얼굴로 극진히 모셨고 병이 나심에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닐 때에는 신발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다.

상을 당하여 신음을 전폐하여 여러 번 혼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났다. 장사지내는 모든 절차에 반드시 정

성과 삼감을 다했다. 儒子の 사모함을 죽을 때까지 한결 같이 하였다.²²⁾

『조흥시가』는 망인이 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과 誠孝를 노래한 노계의 대표적인 시조 작품이다. 위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삶과 같은 그의 삶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몇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의 충효사상 중 ‘효’를 노래한 작품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노계집』에는 『조흥시가』의 제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辛丑年 9월 초에 漢陰 相公이 公에게 早紅柿를 보내었다. 公이 흥시로 인하여 느낀 바가 있어서 노래를 지었다.²³⁾

위의 내용은 『조흥시가』가 선조 34년(1601) 노계의 나이 41세 때에 지어졌고, 제작 동기를 한음의 조흥감과 관련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부터 노계 연구의 대가인 이상보와 황충기의 견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조흥시가』에 대한 논란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조흥시가』 연구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상보는 『조흥시가』의 제작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對하여 『古事本』에는 “旅軒先生賜早紅柿 蘆溪名製”라고 하여 漢陰이 아닌 張旅軒으로 背景人物이 달리 記錄되어 있으나 “朴仁老 萬戶 漢陰見盤中早紅 使之作歌 蓋事親至孝”란 『靑丘永言』의 記錄과 『海東歌謠』 등에 依하여 前者가 옳은 것으로 確認한다.²⁴⁾

이상보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황충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早紅柿歌』는, 蘆溪가, 漢陰이 대접하여 주는 早紅柿를 보고서, 지은 것이 아니라, 旅軒에게서 받고 지은 것이며, 애초부터 4首로 된 蓮詩調가 아니라, 1首의 短時調였음을 前提로 하고, 이제까지의 主張을 整理

22)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100쪽.

公性至孝 母朱氏臨年在堂 公每瞿然愛日 滌灑之供 不以貧窶或闕 夏則扇枕席 冬則以身溫被 朝夕侍側 極其怡愉 疾病憂遑涕泣 行不正履 及喪 水醬不入口 絕而甦者數四 送終諸節 必誠必慎 孺子之慕

23)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歌, 早紅柿歌(역락, 1999), 158쪽.

辛丑九月初 漢陰相公饋公早紅柿 公因時物有感而作

24) 이상보, 앞의 책, 203쪽.

하면²⁵⁾

두 연구가의 견해를 정리하면, 이상보는 『노계집』, 「청구영언」 그리고 「해동가요」 등을 근거로 한 음에 의한 제작 동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황충기는 古寫本 「孫氏隨見錄」을 근거로 여현에 의한 제작 동기를 주장하고 있다. 「조홍시가」를 고찰하였던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은 이상보와 같은 견해를 따르고 있으며²⁶⁾,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조차 그의 견해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이상보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교재들의 서술들이다.

이 작품은 작자가 한음(漢陰) 이덕형으로부터 조홍감(홍시)를 대접받고 느낀 바 있어 지은 시조로서, ‘조홍시가(早紅柿歌)’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²⁷⁾

박인로가 한음 이덕형으로부터 감을 대접 받고 느낀 바 있어 지었다는 시조.²⁸⁾

그리고 한음과 여현에 대하여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교재의 서술도 있었다.

홍시를 보고 쓴 작품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²⁹⁾

위의 내용에서, 황충기는 「조홍시가」의 제작 동기뿐만 아니라 명칭, 首數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선행연구에 대한 오류를 전적으로 「조홍시가」의 창작 경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고사본 「孫氏隨見錄」에 시조 「입암」과 함께 「조홍시가」제1수만 수록되어 있는데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旅軒先生賜早紅蘆溪命製”³⁰⁾라는 기록은 「조홍시가」의 제작 동기가 한음이 아니라 여현의 명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리고 진본 『청구영언』의 “漢陰見盤中早紅 使朴仁老命作三章”³¹⁾와 박씨본 『노계가집』의 “漢陰見盤中早紅 使

25) 황충기, 「〈조홍시가〉 고구」(『어문연구』 통권 제55호·제56호 합집, 1987. 11), 427쪽.

26) 구자균, 「노계의 가사와 시조의 교주」(『고려대학교 50주년기념논문집』, 1955), 579~580쪽; 박성의, 앞의 책, 241쪽, 381~382쪽.

27) 권일경 외, 『해법문학1: 고전문학』(천재교육, 2009), 225쪽.

28) 이운영 외, 『명강: 수능국어 고전시가』(꿈을 담은 틀, 2012), 144쪽.

29) 황재웅·공명철 외, 『손에 잡히는 교과서 문학: 고전시가편』(미래엔, 2012), 178쪽.

30) 김사엽, 「노계 〈입암곡〉의 계보」(『국어국문학』 제20권, 1959. 2), 49쪽에서 재인용.

31) 김석배, 「朴仁老의 〈早紅柿歌〉 研究」(『문학과 언어』 제27집, 2005. 5), 113쪽에서 재인용.

朴萬戶仁老命作短歌三章³²⁾에 근거하여, 여헌의 명에 의해서 지어진 「조흥시가」 제1수를 본 한음이 노계에게 명함으로써 지어진 단가 3장이 「조흥시가」 제2·3·4수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조흥시가」의 제작 동기가 한음이 아니라 여헌의 명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견해를 주장한 것이다.

다음은 명칭에 대한 정의이다. 황충기는 「조흥시가」란 명칭은 노계가 직접 붙인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의 후손들이 붙인 이름으로 보았다. 『손씨수견록』에 「입암」은 “立巖二十九曲 蘆溪所製旅軒命製³³⁾”로 명칭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조흥시가」는 명칭 없이 “旅軒先生賜早紅蘆溪命製”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또 숙종 16년(1690)에는 한음의 증손인 李允文이 한음과 관련된 「사제곡」을 비롯하여 「누항사」·「조흥시가」 등이 수록된 목판본 『蘆溪歌集』을 발간하였다. 역시 「조흥시가」란 명칭은 없었다. 만약 「조흥시가」란 명칭이 있었다면, 『손씨수견록』과 이윤문이 쓴 『歌集』의 발문에서 「조흥시가」란 명칭을 기록하지 않고 ‘短歌’로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황충기는 이상의 고찰에 근거하여, 「조흥시가」의 명칭은 노계가 직접 명명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단가’ 정도로 기록되었다고 보았다. 「조흥시가」란 명칭은 노계의 후손들에 의해서 아름 붙여진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首數에 대한 혼란이다. 「조흥시가」는 당초 4수의 연시조가 아니라 1수의 단시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씨수견록』에는 당초 1수만 수록되어 있고, 현재의 「노계집」, 진본 『청구영언』, 『해동가요』, 박씨본 『시가』, 가람본 『청구영언』·『樂學拾零』 그리고 육당본 『청구영언』 등에는 4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가람본 『청구영언』, 河合本 『歌曲源流』·『花園樂譜』·『大東風雅』 등은 작가가 노계가 아닌 한음으로 되어 있고 4수 모두를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작가 소개에는 3수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노계집』에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후대에 1수가 추가되어 4수의 연시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처음 3수와 달리 제4수의 내용이 「조흥시가」의 주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충기는 「조흥시가」의 首數를 제작 당시 1수, 『노계집』에 수록되기 이전에는 3수 그리고 4수로 된 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바꿔서 고친 것으로 보았다.³⁴⁾

이상의 고찰에서, 황충기는 「조흥시가」 제1수는 노계가 입암에 머물고 있는 여헌을 찾아갔을 때, 여헌이 노계에게 내주었던 조흥감을 소재로 지은 시조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리학을 배우기 위해서 여헌을 종유했을 때 지은 단가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노계집』에 수록되어 있는 「조흥시가」 4수이다.

32) 김석배, 앞의 논문, 113쪽에서 재인용.

33) 황충기, 『노계 박인로 연구』, 고전문학연구18(국학자료원, 1994), 163쪽에서 재인용.

34) 황충기, 앞의 책, 165~169쪽.

盤中 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柚子 안이라도 품엄죽도 허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시 글노 설위허느이다

王祥의 鯉魚 잡고 孟宗의 竹筍 썩거
검던 멀리 희도록 老萊子の 오솔 입고
一生애 養志誠孝를 曾子갓치 허리이다

萬句을 늘려내야 길게 길게 노흘 쏘아
九萬里長天에 가는 희를 자바 먹야
北堂의 鶴髮雙親을 더디 늘게 허리이다

群鳳 모다신 디 외가마기 드러오니
白玉 사힌 곳에 돌 혼아 갓다마는
두어라 鳳凰도 飛鳥와 類시니 되셔 논돌 엇더허리³⁵⁾

「조흥시가」 제1수의 내용은 ‘孝’를 주제로 하고 있다. 쟁반 위에 놓인 흥시가 매우 곱게 보이니 柚子가 아니라도 몸에 품고 돌아갈 만한데, 품어 가도 반가워해 주실 분이 없으니 서럽다는 내용이다. 고사본 「손씨수견록」에는 종장의 ‘유자’가 ‘굴’로 기록되어 있다.³⁶⁾ 이것은 노계가 중국 삼국시대 陸績의 懷橘故事를 떠올리며 창작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종장의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시” 부분에서는 노계의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지극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은 노계의 칠언절구 중 하나이다.

꿈에 선친을 뵈고 깬 뒤에 울며 쓰다
평생 寸草心으로 길이 사모했는데

35) 朴仁老, 『蘆溪集』 卷三, 歌, 早紅柿歌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36) 김석배, 앞의 논문, 116쪽에서 재인용.

盤中에 노힌 早紅 두려움도 두려울사
비록 橘柚이 아니나 품엄 죽허다마는
품어도 되릴 더 업스이 글로 설위허노라

가만이 백발을 재촉하니 귀밑머리 허전하네.

꿈에서 뵈온 모습 삼경 후에도 생생하니

베갯머리 적시는 눈물을 어찌 견디랴?

夢陪先親覺後泣書

永慕平生寸草心 潛催華髮鬢蕭森

依然殘夢三更後 枕上那堪淚濕襟³⁷⁾

위의 칠언절구는 「조흥시가」의 제1수와 공통점이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를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작품 모두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三綱五倫의 ‘父子有親’과는 차이가 있다. 부자유친의 교훈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의 효이지만, 위의 칠언절구와 「조흥시가」 제1수는 선친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써 화자인 노계 자신의 思親至情을 드러내어 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흥시가」 제2·3수 역시 효를 주제로 하였다. 제2수의 내용은 王祥이 얼음을 깨서 잉어를 잡아다 드리고 孟宗이 겨울 죽순을 꺾어다 드리고 검은 머리가 희어지도록 老來子의 색동옷을 입고 평생 동안 曾子처럼 효도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효자들인 王상·맹종·노래자·증자의 중국 고사를 인용한 노계의 표현 수법이 흥미기는 하지만, 노계 자신이 도학자로서 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교육적이므로, 문학적 요소가 결핍된 것처럼 감상될 수 있다.

제3수는 삼천만 근의 쇠를 늘려다가 다시 길게 줄을 꼬아서 九萬里長天에 떨어지는 해를 묶어 北堂에 살고계시는 백발 부모님의 늙음을 막아 보겠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늙음을 한탄하면서 막아 보겠다는 화자의 간절함을 과장법 표현으로 나타냈다. 효성은 지극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실감 나지 않는 억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年老하신 父母님이 더디 늙으시도록 所願하는 作者의 心情을 表現하되 誇張法이 좀 지나쳐서 實感이 덜 나는 흠이 없지 않다. 그러나 事親至孝를 노래하는데 이만 誇張意識이야 있어야 無妨하지 안겠는가?³⁸⁾

37)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一, 詩 七言絕句, 夢陪先親覺後泣書(역락, 1999), 27쪽.

38) 이상보, 앞의 책, 208쪽.

윗글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큰 은혜에 보답하라는 훈교적 내용의 노래가 지나친 과장으로 인하여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 해도 '효'를 실천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제4수는 제1·2·3수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3수까지 효를 노래함으로써 주제의 통일성이 있지만, 제4수는 어진 사람들에 대한 종유를 즐거워하는 심정을 주제로써 나타내고 있다. '群鳳'을 높은 관직의 양반에 비유하고, 노계 자신은 까마귀로 낮추어 옥과 돌로 대조 하였다. 그렇지만 결국은 날아다니는 같은 새이므로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도량이 너그러운 기상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당대의 현인군자들인 한음 일행을 군봉과 백옥에 비유하고,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한 자신을 외가마귀와 돌에 비유하여 현인군자들을 종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유자로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조흥시가」는 제작 동기 등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 동기에서 이상보·박성익의 황충기의 견해가 한음과 여현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수에서는 세 연구가 모두 「조흥시가」 4수로 인정하고 제1·2·3수와 제4수가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를 내 놓고 있다. 「조흥시가」 고찰을 통하여 효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규범이며 보편적 윤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노계가 효성이 지극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는 「태평사」·「선상탄」의 총과 더불어 노계 작품의 토대를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훈교적 실천의지와 유자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주제의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躬行聖道와 景慕先賢

노계가 벼슬을 그만두고 공자의 “朝聞道夕死可矣”를 좌우명으로 삼고 독서와 묵상에 전념하였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노계는 유학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은 인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유학의 폭넓은 지식을 가지려고 무한히 노력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입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고, 보잘 것 없는 선이라도 듣게 되면 칭찬하였다. 그러나 옳고 그름과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논할 때는 감히 제압할 수 없는 기상을 가지고 있었다. 어진이를 높이고 도를 즐기는 정성은 늙을수록 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찍이 紫玉山에 들어가 회재의 자취를 찾아가 「독락당가」 수백 언을 지었다. 寒岡을 泗上에서 배알하였는데 선생이 여러 번 칭찬을 하였으며, 그때 旅軒, 芑山 두 현인이 초야에 묻혀 도덕과 의리를 강론하고 있었는데, 공이 가서 가르침을 청하니 여현은 동방에 다시없는 인걸로 여겼다.³⁹⁾

노계는 성리학에 대하여 깊은 이론적 해석 보다는 평소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서 스스로 몸소 실천했던 그의 공행성도에 대해서 일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경모 선현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사실과 이름난 유학자·학식 있는 선비였던 여현과 지산을 증유하였던 사실도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노계집』의 「행장」에는 노계가 誠·敬·忠·孝에 힘썼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중용·대학 이외에 공자와 맹자의 여러 서적과 주자의 附註를 공부함에 몰두하여 침식도 잊어버릴 정도였다는 그의 실천과 의지가 잘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회재 유적지를 찾고, 여현 등을 찾아가 배움을 요청하였던 공행성도와 경모선현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성리학이다. 따라서 노계 시대의 성리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알

39)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墓碣銘(역락, 1999), 113~114쪽.

口不言人過失 聞小善 輒稱道 然當是非義理處 凜然有不可奪者 尊賢樂道之誠 老愈不倦 嘗入紫玉山 訪晦老遺蹟 作獨樂堂歌累百言 拜寒岡鄭先生於泗上 先生亟稱 時張旅軒 曹芑山兩賢 林居講道 公往請教 張先生以爲東方未有之人豪也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리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회재와 노계의 스승이 되는 여현을 고찰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嶺南學派와 傳統學脈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시작한 때는 단언할 수 없다. 대체로 중국 北宋에서 성리학이 발생할 무렵인 고려 인종 전후(11~12세기)로 추론하고 있다. 당시 고려에서는 송나라의 서적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들여왔고, 金良鑑·尹彥頤같은 대학자가 사신의 임무를 띠고 송에 가는 한편, 중국 사신들이 고려에 빈번히 왔던 때였다.

朱子學으로서의 성리학의 도입은 고려 충렬왕 때(13세기 후반)로 추정된다. 충렬왕을 護從하여 중국 원나라에 갔었던 安珣이 『朱子全書』를 가져와 연구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중국 송대의 성리학이 이 땅에 전래된 지 300년 가까이 지난 16세기에 들어서였다. 우리나라 유학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退溪 李滉와 栗谷 李珥가 태어났다. 그들은 성리학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데 있어 자연이나 우주의 문제보다 인간 내면의 性情과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더 추구하였다. 그것이 바로 퇴계와 奇大升·율곡과 成渾의 四端七情에 관한 논쟁이다. 그들은 이 논쟁을 통하여 ‘理氣性情論’을 활발하게 전개시켰다.

퇴계의 성리학은 主理論的 理氣二元論이다.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재를 理로 보는 철학으로써 영남학파가 계승하였다. 그는 理와 氣는 두 가지이지 한 가지가 아니며, 氣는 결코 常存하지 않고 生滅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理는 恒存不滅하는 것으로 氣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법칙이며, 능동성을 가진 理가 발동하여 氣를 主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太極 또는 理로 표현되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의 궁극적 근원으로 보았던 것이다. 性理란 곧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며, 인간은 그것을 확충하고 발휘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된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당시에 土禍가 연달아 일어나서 올바른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는 부조리한 사회현실에서 진실로 선악과 正邪를 밝히고 올바른 진리를 천명함으로써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표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퇴계보다 35년 후에 태어난 율곡도 퇴계와 마찬가지로 정통 성리학파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단순하게 성리학뿐만 아니라 불교와 老莊哲學, 諸子の 학설과 陽明學 등의 사상도 함께 연구하였다.

율곡의 성리학은 主氣論的 理氣一元論이다. 우주 만물의 존재 근원을 氣로 보는 철학으로써 기호 학과가 계승하였다. 그는 理와 氣의 근원은 같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氣만이 능동성을 가지고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氣가 움직이는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理는 단순히 기를 주재하는 보편적 원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의 의식이나 감정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심성 내부에 존재하는 氣가 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성 내부의 기질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면 자연히 인간의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성리학은 主氣論 보다는 主理氣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名分論적 사고가 두드러졌다. 변화하는 감각적 세계(氣)의 근저에 있는 초감각적·불변적 원리(理)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理念型적 가치를 강하게 추구하였다. 王統·家統 등 정통성을 중시하면서 이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는 가차없이 지탄받았다. 이러한 주리적 경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의 규범과 가치를 固守하려는 보수성이 강하였다.

노계 시대의 성리학은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사조였다. 따라서 노계 역시 당시의 이러한 기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관생활 이후 향촌으로 돌아와 전념했던 학문이 성리학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그가 경주 紫玉山의 회재 유적지인 '獨樂堂'을 찾아가 「獨樂堂歌」를 지은 것은 학문적 자기 수련의 과정이었으며, 그의 학문과 사상이 그가 경모했던 회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회재 이언적(성종 22년 1491~명종 8년 1553)은 조선 中宗 때의 정치가이자 성리학자이다. 본관은 驪州이며 慶尙道 慶州郡 慶州府 良佐村(현 경주시 江東面 良洞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생원 蕃이고, 모친은 慶州孫氏 鷄川君 昭의 딸이었다. 초기 이름은 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彦자를 더하여 彦迪으로 되었다.

중종 9년(1514)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사헌부장령·밀양부사를 거쳐 중종 25년(1530) 司諫이 되었다. 이때 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경주의 자옥산에 들어가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다음은 손오규의 연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회재는 42세 때(1532년) 벼슬에서 물러나, 경주 紫玉山 아래에 獨樂堂을 지어 은거하였다. 그리고 45세(1535년) 때에 「林居十五詠」을 지어, 隱居之志와 학문적 깨달음, 그리고 道의 실천을 통한 正學의 수호와, 進退辭受之義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을 탐구하여, 『大學章句補遺』, 『續或問』, 『求仁錄』 등의 저술을 남겨, 性理學史에 빛난다.

또 忘齋 孫叔敬과 忘機堂 曹漢輔에게 보낸, 「書忘齋忘機堂無太極說後」라는 글을 통해, 성리학에 대한 정

밀하고도 뛰어난 식견과 학문적 함축을 보였다. 그리하여 嶺南學派의 창시자로 일컫기도 한다.

특히, 27세 때, 외삼촌인 孫叔暉과 曹漢輔의 無極太極논쟁에 뛰어들어,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논쟁은 성리학사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⁴⁰⁾

위의 연구를 근거로 회재와 그의 사상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회재는 우리나라 성리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선구적인 인물이다. 그는 조선 전기 대표적인 士林派의 領袖였다. 朱子에게 있어서 평생의 역작인 『大學章句』를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大學章句補遺』, 『續或問』이란 著述을 남겼다. 그는 주자와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견해를 달리하였다. 經文의 두 가지를 수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동희는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格物致知의 傳聞은 원래 『古本大學』 안에 있다고 보고, 『古本大學』의 소위 제1단 ②小節인 「知止而后有定…則近道矣」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다만 그 小節의 「知止而后有定」節과 「物有本末」節을 서로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제1단 ⑤소절인 「此謂知本, 此謂知之知也」를 結語로 삼았다.

둘째 「子曰聽訟…此謂知本」의 소위 제2단 ⑩小節을 朱子는 傳4章으로 하여 「本末」을 해석한 것으로 보았으나, 晦齋는 이것을 經文의 마지막 結語로 보고, 주자의 「釋本末」章을 없애 전체를 經1章, 傳9章으로 만들었다. ⑩小節을 經文에 넣은 것은 程伊川의 改本에 근거하였다고 한다.⁴¹⁾

그리고 주자는 ‘격물’을 모든 사물의 理를 궁구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회재는 ‘格物致知’의 傳聞을 ‘格物本末’의 소절로 봄으로써 ‘格物本末, 事有終始’를 아는 것이 ‘격물치지’라고 하였다. 그 외 ‘慮’와 ‘思’의 해석 문제 등에서 회재는 주자와 견해를 달리 하였다.

셋째, 회재가 선배학자 망기당과의 왕복 논변을 벌였던 ‘무극태극논변’이다. 발단은 그의 외숙이었던 망제 그리고 망기당과의 왕복 무극태극논변을 보고 「서망재망기당무태극설후」라는 논문을 통한 비판이었다. 망제가 「서망재망기당무태극설후」에 대한 반박서한을 회재에게 보내고, 이에 대하여 그는 「答忘機堂 第一書」란 비판답서를 다시 보냈다. 이렇게 회재와 망기당의 ‘무극태극논변’을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는 주자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토대 위에 조선 최초의 성리학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理의 철학’을 드러내게 되었고, 자신의 사상사적 위치를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넷째, 회재는 영남학파의 창시자이다. 그는 寒暄堂 金宏弼(1454-1504), 一蠹 鄭汝昌(1450-1504),

40)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126쪽, 365~366쪽.

41) 이동희, 「晦齋 李彥迪의 생애와 사상」(『한국학논집』 제19집, 1992. 12), 149쪽.

靜庵 趙光祖(1482~1519), 退溪 李滉(1501~1570)와 함께 영남지방에서 東方五賢으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회재의 학문적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그의 외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손오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언적은 외조부인 孫昭와 외삼촌 孫仲暉의 계열에서 나왔으며, 東方五賢 중의 한 분이다. 경주에 玉山書院이 있다. 晦齋 이언적은 조선조 性理學史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성리학의 학문적 정립과 체계 수입에 선구적 업적을 이루었다.⁴²⁾

회재는 경주 양동의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모친과 함께 이곳에서 성장했다. 경주는 新羅의 古都로 훌륭한 학자를 많이 배출한 곳이며, 이러한 환경은 거기에서 자란 회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외가는 외교관, 학자 등을 배출한 명문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회재의 외증조부는 孫士晟(1396~1477)이다. 그는 조선시대 吏文을 전담했던 제1세대 외교관리 출신이었다. 그의 외손자는 閔世貞(1471-미상)과 閔世卿(생몰년 미상)이다. 민세정은 己卯名賢의 한 사람이었고, 민세경은 鶴峰 金誠一(1538-1593)의 외조부였다. 회재의 외조부는 敵愾功臣 鷄川君 손소였으며, 그에게는 외숙이 여럿 있었다. 둘째 외숙 景節公 月城君 손중돈은 회재를 출사시킨 스승이었다. 셋째 외숙 忘齋 손중돈은 조선 성리학사에 빛나는 무극태극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훗날 회재의 학문적 입장을 밝히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넷째 외숙 柳谷 孫季暉(1470-미상)은 조광조의 처형에 항의했던 기묘명인이었다. 그는 정치적 개혁의식을 가진 사람의 젊은 사람으로서 개혁세력의 중심이었다. 그는 성리학 연구에 상당한 깊이가 있었던 학자였으며, 「太極西銘合一之圖」란 저서를 남겼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회재의 학문은 독창적이고 그의 업적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 그가 성장했던 외가의 학문적 배경이 회재의 학풍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의 고찰을 근거로, 조선의 성리학은 회재에 이르러서 학문적으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가 성장했던 외가가 있는 경주는 조선전기 성리학의 중요한 한 기점이자 영남학과 태동의 기원이 된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회재의 학문적 업적과 독창성이 퇴계로 이어지는 성리학적 전통에 영향을 끼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42) 손오규, 앞의 책, 365쪽.

2. 「獨樂堂歌」와 晦齋 景慕

앞서 「독락당가」는 노계가 회재의 유적지인 독락당을 찾아가 그 감흥을 노래한 것임을 확인했다. 『노계집』에는 「독락당가」의 창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慶州 玉山에 있으니 晦齋 李先生이 거처하던 堂이다. 公이 遺蹟을 찾아가 이 노래를 지었다.⁴³⁾

그런데 창작 동기만 서술되어 있고 노계가 경주 자옥산에 간 시기와 그 감흥을 언제 노래로 만들었는지의 연대를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일찍이 紫玉山 속에 들어가 晦齋가 남긴 자취를 심방하였다.⁴⁴⁾

일찍이 紫玉山 속에 들어가 晦齋의 자취를 심방하여 獨樂堂歌 수 백 언을 지었다.⁴⁵⁾

위의 내용도 앞서 언급한 것과 차이가 없다. 회재 유적을 찾아간 시기와 「독락당가」의 창작 시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상보는 「독락당가」의 창작 시기를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다.

이 作品의 所成年代는 相考할 길이 없으나 光海 11年頃(1619)에 지어진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그 證據로는 文集의 收錄 順序가 大體로 年次的인 點과 또 短歌(時調)中の 「蔚山椒井歌」 二首의 一首가 「獨樂堂」과 같은 內容이며 同時期의 制作인 點 等を 말할 수 있다.⁴⁶⁾

43)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歌, 獨樂堂(역락, 1999), 164쪽.

在慶州玉山 卽晦齋李先生所居堂也 公往尋遺蹟 因作此歌

44)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102쪽.

嘗入紫玉山中 訪晦老遺蹟

45)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墓碣銘(역락, 1999), 113쪽.

嘗入紫玉山 訪晦老遺蹟 作獨樂堂歌累百言

46) 이상보, 앞의 책, 150쪽.

그러나 황충기는 노계의 칠언율시 「吳山書院奉呈張旅軒」과 같은 시기로 보아 「독락당가」의 제작연대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蘆溪가 七言律詩 「吳山書院奉呈張旅軒」과 같은 것으로 旅軒이 吉再를 配享하고 있는 吳山書院에 방문한 것은 光海君 5년(1613)과 仁祖 14년(1622)으로 蘆溪가 吳山書院으로 旅軒을 찾아 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光海君 5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獨樂堂」은 光海君 5년 이후 製作되었으리라 믿는다.⁴⁷⁾

위의 두 연구는 「독락당가」의 제작연대 추측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계의 작품 대부분은 정확한 제작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독락당가」는 정확한 제작연대를 추측할 수 없지만, 노계가 유학자로서 자기 수련에 전념하고 이름난 유학자·학식 있는 선비들과 종유할 때의 시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도남은 「독락당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獨樂堂은 慶州 玉山에 있는 晦齋先生의 書堂의 이름이다. 그가 여기를 往尋하여 晦齋의 遺蹟을 보고 先賢을 思慕하는 懇切한 정을 참지 못하고 그곳 그곳을 步踏하면서 先生의 그 옛날의 모습을 그리며 읊어낸 것인데, 이것은 그가 槍戈를 던지고 道學에 돌아와서 그 道가 크게 進步하여 더욱 道心에 浸潤하였을 때의 作이다.⁴⁸⁾

윗글은 독락당의 정의, 회재를 향한 경모 그리고 도학에 대한 전념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다. 노계가 경주 자옥산으로 간 이유와 회재를 통한 학문적 진보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회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독락당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自然詩境에 대한 노래 그리고 노계의 회재 경모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경주 자옥산에 있는 회재의 서당 이름이 '독락당'이다. '독락'은 중국 송나라 때 이미 사용했던 말이다. 그 뜻을 빌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독락'에 대한 개념과 유래에 대해서 우선 살펴본 후 「독락당가」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손오규는 '독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獨樂이란 말이 있다. 獨樂은 홀로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즐길의 대상은 무엇인가 산수문학에 등장하는 獨樂의 대상은 자연이다. 그러면 과연 자연의 무엇을 즐기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간단하지 않다. 그런데 독락의 대상이 자연일 뿐만 아니라 獨樂의 장소도 자연이다. 이 獨樂의 장소로서의 자연

47) 황충기, 앞의 책, 69쪽.

48) 조윤제, 앞의 책, 227쪽.

은 곧 현실적인 삶의 실행 장소인 세속세계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⁹⁾

윗글은 산수미학 입장에서의 독락에 대한 서술이다. 그는 독락을 孤獨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독락은 현실은 벗어난 공간이므로 자연의 공간이 되고, 자연의 공간은 자유로운 삶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독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독락원은 사마광이 독서를 통해, 성인의 가르침을 구하고, 여러 현인들의 말을 새기며, 이치를 깨닫고 즐거움을 느끼는, 학문이 겸비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곧 사마광의 독락원은, 산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동시에, 학문의 중심공간이 되는, 園林으로서의 문화경관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⁰⁾

위의 내용은 '사마광의 독락원'에 대한 서술이다. 司馬光은 중국 북송의 정치가로서, 자는 君實이고 호는 迂夫이다. 시호가 文正으로 사후 溫國公에 봉해져 司馬溫公으로 불리었다. 그는 중국 山西省 夏縣 涑水鄉 출신으로 涑水先生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는 만년에 洛陽에 묻혀 살며 원림을 조성하여 산수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에 대하여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홀로 즐긴다고 하여 이를 '독락'이라 일컫고 「獨樂園記」를 창작했다. 손오규는 「獨樂園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獨樂園記」의 첫머리는, '나는 평소 독서하여 위로는 성인을 스승으로 삼고, 아래로는 많은 현인을 벗으로 한다. 인의의 근원을 엿보며, 禮樂의 실마리로 탐구한다'로 시작한다. 이는 사마광의 독락원 생활이 단순한 은거가 아님을 알 수 있다.⁵¹⁾

앞서 사마광의 독락원은 학문의 공간이고 그가 독서할 수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서 그의 독서는 지식의 축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의의 근원을 밝히고 예악의 전형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상형의 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학문의 정통성과 규범성에서 중국의 사마광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를 매우 중요시 하였을 것이다. 사마광의 독락원 생활은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실천하는 모범이요 세상의

49) 손오규, 『산수미학탐구』(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48~149쪽.

50)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282쪽.

51) 손오규, 앞의 책, 281~282쪽.

귀감이 된다. 그리고 그의 독서 방법과 목적이 사람들에게 역시 모범을 제시하여주고 있다. 따라서 회재의 독락은 전자가 아닌 후자의 고찰 입장에서 고려되어야겠다. 성리학이란 학문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회재는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거 유라는 사실이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다음은 노계가 자옥산으로 간 이유이다. 그가 성리학 공부에 전념하면서 회재 유적지를 찾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보는 「독락당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戎馬間에 奔走하다가 白首에 獨樂堂을 찾아가서 閑中靜裏에 潛思自得하시던 晦齋先生의 모습을 回憶하고, 獨樂堂을 中心으로 한 養眞菴, 觀魚臺, 詠歸臺, 瀑布水, 澄心臺, 濯纓臺, 獅子岩, 求仁堂, 體仁廟, 洗心臺 등의 遺趾를 駢駢이 들어 그 奇異絶妙한 風景을 저 中國의 歷代 史跡과 비겨 가며 노래하여 先生의 日月 같은 道脉工程과 遺訓을 千秋萬歲에 山斗와 같이 推仰할 것을 읊었다.⁵²⁾

윗글은 노계는 회재를 경모했고, 그래서 자옥산의 회재 유적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노계집』의 「행장」에는 賢人을 공경하고 성리학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다. 전란 후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심적 갈등을 겪었고 유교적 이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리학에 대한 전념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계는 회재 유적에 대한 심방뿐만 아니라 한음, 한강, 정구, 여헌, 지산 등을 종유함으로써 성리학에 정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독락당가」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11개 단락으로 나누어 작품 속에 나타난 회재 경모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회재가 독락당에 머물렀듯이 그도 은거낙도의 삶을 추구했고 이를 통하여 자연을 안식처로 삼는 초탈한 삶으로 변화를 위한 근거도 함께 찾고자 한다. 먼저 11단락의 구분과 내용이다.

제1단락은 “紫玉山 名勝地에 獨樂堂이 蕭灑흥을~流水는 盤回호야 後伊川이 되었느다” 부분이다. 일편단심으로 전란 속에 여가 없이 지내다가, 맑고 깨끗한 독락당에 찾아와 보니 과연 명승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제2단락은 “이러한 名區에 임지어이 업도션고~物各有主 | 어든 ㅄ토리 이실소냐” 부분이다. 이러한 유명한 곳을 예로부터 많은 현인군자 중에서도 오직 회재에게 남겨 주었음을 말하고 있다.

제3단락은 “靑蘿를 헤쳐드러 獨樂堂을 여러니니~其間眞樂이야 이獨樂애 더로손가” 부분이다. 독락당은 그윽하고 한가로운 경치와 고요한 곳에서 사색에 잠기고 스스로 터득하던 회재의 모습을 읊

52) 이상보, 앞의 책, 150쪽.

었다.

제4단락은 “尋眞을 못내 ㅎ야 養眞菴의 도라드러~神淸氣爽 ㅎ야 芝蘭室에 든덜 ㅎ다” 부분이다. 養眞菴과 觀魚臺의 변함없는 경치를 노래하였다.

제5단락은 “多少古跡을 보며 문득 생각 ㅎ니~苔深磯上에 暮煙만 줌겨셔라” 부분이다. 병풍 같은 층암절벽, 하늘과 구름이 비치는 깊고 맑은 연못, 저녁 무렵의 연기에 잠긴 낚시터를 읊었다.

제6단락은 “春服을 시로입고 詠歸臺에 올라오니~이리조흔 淸潭에 濯纓홀줄 기뻐알리” 부분이다. 영귀대의 아름다운 경치와 햇살에 비치는 붉은 안개가 드러나는 폭포, 澄心臺, 濯纓臺의 경치를 노래하였다.

제7단락은 “獅子巖 노피올라 道德山을 바라보니~擧目西岑의 夕陽이 거의로다” 부분이다. 사자암에서 도덕산을 바라보는 경치가 신비한 곳과 기암을 비껴 본 시내와 멀고 가까운 경치들을 읊었다.

제8단락은 “獨樂堂 고쳐올나 左右를 살펴보니~濂洛群賢이 이짜희 피왔는덜” 부분이다. 독락당에 다시 올라 옛날 회재의 풍채와 덕행을 다시금 생각하고, 음악과 책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서원을 말하였다.

제9단락은 “求仁堂 도라올라 體仁廟도 嚴肅홀샤~天工造化 | 기더욱 奇異코야” 부분이다. 구인당 돌아올라 엄숙한 체인묘를 보고 옛사람을 우러러 공자사당에 함께 모신 일과 동방 문화의 훌륭함을 노래하고, 洗心臺 내린 물의 기이한 풍경을 읊었다.

제10단락은 “無邊眞景을 다춧기 어려올시~어드운 밤길히 明燭잡고 연덜 ㅎ다” 부분이다. 회재 선생의 문집을 살펴보니, 도학의 連脈과 학문의 과정이 해와 달 같이 밝아 어두운 밤길에 밝은 촛불을 잡고 가는 것 같음을 말하였다.

제11단락은 “진실로 이遺訓을 腔子裏에 가득담아~獨樂堂 淸風은 가업실가 ㅎ노라” 부분이다. 지극한 회재의 가르침과 무궁무진한 독락당의 맑은 바람을 찬양하고, 회재를 영원히 존경받는 존재로 추앙하고자 함을 노래하였다.

이제 위의 단락 구분을 근거로, 「독락당가」에 노계의 회재 경모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단락 ‘노계의 회재 유적지 방문’을 서술한 부분이다.

紫玉山 名勝地에 獨樂堂이 蕭灑함을 들런 디 오래로더
이 몸이 武夫로서 海邊事 | 孔棘거늘
一片丹心에 奮義를 못내 ㅎ야
金鎗鐵馬로 餘暇업시 奔走터가

中心景仰이 白首에 더욱 깊혀
竹杖芒鞋로 오날사 츠자오니
峯巒은 秀麗하야 武夷山이 되어 있고
流水는 盤回하야 後伊川이 되었느다

“紫玉山 名勝地에 獨樂堂이 蕭灑함을 들린 디 오래로터”부터 “竹杖芒鞋로 오날사 츠자오니”까지의 구절은 회재의 독락당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임진왜란 7년 동안 수군에 종사하여 찾아올 수 없어서 노년에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것은 「독락당가」의 창작시기에 대한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이상보와 황충기 두 연구가의 주장이 광해군 11년(1619)과 광해군 5년(1613)으로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위의 내용에 근거하면 노계의 은퇴기에 창작된 작품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中心景仰이 白首에 더욱 깊혀” 구절의 ‘中心景仰’은 노계가 지니고 있는 회재에 대한 경모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그가 독락당을 찾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회재를 우러러 쳐다보고 충심으로 그리워하였기 때문에, 백발의 나이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몸이 武夫로서 海邊事ㅣ 孔棘거늘” 구절에서 노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武夫’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지냈던 무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으로 그리고 전쟁에 참가했었던 군인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峯巒은 秀麗하야 武夷山이 되어 있고 流水는 盤回하야 後伊川이 되었느다” 구절의 ‘武夷山’과 ‘伊川’은 독락당의 뛰어난 경치와 흐르는 물을 비유한 것이다. 중국의 주자와 周程頤가 살았던 곳의 산과 물을 비유한 것은 회재와 노계가 도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수사법이다. 앞서 노계의 중국고사 및 성어 인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는 지나친 인용과 수사법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작품을 관념적으로 치우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지나친 중국 모방과 중국에 대한 事大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그의 가사 작품들이 송강이나 고산보다 저평가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제2단락 ‘物各有主’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흐 名區에 임지어이 업도편고
一千年 新羅와 五百載 高麗에
賢人 君子들이 만히도 지남마는

天慳地秘^하야 我先生^지 기치도다
物各有主^ㅣ 어든 다토리 이실소냐

이 단락은 노계의 회재 경모를 ‘物各有主’로 드러내고 있다.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1,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많은 현인군자 중에 회재에게 자옥산 명승지를 남겨 주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곳의 주인이 회재이고, 회재와 이곳이 부합됨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노계의 상투적인 한시문 인용법이 이 단락에서도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단락은 ‘독락당을 노래하다’ 부분이다.

靑蘿를 헤쳐드러 獨樂堂을 여러니니
幽閑景致는 견홀디 뇌야업니
千竿脩竹은 碧溪조차 돌너잇고
萬卷書冊은 四壁의 사혀시니
顏曾이 在左^하고 游夏는 在右^하듯
尙友千古^하며 吟詠을 일을 삼아
間中靜裏에 潛思自得^하야 혼자즐겨 ^하시덧다
獨樂이 일흠 稱情^하즐 기 뉘알리
司馬溫公 獨樂園이 아무려 조타흔들
其間眞樂이야 이獨樂에 더로손가

노계는 이 단락에서 회재를 공자와 견주어 노래하고 있다. “靑蘿를 헤쳐드러 獨樂堂을 여러니니 幽閑景致는 견홀디 뇌야업니 千竿脩竹은 碧溪조차 돌너잇고 萬卷書冊은 四壁의 사혀시니”의 구절은 회재가 독락당에서 만권서첩에 몰두하여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써 즐거워 할 것으로 추측하여, 顏曾과 游夏를 좌우에 거느린 공자와 같은 풍채를 회재에게서 느끼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司馬溫公 獨樂園이 아무려 조타흔들 其間眞樂이야 이獨樂에 더로손가” 부분은 독락당의 명칭이 중국 송나라의 사마광의 ‘독락원’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앞선 고찰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둘을 비교하면서 회재의 독락원이 더 흥취가 있음을 노래함으로써, 회재에 대한 경모를 공자에 견주어 드러내고 있다.

제4단락은 ‘양진암과 관어대’를 노래한 부분이다.

尋眞을 못니호야 養眞菴의 도라드러
 臨風靜看호니 니쫘도 愜然호다
 退溪先生 手筆이 眞得인줄 알리로다
 觀魚臺 너러오니 짚온덧흔 盤石의 杖屨痕이 보이논닷
 手裁長松은 넷빋출 썩여시니
 依然物色이 그더옥 반가올샤
 神淸氣爽호야 芝蘭室에 든덧호다

양진암의 퇴계 친필과 관어대 반석 위에 남아 있는 회재의 지팡이, 신발자국 그리고 회재가 심은 큰 소나무들을 목격함으로써, 노계는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그 속에 끼워 넣어 혼연일체가 된 듯한 느낌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삼자의 혼연일체는 학문적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재는 우리나라 성리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선구적인 인물이며, 영남학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영남학파는 퇴계에 의해 제기된 주리론의 성리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학파로서 퇴계학파라고까지 불린다. 회재가 퇴계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노계가 회재로부터 학문적·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단락에 서술되어 있는 퇴계, 회재 그리고 노계의 혼연일체는 학문적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노계의 회재 경모가 이 단락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5단락 ‘맑은 연못 낚시터’를 노래한 부분이다.

多少古跡을 보며 문득 생각호니
 層巖絶壁은 雲母屏이 절로되야
 龍眠妙手로 그린덧시 버러잇고
 百尺 澄潭에 天光 雲影이 얼희여 줌겨시니
 光風露月이 부논듯 拭시논듯
 鳶飛魚躍을 말업슨 벗을삼아
 沈潛翫索호야 聖賢事業 호시덧다
 淸溪를 빗기건너 釣磯도 宛然홀샤
 문노라 白鷗들아 네닐을 아노산다
 嚴子陵이 어너히에 漢室로 가단말고

苔深磯上에 暮煙만 쯤겨셔라

“多少古跡을 보며 문득 생각하니” 부분은 회재의 자취를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회재에 대한 경모를 나타내고 있다. 노계는 독락당 주변의 병풍 같은 층암절벽, 하늘과 구름이 비친 맑고 깊은 못 그리고 저녁연기에 가려지는 깨끗한 시냇가의 뉘시터를 그려내고 있다. 이런 광경을 묘사하면서 그는 중국과의 연관 짓기를 빼놓지 않았다. “嚴子陵이 어니히에 漢室로 가단말고” 구절에서 후한 광무제 때 사람 엄자릉의 뉘시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는 한나라 왕실로 가지 않고 富春山 七里瀨의 뉘시터에서 지냈듯이, 회재도 벼슬길을 떠나 이곳에서 뉘시했던 것을 같은 의지와 취향으로 노계는 느끼고 있다.

그리고 “淸溪를 빗기건너 釣磯도 宛然홀샤 문노라 白鷗들이 네닐을 아노산다”, “苔深磯上에 暮煙만 쯤겨셔라”의 구절은 회재가 있었던 때와 세태가 많이 달라진 지금을 감상적으로 노래하는 표현들이 보이고 있다. 옛일을 모르는 갈매기와 이끼가 잔뜩 낀 물가의 모래가 이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제7단락 ‘산을 즐기어 돌아가는 것도 망각하고 있는 심정’을 노래한 부분이다.

獅子巖 노피올라 道德山을 바라보니
玉蘊含輝는 어제론덧 ㅎ다마는
鳳去山空하니 杜鵑만 나죄운다
桃花洞 ㄴ린물리 不畚晝夜하야 落花조차 흘러오니
天台인가 武陵인가 이짜히 어딘게오
仙蹤이 아득하니 아모던줄 모르로다
仁者도 아닌몸이 ㄹ스슴理를 알리마는
樂山忘歸하야 奇巖을 다시비겨
川原 遠近에 景致를 살펴보니
萬紫千紅은 비단빛치 되어잇고
衆卉群芳은 谷風에 놀러오고
山寺鍾聲은 구름뱃기 들리는다
이러흔 形勝을 范希文의 文筆인들 다서너지 쉬울넉가
滿眼風景이 客興을 도오논듯
任意 逍遙하며 짐즉더디 도라오니
舉目西岑의 夕陽이 거의로다

회재가 후대에 남긴 은덕을 노계는 자연 경물에서 느끼고 있다. “獅子巖 노피올라 道德山을 바라보니 玉蘊含輝는 어제론덧 ㅎ다마는” 구절에서 노계는 도덕산을 바라보며 회재의 덕망이 빛을 바라고 있다고 추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회재의 덕은 겉으로 표시를 내지 않아도 타인들이 알아준다는 의미이다.

“鳳去山空 ㅎ니 杜鵑만 나죄운다” 구절은 회재가 떠나고 없는 쓸쓸함을 묘사하고 있다.

“天台 ㅎ가 武陵인가 이짜히 어딘게오 仙蹤이 아득 ㅎ니 아모던줄 모르로다” 구절은 회재의 자취를 중국 천태산 또는 무릉도원에 비유하여 신선의 자취라고 하고 있다. 노계는 회재를 신선으로 받들고 자 함을 알 수 있다.

“樂山忘歸 ㅎ야 奇巖을 다시비겨”부터 “任意 逍遙 ㅎ며 짐즉더디 도라오니”까지의 구절에서는 산을 즐기면서 돌아가는 것을 망각한 노계가 사자암 일대의 자연 경물과 회재 그리고 노계 자신을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경치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8단락 ‘회재 추양’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獨樂堂 고쳐올나 左右를 살펴보니
 先生風彩을 親히만나 晝息는듯
 羹墻의 儼然 ㅎ야 俯仰 歎息 ㅎ며
 當時 ㅎ시던닐 다시곰 思想 ㅎ니
 明窓靜几에 世慮을 이즈시고
 聖賢書의 着意 ㅎ야 功效를 일위니여
 繼往開來 ㅎ야 吾道를 발키시니
 吾東方 樂只君子는 다민인가 너기로라
 ㅎ들며 孝梯를 本을삼고 忠誠을 壼히니여
 聖朝의 나아들러 稷契의 몸이되야
 唐虞盛時를 일월가 바라더가
 時運이 不幸 ㅎ야 忠賢을 遠斥 ㅎ니
 듯느니 보느니 深山窮谷엔들 誰야니 悲感 ㅎ리
 七年 長沙의 不見天日 ㅎ고
 閉門深省 ㅎ샤 道德만 닷그시니
 邪不勝正이라 公論이 절로이러

尊崇道德을 사람마다 흠줄아라
 江界는 謫所로디 遺化를 못니 이저
 窮巷絕域의 祠宇쫘차 서워시니
 士林趨仰이야 더욱닐러 무엇히리
 紫玉 泉石우희 書院을 디어두고
 濟濟靑襟이 絃誦聲을 이어시니
 濂洛群賢이 이짜희 피왔는닷

“羹墻의 儼然히야 俯仰 歎息히며” 구절은 노계가 순황제가 요임금을 3년 동안 늘 잊지 아니한 것처럼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탄식하며 회재를 추모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吾東方 樂只君子는 다몬인가 너기로라” 구절은 노계가 회재를 동방 군자로 여겨 그의 덕행을 찬양하고 있다. “聖朝의 나아들러 稷契의 몸이되야 唐虞盛時를 일월가 바라더가”부터 “窮巷絕域의 祠宇 쫘차 서워시니”까지의 구절은 순 임금의 신하 직설과 같은 충성으로 태평세월을 이루려던 회재가 을 미사화로 인하여 江界로 귀양가는 것을 슬퍼하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감동시켜 사림들의 추앙까지 받아 景賢書院까지 세우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회재의 靈位는 선조 40년(1607)에 이곳에 모셔졌다. 이것은 「독락당가」의 창작 연대가 노계의 은퇴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紫玉 泉石우희 書院을 디어두고 濟濟靑襟이 絃誦聲을 이어시니 濂洛群賢이 이짜희 피왔는닷” 구절은 회재를 기념하기 위해 玉山書院을 지어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광경을 노계는 중국 송나라 시대의 濂溪와 洛陽에 살던 선비들과 비교하여 회재의 학문을 추앙하고 있다.

제10단락 ‘즐거움에 돌아가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無邊眞景을 다춧기 어려울시
 樂而忘返히야 旬月을 淹留히며
 固陋흔 이몸애 誠敬을 넘이히야
 先生 文集을 仔細히 살펴보니
 千言萬語 다 聖賢의 말삼이라
 道脈工程이 日月갓치 불가시니
 어드운 밤길히 明燭잡고 연덧히다

“樂而忘返^ㄴ야 旬月을 淹留^ㄴ며” 구절은 노계가 독락당에 와서 머물렀던 기간을 알려주고 있다. 이 구절의 ‘旬月’은 열흘 또는 달포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니, 그가 여기에서 얼마동안 머무르고 있는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말이 된다.

“先生 文集을 仔細히 살펴보니 千言萬語 다 聖賢의 말삼이라” 구절은 노계가 회재 문집 8권을 자세히 읽고 그의 학덕에 감복하는 묘사가 잘 되어 있다. 노계의 회재에 대한 경모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道脈工程이 日月갓치 불가시니 어드운 밤길히 明燭잡고 연뎃^ㄴ다” 구절에서는 노계가 도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회재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상의 고찰에서, 「독락당가」에서 노계는 성현들의 태평스런 세상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서경가사임을 추론할 수 있다. 자연경물의 뛰어난 풍경과 회재에 대한 경모를 독락당에 대한 감흥과 중국사적과 비하여 잘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계는 회재에 대한 경모를 통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도리를 행함에 있어 철저한 유학적 세계를 깊이 연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자옥산의 은거는 당쟁이 심화되는 당시의 현실 속에서 독락을 통하여 단순한 선현추모가 아닌 도학적 이상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3. 「立巖二十九詠」과 旅軒 從游

「입암가」는 노계가 여헌을 증유하면서 여헌의 은거지였던 입암을 시로 읊은 것이다. 여헌은 노계의 학문적 스승이었다. 『노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있다.

당시 曹芝山 張旅軒 두 현인이 초야에 묻혀 도의를 강론하고 있었는데 공은 자주 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장 선생이 공과 더불어 수일동안 지내면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무하옹은 늙고 또 병들었으나 발분하여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뜻을 대인의 도에 두었으니 동방을 떨칠 일찍이 없었던 호걸이다.”고 하면서 글을 지어 격려하였다.⁵³⁾

53)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102쪽.

時芝旅兩賢林居講道 公頻往請教 張先生與語數日 歎曰 無何翁老且病 而能發憤忘食 有志大人之道 宜其爲振東方未有之人豪也 至爲文以獎之

그 때 張旅軒 曹芝山 두 현인이 초야에 묻혀 도의를 강론하고 있었는데 공이 가서 가르침을 청하니 장 선생은 동방에 다시없는 인걸로 여겼다.⁵⁴⁾

윗글들은 노계의 여현 증유에 대한 기록이다. 은퇴 이후 그가 유학에 전념하여 명망을 가진 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학에 정진하였을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그는 여현을 존경하여 성리학을 질문하며 증유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현은 명종 9년(1554) 경상북도 仁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인동으로 자는 德晦이고, 호는 여현이다. 아버지는 증이조판서 烈이었고, 어머니는 京山李氏로 齊陵參奉 彭錫의 딸이었다. 명종 22년(1567)에 진사 張峯에게 학문에 입문하여 선조 4년(1571) 「宇宙要括帖」을 지어 대학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광해군 즉위년(1608)에 「周易圖說」을 지었고, 광해군 13년(1621) 「經緯說」을 지어 「理體氣用」, 즉 「理經氣緯說」을 제창하였다.

여현의 학문적 경향은 한강에게 수학한 적이 있어 대체로 퇴계학과로 분류되는 경향이다. 그렇지만 이기론·심성론 등에서는 퇴계의 학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理와 氣를 이원적으로 보지 않고 합일적인 것 또는 한 사물의 양면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심성론에서는 道心을 「未發之性」으로, 인심을 「已發之情」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四端이 七情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 가운데서 본성을 따라 발현해 거저되지 않은 것이 사단일 뿐이라고 하여 사단의 순수 고유한 발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일생을 학문과 교육에 종사했고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다. 벼슬을 멀리하고 도덕정치의 구현을 강조했고, 인조반정 직후에는 공신들의 횡포를 비판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병자호란이 패배로 끝나고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和解가 성립되었음을 듣고 입암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반년 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입암이십구영」의 명칭은 『노계집』에는 「立巖歌二十二章」으로 되어 있다. 이상보는 「개고 박노계 연구」에서 「立巖二十九曲」으로 명칭하여 연구하였고, 황충기도 「노계 박인로 연구」에서 사본 「손씨수견록」의 명칭을 따라서 「입암이십구곡」으로 칭하였다. 그리고 박성익은 「송강·노계·고산의 시가 문학」에서 「立巖歌二十九首」라는 명칭으로 연구하였다.⁵⁵⁾ 『여현집』의 五言絶句에는 「立巖十三詠」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현집』에서 「詠」이 사용되었고, 「詠」이 「시가」라는 의미가 되기

54)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墓碣銘(역락, 1999), 114쪽.

時張旅軒 曹芝山兩賢 林居講道 公往請教 張先生以爲東方未有之人豪也

55) 박성익, 앞의 책, 379쪽.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입암이십구영』으로 명명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은 『노계집』에 기록되어 있는 『입암이십구영』의 제작 동기이다.

때에 旅軒 張先生이 本郡 북쪽 立巖에 寓居하였는데 公이 일찍이 從遊하며 旅軒을 대신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⁵⁶⁾

윗글은 여헌의 은거지로 찾아가서 종유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헌은 노계의 학문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노계의 작품들이 여헌의 『입암기』, 『입암정사』 등 여헌의 여타의 글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논외로 한다.

『입암이십구영』은 제작연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 없다. 황충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旅軒의 年譜에 따르면 그는 前後 7회에 걸쳐서 立巖에 出入하였으나 ‘立巖二十九曲’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旅軒의 55세 이후가 되는 4次라고 하겠다. ‘立巖二十九曲’의 製作 年代에 대해 金思燁은 “立巖精舍記”가 이루어진 宣祖 40년(1607) 부터 旅軒의 卒年인 仁祖 15년(1637)까지로 보았고, 李相寶는 仁祖 7년(1629)이라 주장하였다.⁵⁷⁾

위의 글에서 김사엽과 이상보가 『입암이십구영』의 제작연대에 대한 추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충기는 『여헌집』의 五言長篇에 있는 『精舍』의 내용 가운데 “盍觀醜頭皤 年齡及耳順 進步坐蹉跎”의 구절을 미루어 짐작해, 60세 이후에 지은 것으로 추론하였다. 『입암이십구영』의 제작 연대를 광해군 5년(1613) 이후 여헌의 사망 시점인 인조 15년(1637)까지로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암이십구영』의 제작연대를 『노계집』의 『행장』·『묘갈명』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노계가 울산에서 한강을 만난 시점과 지산과 여헌을 찾아가 성리학을 배운 시점을 동일하게 보고, 『辛酉秋與鄭寒岡浴于蔚山椒井』의 제작 연대가 광해군 11년(1619)이므로 이때부터 여헌의 사망까지로 추정한다.

노계의 『입암이십구영』은 『여헌집』에 실려 있는 『입암정사기』와 『입암십삼영』·『여헌속집』의 오언 절구를 근간으로 하여 지어진 것이다. 황충기는 여헌의 『입암기』를 비롯하여, 입암과 관련된 노계의

56)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歌, 立巖(역락, 1999), 186쪽.

時旅軒張先生寓居本郡北立巖 公嘗從遊 代旅軒作此歌

57) 황충기, 앞의 책, 71쪽.

글과 작품 가운데 확실하게 여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짐작되는 작품들을 서로 유추 대조하여 연구하였다.⁵⁸⁾ 古寫本의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작품 29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김사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새로 發見된 寫本은 前記한 梅峴里에 있는 孫氏家에서 나왔는데, 筆寫者는 英正祖人 孫履九요, 筆寫年代는 正祖 6年(1782)이니, 正祖 24年(1800)에 印刊된 것 보다 18年 앞선 것이 된다. 寫本에는 “蘆溪所製 旅軒 先生命製”라 하고서 29首의 短歌가 所錄되어 있는데, 立岩을 主題한 것이 十首인 바 板本에는 立岩主題가 3首인데 比하여 7首가 더 있으며, 각 首마다 小題가 붙어 있어 노래의 主題가 明瞭한데다가 前四首는 立岩을 부르고 남은 六首는 二首式 立岩과 作者가 問答하는 形式을 取하였다. 板本所載分 三首는 立岩主題歌 四首 中の 前二首뿐이고 立岩問答 六首 中 問岩歌 一首만이고, 板本에 있는 것도 問巖이란 小題가 없어 鑑賞上에 있어서 不明한 것이 있었는데, 이 寫本에 依해서 分明히 된 것이다.

精舍 以下 十九首는 順序가 兩本 同一하나 表現 上에 相異한 節句가 많은데 詩歌 形式上으로나 詩想으로나 綴字上으로나, 寫本이 더욱 妥當正確함을 認定할 수 있다.⁵⁹⁾

윗글에 의하면, 당초 『노계집』에는 「立巖」, 「精舍」, 「起予巖」, 「戒懼臺」, 「吐月峯」, 「九仞峯」, 「小魯岑」, 「避世臺」, 「合流臺」, 「尋眞洞」, 「採藥洞」, 「浴鶴潭」, 「數魚淵」, 「響玉橋」, 「釣月灘」, 「耕雲野」, 「停雲嶺」, 「產芝嶺」, 「隔塵嶺」, 「畫裏臺」의 22수만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右其三」, 「右其四」, 「右巖答」 3수, 「右問巖」 2수, 7수를 합하여 모두 29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성의 역시 이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立巖歌」 二十九首는 張旅軒先生에게 從遊하면서 선생의 寓居地인 立巖(迎日郡 竹長面 立岩里)을 代詠한 것인데, 종전에는 『蘆溪集』 卷二에 수록되어 있는 二十二首로만 알았던 것이 近年에는 慶北大學校 國文學科 學生이 迎日郡 竹長面 梅峴里에서 蘆溪翁의 宗孫家에 傳承되어 오던 古寫本을 발견하고 金思燁 教授가 다시 이것을 紹介 발표함으로써 새로이 七首를 얻었으니, 「立巖歌」는 모두 二十九首가 되는 셈이다.⁶⁰⁾

임암은 오늘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에 있는 卓林巖이다. 『노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58) 황충기, 앞의 책, 109~113쪽.

59) 김사엽, 「노계 <입암곡>의 계보」(『국어국문학』 제20권, 1959. 2), 85쪽.

60) 박성의, 앞의 책, 379쪽.

卓然直立 하니 法바담즉 ㅎ다마는
 구름 깃흔 峽中에 알리잇사 츠자오라
 努力躋攀 하면 奇觀이야만 ㅎ니라

위의 구절은 노계의 시조 「입암」의 한 수이다. ‘卓然直立’은 입암의 외형을, ‘구름 깃흔 峽中’은 입암의 입지조건을 묘사하고 있다. 입암은 구름 많은 골짜기에 홀로 똑바로 직립해 있는 높은 바위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奇觀’은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입암 주변의 훌륭한 경치이며, 입암이 주변경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다. 이와는 달리 『여헌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입암이 중심에 있고, 봉우리들이 빙 둘러서 호위하듯 서 있으며 골짜기들이 끌어당기며 감싸 안듯이 둘러싸고 있다. 그 위세를 도와주는 것은 뒤의 구름이 걸려 있는 높은 바위요, 마주보고 있는 것은 앞에 솟아 있는 높은 봉우리들이다. 좌측에는 봉황새 부리 같은 뗏부리가, 우측에는 거북이 같은 언덕이 있다. 동네 입구에는 푸른색의 산봉우리가 중첩되는 관문이 있고, 동네 위쪽에는 작은 샘물의 물줄기가 있다. (중략) 비록 오묘한 손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그림일지라도, 비록 교묘한 말로써 얻어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의 바위가 거느리는 기이한 경치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⁶¹⁾

윗글은 여헌이 노계와는 다른 시각으로 입암과 주변의 경관을 묘사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노계는 「입암」에서 ‘卓然直立’, ‘峽中’, ‘奇觀’이라는 세 단어로 입암과 그 주변의 지정학적·경관적 지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입암이 주변 경관의 중심이자 주변 경관이 집중되는 지점임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여헌은 시점을 입암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암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을 바라보고 있다. 입암과 주변 경관에 대한 전체의 구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의 구도란, 중심점에 위치를 확정하고, 한 지역을 완전한 공간으로 형상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헌은 병자호란 이후 자신의 은거지인 이곳에서 입암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을 파악하여 자신의 공간으로 구획 짓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손오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1) 張顯光, 『旅軒集』 卷九, 記, 立巖記, 손오규, 앞의 책, 44쪽에서 재인용.

此一巖中立 而衆嶺環擁 列壑控抱 助其勢者 後有雲屯之隆巖 對其面者 前有斗聳之高峯 左焉鵬喙之崖 右焉龜伏之岡 洞口有碧嶂之重關 洞上有窮源之微徑 (中略) 雖妙手不能畫出 雖巧詞難以收得 則一巖所領之奇勝

고독이 주체의 정신적 상해를 의미한다면, 상황중심의 인식은 현실부정이나 거부로 인한 도피로 나타난다. 도피는 정신적 망각의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산수문학에서 도피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자연을 찾아 나서는 행위로 상징된다. 그러나 산수를 찾아 나서는 것 자체가 모두 도피에만 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⁶²⁾

윗글은 고독의 여파로 인한 도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현의 은거는 확실하게 도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현은 입암을 자신의 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따라서 여현의 은거지 입암은 그의 도피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여현이 은거하여 학문을 하였던 입암의 ‘피세대’를 읊은 시조이다.

名利에 쓰지업서 비오시 막디집고
訪水尋山하야 避世臺에 드러오니
어즈버 武陵桃源도 여기런가 흐로라

피세는 세상을 피한다는 뜻이다. 피세에 대한 대답은 초장에 잘 나타나 있다. 명리를 추구하는 생활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여현은 세상을 피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며, 노계는 여현에게 성리학적 배움을 얻고자 이곳으로 왔다. 병자호란 이후의 세상을 버리고 이곳으로 오게 된 여현이나, 문인적 실천을 위한 성리학 학습에 전념하기 위하여 선현을 찾았던 노계에게 이곳은 은거지이었음이 명백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현은 노계의 존현 대상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노계는 임진왜란이후 벼슬에서 물러난 후 유학에 전념하였다. 『노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男兒의 事業은 지극히 큰 것이어서 문장이 오히려 나머지의 일이 되거늘 하물며 弓馬에 있어서라?” 夫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셨는데⁶³⁾

노계는 이때부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鄒魯諸書와 紫陽附註를 潛心證讀하여 취침과 식사도 하지

62) 손오규, 『산수미학탐구』(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56쪽.

63)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98쪽.

男兒事業至大 文章猶爲餘事 矧弓馬耶 夫子言朝聞道夕死可矣

않고 밤중에는 千古聖賢의 기상을 목상하였다. 그가 노년에 얼마나 유학에 전념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여헌을 증유하여 학문을 묻고 여헌에게 ‘동방을 빛낼 호걸’이란 찬사까지 받았다. 이상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가 蘆溪를 爲하여 「書朴仁老無何翁九仞山記後」란 跋文을 써 준 것을 보아도 十年이나 年長者요, 博學 厚德한 旅軒을 노계가 尊敬하고 性理學을 묻기도 하며 交遊한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리하여 旅軒의 影響은 文學 特히 短歌에 相當히 反映되고 있음을 본다.⁶⁴⁾

『노계집』의 단가 「立巖」, 「精舍」, 「起予巖」, 「戒懼臺」, 「吐月峯」, 「九仞峯」, 「小魯岑」, 「避世臺」, 「合流臺」, 「尋眞洞」, 「採藥洞」, 「浴鶴潭」, 「數魚淵」, 「響玉橋」, 「釣月灘」, 「耕雲野」, 「停雲嶺」, 「產芝嶺」, 「隔塵嶺」, 「晝裏臺」는 『旅軒先生文集卷之一』의 오언절구 「立巖十三詠」, 오언장편 「立巖」·「精舍」·「戒懼臺」·「避世臺」, 『旅軒先生續集卷之一』의 오언절구 「小魯岑」·「起予巖」·「合流臺」·「隔塵嶺」, 오언장편 「浴鶴潭」과 비교해 보면 노계의 단가는 여헌의 한시를 즉흥적으로 축소시켜서 간략하게 만든 것 같다고 한다.⁶⁵⁾ 이것은 위의 내용에서, 노계의 단가가 여헌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계와 여헌이 서로 왕래가 많았음을 알려 주는 근거가 된다.

『노계집』의 「吳山書院敬次張旅軒韻」의 칠언절구, 「吳山書院敬次張旅軒韻」의 칠언율시도 노계와 여헌의 왕래의 근거가 되는 작품들이다. 노계와 여헌의 관계를 무엇보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無何翁傳九仞山記跋」이라 할 수 있겠다. 여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無何翁의 슬기로운 생각은 뜻이 높고 원대하며 도량이 넓고 깊으며, 노래를 잘 불러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 말을 삼가고 행동이 둔독하여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는데, 고을과 이웃만이 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大人 선생에게도 重望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귀면 기꺼이 용문에 기탁하였다. 내가 병으로 누워 있을 웅이 無何翁傳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나아가 보고서 나의 근심을 잊고자 하였으나 깊은 癩疾이 있어서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하루는 웅이 병문안을 왔다. 허물이 없이 회포를 풀며 시간을 보내니 情義가 鄭重했다. 내가 웅이 나를 버리지 아니한 것을 알고 無何翁傳을 보기를 청하니 웅이 글을 꺼내 보여 주었는데 詞氣가 힘이 있고 箴事가 자세했다. 기이하고 위대하고 높다랗고 특출하여 尋常에서 벗어난 것이 컸다. 그리고 그 九仞山의 誠意關 및 문답의 말은 더욱 친절하게 형용을 잘 하였다.

64) 이상보, 앞의 책, 30쪽.

65) 이상보, 앞의 책, 31쪽.

배움을 원하는 마음과 도에 뜻을 둔 정성은, 늙어도 마땅히 더욱 노익장하고 곤궁해도 또한 더욱 견고하니, 진실로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⁶⁶⁾

『無何翁傳九仞山記跋』은 여헌이 노계의 「무하옹전」을 읽고서 자신의 감회를 적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노계집』에 수록되어 있다. 『여헌속집』에는 「書朴仁老無何翁九仞山記後」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노계집』의 「無何翁傳九仞山記跋」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후손들의 기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윗글은 여헌이 노계의 인간됨을 “翁智慮高遠 辦局宏深”, 노계의 문장을 “則詞氣奔放 而敘事詳密 奇偉峻特”라고 하였음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善爲歌什 稱美於衆” 이 부분은 노계가 시가에 능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 같다. 그리고 노계가 「입암 29영」을 짓게 된 동기는 여헌을 종유하면서 여헌의 「입암가」에 맞추어 지은 시조라고 『노계집』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헌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여헌이 노계의 학문적 스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계는 여헌을 존현하였기 때문에 입암에 은거하고 있는 여헌을 찾아가 종유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노계는 이름 있는 유학자이자 학식이 높은 선비였던 여헌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여헌을 종유함으로써 여헌의 시조를 인용하고 축소시킨 경향은 보이지만, 노계 시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가가 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6)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之二, 附錄, 無何翁傳九仞山記跋(역락, 1999), 82쪽.

翁智慮高遠 辦局宏深 善爲歌什 稱美於衆 言行謹篤 見信於人 非但鄉隣愛之 亦見重於當時大人先生 故人得容接者 喜托龍門 余病裏曾聞翁作無何翁傳 竊欲造觀 以忘吾憂 深痼斯疾 願莫之遂 一日 翁惠然來斯 問我病況 晤懷移時 情義鄭重 余知翁不我遐棄 請觀其傳 翁果出藁示之 則詞氣奔放 而敘事詳密 奇偉峻特 出尋常萬萬 而其中九仞山誠意關及問答之語 尤爲親切善形容 願學之心 志道之誠 老當益壯 而窮且益堅 苟非好德之實 能如是乎

IV. 「蘆溪歌」와 隱居樂道

‘隱居樂道’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사대부들의 정신영역에 나타난 새로운 삶의 지표이다. 앞의 고찰에서, 16세기는 보수적인 성향의 훈구파와 지방 재야의 문인·학자 출신의 사림파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주도권 싸움을 했던 시대였음을 확인했다. 기존의 훈구파가 청빈한 삶을 지향했던 사림파를 박해한 사건이 바로 무오·갑자·기묘·을사사화였다. 사림파는 정치에서 물러난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의 유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거낙도하는 유학자의 모습이었다.

은거낙도는 사대부의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은거낙도의 이념은 그들의 정신적 여유와 연결되어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은거낙도 역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이르러 정치적 모순이 드러나게 되면서, 지배층 내의 정치현실에서 소외된 鄕班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주자를 숭상하는 도학적 사상에 깊이 빠져 들었으며, 사림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와 노비도 소유하지 못한 지방 향반으로 전락하였다. 당시의 은거낙도는 사대부들에게 유일한 자신들의 삶의 현상으로 인식되어 진 것이다.

노계는 몰락한 향반의 후손이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유학에 전념하고 은거낙도의 삶을 살고자 한 인물이다. 다음은 『노계집』의 기록이다.

일찍이 밭 수백 이랑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이 있어서 밭이랑을 양보하였다. 짧은 날 귀한 말채찍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길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장부 채찍을 빼앗아가자 공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외물에 초탈함이 이와 같을 때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지고 비바람도 가릴 수가 없었다. 흉년이 든 해에는 끼니도 잊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거처함을 편안하게 하였다. 입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허물 있는 자가 있으면 그를 용서하고 숨겨주기까지 했다. 작은 선행을 듣게 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 하였다.⁶⁷⁾

67)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101~102쪽.

嘗治田數百畝 人有侵耕者 舉而讓之 少日携寶鞭一隻 路遇賤丈夫乘醉掠去 公不顧而往 其脫略外物多類此 此家益落 所居不蔽風雨 歲儉蔬糲或不繼 處之晏如也 口不言人過失 有訐者 曲爲之恕匿 聞小善 輒先稱道 恐人

윗글은 노계가 사대부의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적 이념에 대한 실천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사대부의 삶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노계의 가사 작품속에서 형상화 된 그의 삶은 전쟁과 산수락,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서 「태평사」, 「선상탄」 등의 작품을 통하여 전쟁의 현실과 그에 대한 회포를 술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관으로서 겪은 전쟁의 현실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감회와 직접 경험을 드러냈었다. 여기에 대평성대에 대한 축원과 기대, 부모님에 대한 성효의 심정 그리고 충신의 도리를 하겠다는 유교적 이념이 함께 이끌어졌다. 산수락은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은거낙도의 삶에서, 사대부 삶의 이상세계를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산수를 바라보는 정서적 방향이 전형적인 사대부들과는 달랐다. 우응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박인로의 안빈낙도 지향은 사대부의 위치를 유지할 만한 경제 기반과 학문적 깊이를 지닌 채 정신은 평온·안정의 상태를 구가한 致仕閑人 혹은 在地 士大夫와는 그 출발부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⁶⁸⁾

노계의 은퇴기 가사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의 삶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구체적 실상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삶이 작품과 밀착 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계가」와 「누항사」는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은거낙도의 삶을 지향하는 선비의 모습과 노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노계가」와 「누항사」의 고찰을 통하여 산수에서의 은거낙도적 삶과 가난한 현실의 구체적 묘사를 통한 산수락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노계와 문학 환경

노계가 송강·고산과 함께 '3대 시가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이미 언급 하였다. 노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한 이상보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之不知

68) 우응순, 「박인로의 안빈낙도 의식과 자연」(『한국학보』 41집, 1985), 49쪽.

시대적으로는 鄭松江과 尹孤山の 중간에 介在하여 그들과 더불어 詩歌文學의 三高峯이라 일컬을 만하다. 그는 歌辭에 있어서 松江보다 多作이요, 時調도 68首나 남겨 놓아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어엿한 歌客임을 誇示해 준다.⁶⁹⁾

‘근세 3대 시가인’으로 직접 지칭한 연구가는 박성의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時調, 歌辭의 작가와 작품을 國文學史上 통관하여 볼 때, 常識論 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나, 宋江 鄭澈과 蘆溪 朴仁老와 孤山 尹善道는 국문학계에서 共認하는 바와 같이 韓國 近世 詩歌 文學史上 三代詩歌人으로 손꼽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중략)…물론 이 三詩歌人 외에도 작품을 개별적으로 볼 때, 質的으로 우수한 작품이 있고, 또한 量的으로 長篇이 없는 바 아니나, 時調(長歌)와 歌辭(短歌)를 兼行하고 작품의 量과 質이 빼어나고, 眞摯한 그들의 작가적 생활을 볼 때, 아무리 하여도 이 三者를 近世 三代詩歌人으로서의 위치는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⁷⁰⁾

윗글들은 노계의 시가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의 시가인들 숫자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줄잡아도 몇 백 명이라고 가정할 때, 그 가운데서 3대 시인으로 인정받는다든 것은 더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가 문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40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나이 38세 때 강좌 절도사 성윤문의 막하에서 가사 「태평사」를 지었지만, 그의 시가 작품들은 대부분 40세 이후에 창작된 것이다. 그 후 무관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조라포 만호라는 미관말직으로 끝내고, 문인이 되어 41세 때 「조흥시가」를 지었다. 다시 무인이 되어 「선상탄」을 지었을 때가 그의 나이 45세이다. 무인 생활을 정리하고 난 후 은거하여 유학에 몰두할 때가 40세 이후이고, 그 시기를 본격적인 문인생활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계가 ‘삼대 시가인’이란 평가를 가능하게 했던 그의 문학 환경은 어떠했을까? 무관으로서 변방에 있었던 그에게 출세의 기회가 오지 않았고, 임병양탄 후 무신을 업신여기는 세태로 인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田野에서 은거낙도 하면서 유학에 몰두하고 창작활동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계의 문학 환경을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 고찰하고자 한다. 노계의 은거낙도적 삶에 형상화된 산수락을 논하기 위함이다.

첫째, 노계가 가지고 있었던 시적 재능이다. 그는 노래를 잘 짓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노계

69) 이상보, 앞의 책, 9쪽.

70) 박성의, 앞의 책, 3~4쪽.

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노래를 잘 지었는데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나면 문득 팔짱을 끼고 단정히 앉아 노래를 불러 회포를 푸니 모두 교훈이 되고 경계되는 말들이었다. 71)

그리고 어린 시절의 시적 재능에 대해서도 『노계집』에 기록되어 있다.

어렸을 때 글을 잘 지었는데 일찍이 「대승시」를 지어 이르되 (중략) 이시를 보는 모든 이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72)

노계를 風流客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 내용은 풍류와는 거리가 멀다. 충효와 도학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풍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문고에 관한 내용도 없다. 그렇다고 송강처럼 술을 즐기는 내용도 없다. 산수를 노래하면서 회포를 풀고 시를 잘 짓는 재능 있는 시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드러낸 시적 재능이 그가 은퇴기에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계 시가 창작의 문학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임병양란의 시대상황이다. 「태평사」와 「선상탄」은 노계의 초기 가사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모두 전쟁가사이다. 무관으로서 겪은 전쟁의 현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접 경험과 감회를 서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나아가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 나이든 부모님을 향한 효의 심정, 유교적 이념을 반영한 충신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신하의 다짐 등을 노래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태평사」의 창작 경위를 볼 때, 임진왜란이라는 병사들의 전쟁 수행을 위한 위로와 사기양양을 위해서 창작된 노래이다. 「선상탄」도 전쟁 상황을 노래한 것이다. 박성익의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宣祖 25年 4月 壬辰亂이 일어나자 東來·蔚山·慶州 지방을 위시하여 永陽君도 잇달아 陷落함에 분개하여 鬪을 던지고 戰場에 뛰어 들 새, (중략)이해 겨울에 賊이 바다로 달아나니, 公이 장차 太平時代가 오리라는 「태평사」를 지어 兵士들을 위로하였다. (중략)少時에 남쪽 防備를 위하여 부임했을 때, 對馬島를 바라보

71)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103쪽.

善歌什 遇一樹梢清陰處 輒高拱趺坐 朗詠以遣懷 大抵皆箴戒語也

72)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96쪽.

稍童 善屬文(中略)見者驚異

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죽은 諸葛이 산 仲達을 쫓고 孫臏이 龐涓을 잡았거던, 조그마한 醜物들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라고 하여 그의 늙은 丈夫의 심회를 吐露하였다 한다.⁷³⁾

윗글은 「태평사」와 「선상탄」이 전쟁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의 창작 환경은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작품은 앞서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평사」가 전승의 기쁨과 환희, 태평성대 등 집단적 이념 구현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상탄」은 원망과 한탄 그리고 비애 등의 개인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쟁이라는 상황이 두 작품의 문학 환경이 되고 있지만, 전쟁 중에 창작된 「태평사」와 전후 7년의 세월이 지난 시기에 병자의 몸으로 다시 전선에 투입되어 노래한 「선상탄」의 문학 환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태평사」와 「선상탄」은 노계의 문학의 중요한 체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전쟁을 근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은 노계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던 문학 환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름난 유학자이자 학식이 뛰어난 선비들과의 종유이다. 『노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찍이 紫玉山 속에 들어가 晦齋가 남긴 자취를 심방하였다. 寒岡 鄭球 선생을 泗上에서 만났었는데, 노계를 여러 번 칭찬하였다. 당시 曹 芝山, 張 旅軒 두 현인이 초야에 묻혀 도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공이 가서 자주 가르침을 청하였다.⁷⁴⁾

윗글은 노계가 종유했던 인물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노계의 작품들은 종유를 통한 창작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태평사」는 강좌 절도사 성윤문을 종유함으로써 창작된 작품은 아니다. 그의 명에 따라 지어진 것이지만,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막하에서 함께 지내며 지은 것으로 언급하였다. 회재 유적지를 탐방하여 창작한 작품이 「독락당가」임은 이미 고찰하였다. 한음과 여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여현을 종유하면서 「조흥시가」 그리고 「입암 29영」이 창작되었음을 이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음을 종유함으로써 「사제곡」, 「누항사」를 창작하였다. 『노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73) 박성의, 앞의 책, 339쪽.

74)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102쪽.

嘗入紫玉山中 訪晦老遺蹟 拜寒岡鄭先生於泗上 先生亦亟稱焉 時芝旅兩賢林居講道 公頻往請教

大用으로 추천하여 昏朝에 두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곧 龍津으로 물러났다. 공은 「사제곡」을 지어 충효를 권하여 실천하게 하였는데, 상국이 탄복하였다.⁷⁵⁾

윗글은 노계가 한음을 종유했을 때의 기록이다. 한음이 그를 벼슬에 추천하여 옆에 두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노계의 유학자 선비들의 종유는 그의 성리학적 깨우침과 학문 수련의 역할도 하였지만,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시가들이 많이 창작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도 노계의 문학 환경으로써 그의 창작 활동에 많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노계의 사상이다. 문학 작품에는 그 작품이 제작될 당시의 사상과 작가의 인생관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노계 역시 이러한 경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앞서 고찰한 노계의 생애에 의하면, 그는 사서삼경과 성리학에 몰두 하였고, 스스로 수련하는 학구적이고, 동시에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는 그가 유학사상에 몰두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노계는 은퇴기 마지막에 산수에 은거하여 살았으므로 산수락을 즐기고 은거낙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계의 사상은 도학사상, 충효사상, 안빈낙도사상, 자연애 사상으로 분류됨을 앞서 언급하였다. 연구자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상보는 도학사상, 충효사상, 안빈사상, 자연사상으로 분류하였고,⁷⁶⁾ 박성익은 도학사상, 충효사상, 자연애 사상으로 분류하였다.⁷⁷⁾ 그리고 황충기는 도학사상, 충효사상, 안빈낙도 사상, 자연애 사상, 복고사상으로 고찰하였다.⁷⁸⁾ 본 연구에서는 도학사상, 충효사상, 안빈낙도사상, 자연애 사상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고려 후기 중국에서 들어 성리학이 곧 도학이었다.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는 철학적인 유학이었다. 노계가 추로제서와 자양부주에 몰두하여 침식까지 폐할 정도로 유학에 몰두하였음은 앞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도학사상에 심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 중에 도학사상이 함축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다. 「독락당가」, 「임암별곡」, 「소유정가」, 「영남가」 등이다.

조선은 억불숭유 정책으로 유교를 國是로 삼았다. 유교의 삼강오륜에서 충과 효는 우리의 기본 덕목이자,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었다. 노계의 주된 사상은 유학사상 이었다. 노계는 ‘성·경·충·효’

75)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103쪽.

欲推薦大用 值昏朝不果 乃退老龍津 公作莎堤操 勸以忠孝 相國歎服

76) 이상보, 앞의 책, 36~45쪽.

77) 박성익, 앞의 책, 346쪽.

78) 황충기, 앞의 책, 19~34쪽.

4대자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꿈속에서 周公을 만나 이 네 글자를 받아 감복하였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유학에 대한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노계는 일상에서 충효사상을 생활화 하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이입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그의 작품들 중 「태평사」, 「누항사」, 「선상탄」, 「영남가」 「노계가」 등의 가사 작품과 시조 「오륜가」, 「조흥시가」 등이 충효사상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안빈낙도는 가난하고 궁하면서도 절개를 버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노계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천성에 의한 것처럼 나타난다. 역시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입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안분음」, 「누항사」, 「경운야」 등이 그의 안빈낙도 사상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마련이다. 인간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산수를 벗하여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는 자연 애호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 산수에 완전히 동화되어 ‘物我一體’, ‘物心一如’의 경지에 이르렀던 선현들이 적지 않게 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산림학과 등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시가들은 산수를 노래하거나 심미의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 많았다. 노계의 경우도 산수를 노래한 작품들이 있다. 선현의 자취를 찾고 유명한 학자와 선비들을 존유하면서 주변의 산수를 노래한 작품들이 많다. 「오륜가」, 「노주유거」 등이 안빈낙도 사상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노계의 문학 환경을 생애, 전란, 종유관계 그리고 사상에 걸쳐 고찰해 보았다. 간단하게 다시 분류 정리하여 보면 전쟁, 유학 그리고 은거에 의한 창작 활동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학 환경이 노계를 다작의 시가인으로 만들었고, 평생 학구적이고 실천적인 학자로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蘆溪歌」와 幽人處士

「노계가」는 『노계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 아무런 해설이나 주석 없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창작 동기·창작 시기는 물론 창작 장소 등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작품의 내용에서, 노계곡의 산수를 좋아해서 그곳에 은거하며 경치를 즐기고 산수를 노래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계가」를 다음과 같이 7단락으로 나누어 작품 속에 나타난 유인처

사의 삶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7단락의 구분과 내용이다.

제1단락은 “白首에 訪水尋山 太晩호줄 알건마는~天慳地秘호야 ㄴ를주라 남겨뒀다” 부분이다. 허영계 선 머리로 대지팡이 짚고 짚신 신고 자연산수를 찾아서 노계 깊은 골에 들어오니, 제 1강산이 자기를 위하여 남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2단락은 “躑躅良久타가 夕陽이 거인적의~十里明沙는 三月눈이 되었느다” 부분이다. 높은 언덕에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산봉우리는 아름답고 흐르는 물은 감돌아, 천만가지 모양이 기이함을 노래하고 있다.

제3단락은 “이湖山 形勝은 견줄던 뇌아업너~山川이 靈異호야 도아난가 너기로라” 부분이다. 이 호수와 산의 풍경이 뛰어남은 견줄 데가 없는데, 푸른산과 흐르는 물, 밝은 달과 맑은 바람, 갈매기와 해오라기, 고라니와 사슴 등 산중의 온갖 물건이 절로 자기 물건이 되었으니, 자기 몸이 이상하고 신령스럽고 이상한 산천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제4단락은 “中心이 瑩然호야 世慮절로 그쳐다니~爲子孫計는 다만인가 너기로라” 부분이다. 마음이 넓고 뜻이 큰 취미는 날로 새로운 데, 새와 짐승들은 가축이 되었으니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무궁무진한 강산과 노는 땅은 자손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 밝은 달과 맑은 바람만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아들에게 영원토록 나누어 주고 싶은 심정을 말하고 있다.

제5단락은 “또어린 이몸은 仁者도 아니오~긋칠줄을 모르느다” 부분이다. 삼정승과도 바꿀 수 없는 산수를 좋아하는 버릇이 생겨 세간명리를 뜯구름처럼 여기고, 은사의 거친 두건과 벼웃으로 낚시터에서 노닐면서 맑고 깨끗한 낚시터의 맑은 풍경과 흰 갈매기를 노래하고 있다.

제6단락은 “巖畔山花는 錦繡屏이 되어잇고~羲皇盛時를 다시본가 너기로라” 부분이다. 바위틈의 들꽃과 시냇가의 수양버들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 물과 땅의 진미를 갖추어서 취하도록 먹고, 이끼 낀 넓은 돌을 베고 누웠으니, 태평세월을 다시 본 듯함을 서술하고 있다.

제7단락은 “이힘이 누힘고 聖恩이 아니신가~이몸은 이江山風月에 늘글주를 모르로라” 부분이다. 성은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태평성대가 영구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함을 말하고 있다.

이제 위의 단락 구분을 근거로, 「노계가」의 유인처사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단락 ‘노계곡을 찾아온 감회’를 서술한 부분이다.

白首에 訪水尋山 太晩호줄 알전마는
平生素志를 뱉고야 말라너겨
赤胤三春에 春服을 새로납고

竹杖芒鞋로 蘆溪 김흔골의 형허마참 차즈오니
 第一江山이 넘지업시 버려늬다
 古往今來에 幽人處士들이 만히도 잇것마는
 天慳地秘하야 ㄴ를주랴 남겨뵈다

서두를 “白首에 訪水尋山 太晚흔줄 알전마는”이라고 잡은 것은 평소부터 늘 산수를 그리워하고도 기회가 없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부분은 「독락당가」 제1단락의 서두와 비슷한 내용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노계가 가사들은 서로 비슷한 구조의 표현 방법과 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앞서 고찰했던 그의 문학 환경에서 사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것을 근거로, 그의 가사 작품들의 주제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태평사」·「선상탄」·「영남가」의 충효사상, 「사제곡」·「독락당가」·「노계가」의 자연애 사상 그리고 안빈낙도 사상을 노래한 「누항사」이다. 그런데 작품 주제에 의한 분류로 보아야 한다. 실제 내용에서는 모든 작품들이 충효사상이 드러나므로 복합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지금 고찰하고 있는 「노계가」와 「독락당가」와 비슷한 양상을 드러내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赤鼠三春에 春服을 새로넙고” 구절의 ‘赤鼠三春’은 노계가 노계곡을 찾아간 시기에 대한 근거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赤鼠三春’은 병자년(1636)의 봄을 가리키고, ‘蘆溪 김흔 골’은 蘆洲를 뜻한다. 이에 근거하면, 「노계가」는 그가 병자년에 노주를 찾아가서 창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대와 장소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竹杖芒鞋로 蘆溪 김흔골의 형허마참 차즈오니” 구절의 ‘蘆溪 김흔 골(蘆洲)’에 대하여 『노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蘆洲의 자연을 사랑하여 그곳에 집을 지어 살았다. 곧 道川에 오래도록 숨어 지냈는데, 이웃에 林下 鄭湛과 도의로써 의탁하여 시간이 되는 날에 함께 지팡이 짚고 꽃을 찾아 한가롭게 자신을 잊었다.⁷⁹⁾

윗글은 노계가 노주(현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로 이주한 것을 1630년 이전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인조 8년(경오년, 1630)의 龍驤衛副護軍 임명 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노주에 들어갔다가 도천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도천에서 임하(1552~1634)와 절친으로 지냈다는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노계가 임하 사망 이전(1634)에 도천으로 돌아갔다는 근거가 되고 있

79)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략, 1999), 99쪽.

初愛蘆洲水石之勝 築室寓居 旋入道川舊隱 與隣居鄭林下湛 託以道義 暇日共携筇訪花 蕭散忘形

다. 따라서 「노계가」의 서두에, 노계가 병자년(1636) 봄에 노주로 들어갔다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그는 그곳에 한 번 은거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그의 오언절구 「贈崔上舍起南」에 있는 기록이다.

공이 일찍이 蘆洲의 自然勝景을 사랑하여 터를 닦아 거처하였다. 戊午年간에 누군가가 그 밭을 빼앗아 농사를 지으니 공이 한 번 따지지도 않고 모두 양보하고 이 시를 지어 그 뜻을 보였다. 사람들이 참 아무개의 마음은 얼음같이 맑고 옥처럼 깨끗하다고 하였다.⁸⁰⁾

윗글에는 ‘무오년(1618)’이란 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이 시기 역시 「노계가」의 창작 이전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연관시켜 추론하면 첫째, 노계가 처음 노주에 들어간 시기는 임하 사망을 기준으로 해도 1634년 이전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노계는 노주에서 두 번 이상 살았다는 사실이다. 『노계가』의 창작 시점을 기준으로 1636년 이전의 시기와 1636년 이후의 시기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의 “天慳地秘 ㅎ야 ㄴ를주랴 남겨췌다” 구절은 노계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산수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 은거하겠다는 유인처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2단락 ‘노계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을 노래한 부분이다.

鵬踏良久타가 夕陽이 거원적의
 陟彼高岡 ㅎ야 四隅로 도라보니
 玄武 朱雀과 左右 龍虎도 그린듯시 ㄴ갓고야
 山脈 밋친아리 藏風向陽 ㅎ디 靑蘿를 허허드러
 數椽蝸室을 背山臨流 ㅎ야 五柳邊에 디어두고
 斷岸千尺이 가던龍이 머무는듯 江頭에 들렀거늘
 草草亭 ㅎ두間을 구름췌 긴솔아리 바휘디켜 여러니니
 千態萬狀이 아마도 奇異코야
 峯巒은 秀麗 ㅎ야 富春山이 되야잇고
 流水는 盤回 ㅎ야 七里灘이 되야거든
 十里明沙는 三月눈이 되엿는다

80)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一, 詩 五言絕句, 贈崔上舍起南(역락, 1999), 15쪽.

公嘗愛蘆洲水石之勝 誅茅闢荒以居之戊午年間人有侵耕其田者 公不一辨 舉而讓之 作此詩以見志 人謂朴某心事水清玉潔

노계곡을 찾아와서 ‘초초정’이라는 작은 집을 산수간에 지어놓고 은거하면서 중국의 도연명과 엄자룡과 幽人들을 상기하고 있다. “靑蘿를 허허드러 數椽蝸室을 背山臨流하야 五柳邊에 디어두고” 구절은 노계의 오연절구 「蘆洲幽居」와 내용이 통한다. ‘數椽蝸室’은 개구리 집이란 표현으로 초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五柳邊’은 중국 진나라 때의 隱士 도연명이 문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 놓고 자신의 호를 ‘五柳先生’이라 했던 것에서 의미를 가져와 ‘은거처’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노계 자신도 노계곡의 이름을 따 ‘蘆溪’라는 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峯巒은 秀麗하야 富春山이 되어있고” 구절의 ‘富春山’은 엄자룡이 은거했었던 산 이름이다. 엄자룡의 은거지를 끌어와서 노계곡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노계집』에 수록되어 있는 오연절구 「蘆洲幽居」이다.

덩굴 사이 달빛은 띠집을 비추고
성긴 대나무는 섬돌을 쓸어내네.
마을이 깊어 사람들 오지 않고
산새만 한가로이 오고 가네.
蘿月穿茅屋 疏篁掃石壇
巷深人不到 山鳥去來閑

겹겹이 둘러 있는 청산 아래에
시냇가에 두어칸 집을 지었네.
바람이 맑으니 여름 지내기 쉽고
솔이 푸르니 봄을 보내기 어렵네.
重疊靑山下 臨溪卜數間
風淸經夏易 松碧送春難⁸¹⁾

노계가 머물렀던 노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노계가」 제2단락의 “靑蘿를 허허드러 數椽蝸室을 背山臨流하야 五柳邊에 디어두고” 구절과 내용이 비슷한 양상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

81)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一, 詩 五言絶句, 蘆洲幽居(역라, 1999), 16쪽.

다. 위의 오언절구 2수는 노계가 노주에 집을 마련하고 창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사대부들의 은거지였던 ‘산수’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손오규는 ‘산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수문학에서 山水는 江湖, 山林, 江海 등으로 사용되며, 그 대상에 국한하여 볼 때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自然이라는 용어이다. 그러나 山水는 고전문학 특히 詩歌에서 산수를 美的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의식과 그 감상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산수미는 감상자의 미의식에 의하여 그 형식미와 내용미에 대한 인식이 相異하다. 따라서 산수의 개념은 장소적 의미, 경제적 의미, 정치적 의미, 문학적 의미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⁸²⁾

윗글의 정의에 근거하면, 위의 오언절구 2수에서는 ‘띠집’과 ‘두어칸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자연이요 산수가 되고, 각각 고유한 존재양식과 생명현상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노계는 자신이 살았던 고향 도천을 떠나 독립적인 존재의 자연인 노주의 자연 경물들을 사유화, 다시 말해서 즐기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노주의 자연이라는 대상을 바라보고 감상하고 그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意識과 志向性이 함축되어 있는 오언절구의 시가로 노래함으로써 문학적 개념의 산수를 그려내고 있다.

좀 더 논의를 확대하면 첫째, 산수는 본래 장소적 의미가 있으므로 노주라는 장소적 공간에 대한 의미이다. 위의 오언절구 「노주유거」 轉과 結에 노주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노계가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이다. 태초부터 하늘에는 하느님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다고 믿는 우리의 의식세계는 하늘과 산을 신의 영역으로 인간의 삶과는 분리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정치적 의미이다. 노계가 노주로 간 것은 조라포 만호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이다. 손오규는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초야로 정의했고, 초야를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노주는 노계에게 있어서 관직을 물러난 후의 초야의 산림학과로 규정해주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장소적 의미가 되는 곳이다.

셋째, 문학적 의미이다. 노주는 노계가 산수를 미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시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및 창조 대상이 되었고, 산수문학에 있어서 산수미를 발견하여 노래할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인 문학적 인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 준 곳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노주는 그가 무관시절 벼슬을 하면서 인식했던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학문과

82) 손오규, 앞의 책, 32쪽.

문학에 대한 자기 연마에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생활 추구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는 노계의 은거지였는데, 왕조중심 사회에서 왕과의 절연 또는 타의에 의해 관직을 박탈당한 패배자로서의 은거가 아니라, 노계가 자발적으로 찾아온 능동적 산수락 추구의 은거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단락 ‘자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서술한 부분이다.

中心이瑩然호야世慮절로그쳐디니
 光風霽月이 腔子裏에 품었는듯
 浩然眞趣 날로새롭 호노왜라
 飛禽走獸는 六畜이 되얏거늘
 달알이 괴기낙고 구름속의 밝힐가라
 먹고못나마도 그칠적은 업노왜라
 無盡호 江山과 許多호 閑田은 分給子孫 호려이와
 明月淸風은 논호듀기 어려올시
 才與不才에 養志호는 아들호아
 太白淵明 證筆에 永永別給 호렷로라
 내의 이말이 迂闊호듯 호것마는
 爲子孫計는 다만인가 너기로라

세상 근심을 잊고 은거낙도하는 호연한 취미를 읊었다. 나는 새나 짐승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되어 있고,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밑에서 밭일하기에는 생애가 넉넉하지 못하여도 부족함은 없고, 세상 근심을 모두 잊었으니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가슴속에 들어온 것처럼 참된 취미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궁한 감상과 많은 놀리는 땅은 자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밝은 달과 맑은 바람만은 나눠주기 어려우니, 어버이 뜻을 받들어 사는 아들에게 이태백과 도연명의 증서로 특별히 주고 싶다고 한다. 따라서 “才與不才에 養志호는 아들호아 太白淵明 證筆에 永永別給 호렷로라” 구절의 ‘太白淵明 證筆’은 이태백과 도연명이 부귀공명을 버리고 산수에 몰입하여 은거낙도 하였던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손을 위한 계획임을 욕심 없고 마음이 깨끗한 풍류인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이 구절의 ‘才與不才에 養志호는 아들호아’ 부분에 대하여 황충기는 「노계가」 제1단락의

‘赤鼠三春’이 말하는 병자년(1636)의 봄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노계가」 가운데 나오는 “才與不才에 養志호는 아들 훈아 太白 淵明 證筆에 永永別給 ㅎ렷로라”를 보면 이는 그의 所生인 두 아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살아 있어야 내용과 一致하는 것이 된다고 하겠다. 그의 長子 興立(1573~1621)과 次子 敬立(1576~1627)의 生沒年代로 미루어 적어도 仁祖 5년(1627) 이전에 지었어야 하기 때문에 丙子年(赤鼠三春)과는 어긋난다고 하겠다.⁸³⁾

윗글은 「노계가」 창작 시기에 대한 황충기의 주장이다. ‘才與不才에 養志호는 아들 훈아’라는 내용을 근거로 적어도 아들 한 명은 「노계가」 창작 시점까지 살아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차남의 사망(1627) 이전으로 창작 시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남의 죽음(1621) 이전의 시점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노계가」의 내용 분석에 근거하여 창작 시기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제1단락의 ‘赤鼠’는 정확한 시기를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4단락의 ‘才與不才에 養志호는 아들 훈아’는 ‘아들 하나에게’라는 의미해석에 근거한 추측이다. 이종문의 연구⁸⁴⁾는 밀양박씨 족보의 오류 가능성을 들어 황충기의 주장 역시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5단락 ‘낙시질을 하다 산수간을 배회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이다.

世間名利란 썩구름 본덧호고
無思無慮호야 物外心만 품고이셔
이니生涯를 山水間의 부터두고
春日이 채긴제 낙터를 비기취고
葛巾布衣로 釣臺에 건너오니
山雨는 잠깐개고 大陽이 쬐오논디
물근 바람 더더오니 鏡面이 더욱발다
김흔돌이 다보이니 괴기數를 알리로다
괴기도 나치이거 놀닐줄 모르거든 차마엇디 낙글넌고
罷釣徘徊호며 波心을 구어보니

83) 황충기, 앞의 책, 70쪽.

84) 이종문, 「〈蘆溪歌〉의 창작 연대와 蘆溪 朴仁老의 蘆洲 隱遁 시기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제47집, 2012. 6), 306~314쪽.

雲影天光是 얼희여 잠겨논디
 魚躍于淵을 구름우히 보아고야
 하문득 驚怪호야 俯察仰觀호니 上下天이 宛然호다
 一陣東風에 기엇진 漁笛이 놓히부러 보니던고
 江天이 寥寂호디 반가와 도들리느다
 臨風倚杖호야 左右로 도라보니
 臺中淸景이 아마도 蕭灑코야
 물도 하늘갓고 하늘도 물갓호니
 碧水長天은 흐빋티 되얏거든
 물가에 白鷗는 오논듯 가논듯 곳칠줄을 모르느다

세간의 명리를 뜯구름 본 듯하고 벼슬하지 한고 은거하며 지내는 사람의 차림으로 낚시터에서 유
 유자적하는 작자의 한가로운 흥과 맑고 깨끗한 낚시터의 정경을 읊었다. “또어린 이몸은 仁者도 아
 니오 智者도 아니로디” 구절의 ‘어린 이몸’은 어리석은 이몸 이란 의미가 되므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仁者도 아니오 智者도 아니로디’는 『논어』의 “어진자는 물을 즐기고, 지
 혜로운 자는 산을 즐긴다. (仁者樂水, 智者樂山)”을 인용하여 겸손을 나타내고, “삼정승의 벼슬에도
 이강산을 놓을쏘냐(三公不換此江山)”의 뜻을 풀어 산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흐믓며 明時에 버린몸이 흐을닐이 아조업서” 구절의 ‘明時에 버린몸’은 세속명리를 버린 몸과 임금
 이 버린 몸,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세속명리를 버리고 산수에 은거하
 고자 했던 작자의 심정을 볼 때, 후자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계가 은거낙도하면서
 산수락을 즐기는 유인척사의 생활 태도로 볼 때, 그의 은거는 타의에 의해서 자연으로 밀려난 것이
 라기보다는 스스로 산수에 귀의한 능동적 은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손오규는 ‘은거’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자유의식이 표면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현상적 삶과 현재적 삶의 모습에 대
 한 자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 자각의 계기가 산수문학에서는 隱居로 나타난다.⁸⁵⁾

윗글에 근거하면, 제5단락의 “世間名利란 뜯구름 본듯호고 無思無慮호야 物外心만 품고이셔 이니
 生涯을 山水間의 부터두고” 구절은 윗글에 부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명

85) 손오규, 앞의 책, 59쪽.

예를 버리고 활발한 자유의식을 感得할 수 있는 사림의 산수생활을 선택하였다. 여기에서의 은거는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고자 하는 자유의식의 발산이며 인간의 본래의 삶으로 회귀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조선시대 사림의 성리학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손오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조 士林의 性理學은 인간 중심의 精神主義 哲學으로, 자연 생명질서의 본질과 천지운행의 근원을 그 '값'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그들의, '智慧로서의 값', '窮極의 진리' 또는 '道'를 추구하는 학문 정신에 의하여 천지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켰다. 그 결과 大自然과의 정신적 融化를 통하여 山水隱居를 가치실현과 자아성찰, 실천공행을 통한 修養의 생활로 인식하고, 大自然의 理法을 表象하는 理念美의 세계를 지향하였다.⁸⁶⁾

윗글은 조선 사림의 '은거낙도'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사림들은 산수 속에서 수양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깨닫고자 하였을 것이다. 노계는 물질세계를 벗어난 정신세계를 중시하고 인간이 행할 도리를 지키는 데서 만족을 찾고, 자연에서 비록 빈궁하게 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도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조선의 사림들에게 학문의 완성은 서적을 통한 학문 이론의 탐구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도의 세계를 지향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제7단락 '축원'을 노래하고 있는 결사 부분이다.

이힘이 뉘힘고 聖恩이 아니신가
 江湖에 물너신들 憂君一念이야 어니刻애 이줄논고
 時時로 머리드러 北辰을 바라보고
 늣모르논 눈물을 天一方의 디이는다
 一生애 품은뜻을 비옵는다 하느님아
 山平海渴토록 우리聖主 萬歲소셔
 熙皞世界에 三代日月 빛취소셔
 於千萬년에 兵革을 쉬우소셔
 耕田鑿井에 擊壤歌를 불리소셔
 이몸은 이江山 風月애 늘글주를 모르로라

86) 손오규, 앞의 책, 33쪽.

산수를 벗 삼아 자유롭게 태평의 생을 누리는 것을 오직 성은이라 하면서, 성주 만세를 노래하고 태평세월이 지속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노계는 산수에 귀의하였지만 ‘憂君一念’을 노래하고 있다.

“時時로 머리드러 北辰을 바라보고” 구절은 「태평사」에서 이미 언급한 부분이다. 노계의 시가 작품의 중국 고사 및 성어 인용이라는 상투적인 수법이 이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山平海濶도 록 우리聖主 萬歲소셔 熙皞世界에 三代日月 빛취소셔, 於千萬년에 兵革을 쉬우소셔, 耕田鑿井에擊壤歌를불리소셔” 구절이 「태평사」의 결구처럼 같은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노계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계가」는 어떠한 해설도 없지만, 작품 서두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학계에서는 노계의 나이 76세 때에 「노계가」가 창작 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대체적인 기류의 근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계의 은거는 타의에 의해서 산수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유인처사로서 스스로 산수에 은거하기 위해 들어온 자발적·능동적 행위였다는 추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陋巷詞」와 山水樂

『노계집』에는 「누항사」의 제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이 漢陰 相公을 좇아 놀 때에, 한음 상공이 공에게 산촌생활의 곤궁한 형편을 물었다. 이에 공이 자신의 회포를 풀어 이 곡을 지었다.⁸⁷⁾

「누항사」는 노계가 광해군 3년(1611) 봄에 京畿 龍津江 別野村 莎堤로 한음을 찾아 갔을 때 지은 것이다. 당시 노계의 나이는 51세였는데, 위의 내용에서도 그가 한음을 종유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누항사」도 「노계가」처럼 제작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은 위의 내용과 「사제곡」 앞에 실려 있는 발문의 내용⁸⁸⁾으로 두 작품이

87)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歌, 陋巷詞(역락, 1999), 154쪽.

公從遊漢陰相公 相公問公山居窮苦之狀 公乃述己懷作此曲

88) 朴仁老, 『蘆溪集』 卷三, 歌, 莎堤曲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같은 해에 창작되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또 시조 「조흥시가」 뒤의 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莎堤曲은 어떤 이유로 지은 것인가? 지난 辛亥年 봄에 증조고 漢陰 相公께서 은퇴 하시어 朴蘆溪와 회포를 펼친 노래이다.⁸⁹⁾

위의 내용에 근거하면, 「사제곡」은 신해년 봄(1611년)에 제작되었고 「누항사」와 같은 해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니 1611년 창작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1611년의 「누항사」 제작 시기 추론을 부정하는 김광조와 최현재의 연구⁹⁰⁾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누항사」의 제작 시기를 단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기록 속의 신해년을 「누항사」의 창작 시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선행 연구자들과 연계하여 제작 시기를 추론하고자 한다.

날마다 鄒魯諸書와 紫陽附註를 潛心하여 證驗해 읽다가 寢息을 폐하기에 이르렀다.⁹¹⁾

貧而 無怨을 어렵다 ㅎ건마는
니生涯 이리호더 설은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飮을 이도 足히 너기로라
平生 ㅎ 뜻이 溫飽애는 업노왜라⁹²⁾

위의 두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계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성리학에 전념하던 자기수련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이 추론하는 1611년 창작 시점을 근거로 고찰한다.

莎堤 地名 在龍津江東距五里許 卽漢陰李相公江亭所在處也 公代相公作北曲

89)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歌, 早紅柿歌(역락, 1999), 159쪽.

莎堤曲 何爲而作也 昔在辛亥春 曾祖考漢陰相公退老 與朴蘆溪仁老述懷之曲也

90) 김광조, 「〈누항사〉에 나타난 탄궁의 의미」(『고전과 해석』 제2집, 2007. 4), 38쪽; 최현재, 「재지사족으로의 박인로의 삶과 〈누항사〉」(『국문학연구』 제9호, 2003), 203쪽.

91)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98쪽.

日取鄒魯諸書及紫陽附註 潛心證讀 至廢寢食

92) 朴仁老, 『蘆溪集』 卷三, 歌, 陋巷詞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이상보는 「누항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陋巷 깊은 곳에 草幕을 지어, 艱難한 生活을 할 때에 飢寒이 切身하고 羞侮가 太甚하지만 오직 貧而無怨하고, 自然을 벗삼아서 忠孝 和兄弟, 信朋友를 바라면서 安貧樂道할 뿐이라고 脫俗한 心境을 읊은 노래이다.⁹³⁾

「누항사」의 창작 모티브는 농우와 관련이 있다. 노계는 가난을 경험한 주체이다. 이것을 일부 연구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노계집』의 기록들을 살펴 근거를 찾는다.

벼슬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장차 늙을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⁹⁴⁾

2년이 지나서 옹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였는데 돌아가는 行裝에 오직 몸을 방어하는 一長劍이 있을 뿐이다.⁹⁵⁾

돌아 올 때에는 헤진 안장과 떨어진 갖에 행장이 초라하였다. (중략) 흥년이 드는 해에는 끼니도 잊지 못할 때가 있었으나 거처함을 편안히 하였다.⁹⁶⁾

위의 내용에서, 노계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나 정신없이 사는 노인으로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헌이나 정규양도 가난한 삶과 생계 없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계는 자신을 가난하고 초라한 늙은이로서 가난을 경험한 주체로 묘사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항사」를 다음과 같이 8개 단락으로 나누어 작품 속의 안빈낙도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산수락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8단락의 구분과 내용이다.

제1단락은 “어리고 迂闊홀산 이너우히 더니업다~隨宜로 살려히니 날로조차 齟齬하다” 부분이다.

93) 이상보, 앞의 책, 130~131쪽.

94)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一, 傳, 無何翁傳(역락, 1999), 63쪽.

窮居落魄 不知老之將至

95)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無何翁傳九仞山記跋(역락, 1999), 81쪽.

閱二載 翁遞任將歸 歸去行裝 惟是防身一長劍

96)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97쪽~102쪽.

及歸 弊鞍破笠 行李蕭然(中略) 歲儉蔬糲或不繼 處之晏如也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짓고, 서흙 밥 닷흙 죽 설데인 송농에 빈 배만 속일 정도의 가난한 생활이지만, 장부의 뜻은 변치 않고 安貧一念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제2단락은 “마을히 不足거든 봄이라 有餘호며~履尸涉血호 야몇百戰을 지니연고” 부분이다. 빈곤한 인생으로 험벗고 굶주려도 임금과 나라에 대한 일편단심을 잊지않고, 전란 5년 동안 죽을 결심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국난을 극복하려고 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제3단락은 “一身이 餘暇잇사 一家를 도라보랴~아므려 갈고전돌 어니소로 갈로손고” 부분이다. 일신이 쉬지도 못하고 일가마져 돌보지 못했는데, 종놈도 주인을 알아주지 아니하여 몸소 밭을 갈게 되었지만, 밭을 갈 소조차 없어 한탄하고 있다.

제4단락은 “부既太甚호야 時節이 다느즌제~風彩저근 形容에 기즈칠 뿐이로다” 부분이다. 소를 빌려 갔지만 소를 빌지도 못하고, 험 먼덕 수기 쓰고 축 없는 짚신에 맥없이 물러나오는 전황을 말하고 있다.

제5단락은 “蝸室에 드러간들 잠이와사 누어시랴~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두자” 부분이다. 좁은 자기 집에 돌아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즐기는 農歌도 흥 없이 들리고, 세상 물정에 한 숨만 나고 아까운 농기구는 빈 집 벽 가운데 걸려있다. 봄갈이도 이미 늦었으니 팽개쳐 던져둠을 서술하고 있다.

제6단락은 “江湖 흐솨를 꾸언지도 오락리니~다토리 업슬손 다문인가 너기로라” 부분이다. 강호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벗이 되어 임자 없는 강산에 절로 늙겠다는 심정을 말하고 있다.

제7단락은 “無狀호 이몸에 무슨志趣 이스리마는~人間 어니일이 命뵈기 삼겨시리” 부분이다. 있다면 죽이고 없으면 죽을망정, 남의 것 남의 부귀는 부러워하지 말고 인간의 운명을 지키자고 말하고 있다.

제8단락은 “貧而無怨을 어렵다 호건마는~그뵈기 남은일이야 삼긴디로 살렷노라” 부분이다.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궁핍한 생활도 족하며, 事忠孝, 和兄弟, 信朋友을 일 삼아 그 밖의 것들은 되는 대로 살겠다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제 위의 단락 구분을 근거로, 「누항사」에 나타난 산수락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단락 ‘삶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어리고 迂闊호산 이니우히 더니업다

吉凶禍福을 하날기 부쳐두고

陋巷 김푼곳의 草蓐을 지어두고

風朝雨夕에 석은답히 섭히되야
 서흡밥 닷흡粥에 煙氣도 하도할샤
 설데인 熟冷애 빈비석일 뿐이로다
 生涯이러히다 丈夫뜻을 옮길넌가
 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이셔
 隨宜로 살려히니 날로조차 齟齬히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안빈일념이 변치 않는 장부의 뜻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부분이다. 길흥화복, 즉 인간의 운명이 하느님의 뜻에 달려있고, 운명을 따르고 가난하지만 뜻을 옮기지 않고 은거낙도 하는 도학자적인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陋巷 김푼곳의 草幕을 지어두고 風朝雨夕에 석은답히 섭히되야 서흡밥 닷흡粥에 煙氣도 하도할샤 설데인 熟冷애 빈비석일 뿐이로다” 구절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노계는 빈곤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도학자적인 안빈일념을 잊지 않고 있다는 장부로서 최초 품은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의 “隨宜로 살려히니 날로조차 齟齬히다” 구절에서 굳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가 여의치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절박한 가난과 고통을 암시하고 있다.

제3단락 ‘몸소 농사 짓는 상황’을 노래한 부분이다.

一身이 餘暇잇사 一家를 도라보라
 一奴長鬚는 奴主分을 이젧거든
 告余春及을 어너 사이 생각히리
 耕當問奴고 돌 놀드려 물물논고
 躬耕稼穡이 너 분인 줄 알리로다
 幸野耕叟와 壘上耕翁을
 賤타 히리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돌 어너 쇼로 갈로손고

“一身이 餘暇잇사 一家를 도라보라 一奴長鬚는 奴主分을 이젧거든” 구절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관의 집안에도 전쟁 후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국난에 몸을 바쳐 동분서주한 탓에 자기 집안을 돌보지 못하여 가세가 기울어 종놈은 종과 주인의 사이마저 망각하기에 이르렀다. 어제의 맹장이 오늘은 밭갈이 하는 늙은이가 되었다. 당시의 국가정책이 어떠한

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농우마저도 없으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노계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안빈낙도를 실천하는 유자로서의 삶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당시 사대부의 삶이고, 동시에 전란 후 가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의 슬픔을 노래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시 사대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김기탁은 조선시대 양반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그러나, 모든 兩班이 국가관료가 될 수 없었기에, ① 지주이면서 관료인 경우, ② 지주이면서도 관료가 아닌 경우, ③ 관료이면서도 지주가 아닌 경우, 끝으로 ④ 지주도 관료도 아닌 경우 등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⁹⁷⁾

윗글에서 노계의 신분은 ④ 지주도 관료도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신분은 양반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좋은 벼슬자리가 없다면 가세가 기울고 점차 良人으로 전락해가는 몰락양반을 의미한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내 노동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경작해야 하는 불행한 처지가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노계 시가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투적인 묘사 수법이 예외 없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고사와 한자성어의 인용이다. 韓愈의 「寄盧同時」에 나오는 ‘一奴長鬚’, 도연명 「귀거래사」의 ‘告余春及’, 宋書卷七十七 「沈慶之傳」의 ‘耕當問奴’, 제갈량 「출사표」의 ‘躬耕稼穡’ 같은 한자성어를 차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또 중국 殷나라 湯王 때의 伊伊 고사를 연상할 수 있는 ‘莘野耕叟’와 秦나라 陳勝의 고사를 연상할 수 있는 ‘壘上耕翁’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4단락 ‘이웃에게 수모당하는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旱既太甚 ㄹ야 時節이 다느즌제
 西疇놈흔논애 잠깐긴 널비에
 道上無源水을 반만싼 더혀두고
 쇼흔적 듀마ㄹ고 엄섬이 ㄹ논말삼
 親切호라 너건집의 달업슨 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구디다든 門밖고 어득히 혼자서서

97) 김기탁, 「노계가사의 현실인식: 〈누항사〉를 중심으로」(『영남어문학』 제7집, 1980. 12), 36쪽에서 재인용.

큰기춤 아합이를 良久토록 昏後에
 어화 그 뉘신고 廉恥업산 너읍노라
 初更도 거윈더 그 엇지와 겨신고
 年年에 이러히기 苟且호 줄 알건만논
 쇼 업슨 窮家에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히나 감시나 주엄즉도 ्ह다마논
 다만 어제밤의 거빈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雉을 玉脂泣게 꾸어니고
 간이근 三亥酒을 醉토록 勸히거든
 이러한 恩惠을 어이 아니 감흠년고
 來日로 주마히고 큰 言約 히야거든
 失約이 未便히니 사설이 어려왜라
 實爲 그러히면 혈마 어이할고
 현먼덕 수기스고 축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風彩저근 形容에 기즈칠 뿐이로다

소를 빌리러 갔다가 빌리지도 못하고 맥없이 돌아오는 서글픔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한 부분이다. 남의 소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기 어려운 심정을 “달업슨 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구디다돈 門밧기 어득히 혼자서서 큰기춤 아합이를 良久토록 昏後에” 구절로 표현 하였다. 결국 빌리지도 못하고 처량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현먼덕 수기스고 축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風彩저근 形容에 기즈칠 뿐이로다”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다.

「누항사」는 노계 가사 중의 특히 白眉로 평가 받고 있다. 표현기교의 묘미가 다른 작품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단락이 이러한 평가에 어울리는 대목이다. 중국 고사나 성어를 사용하는 노계의 상투적 표현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말 표현에 충실하다. 노계가 직접 농부가 되어 서술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를 빌리는 대화를 양반과 양인과 대화 형식의 표현 기법을 끼워 넣었다.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이 단락의 지문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 그렇지만 산속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절박한 어려움이 암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농사는 본래 시기가 중요한 일이다. 농우가 없기 때문에 양인의 집에까지 농우를 빌리러 스스로 찾아갔다. 하지만 농우도 빌리지 못하고 심정으로 돌아온다.

「누항사」의 화자인 노계는 이러한 상황의 참담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일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순수한 농부의

모습이지만 현실에서는 답답하고 암담한 존재일 뿐이다. 더욱이 한 해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므로, 전원의 평화로운 서경이 아니라 비참한 농가생활이라는 현실의 생생한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16세기 조선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일컫는 학자들도 있다.⁹⁸⁾ 사회와 사립과의 등장 등 지배체제의 동요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가져왔다.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경제적 변화로 科田法의 붕괴와 폐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과전법은 시행 초부터 관료층의 이익을 보장하였고 당쟁 중심부의 관료집권층의 경제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과전법은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대지주·귀족세력을 물리치고 제정한 토지제도이다. 고려 후기의 문란하였던 토지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시대 지배세력의 물질적 기반을 무너뜨려 새 왕조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계산도 있었다. 따라서 조선은 고려 후기에 국가 재정이 파탄되고 민생이 피폐하였던 고려의 경험을 反面教師로 삼아 초기부터 국가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경제제도를 실천하려 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16세기 사립들과 관료 집권층의 경제적 기반은 지방의 農莊이었다. 특히 사립과들의 생활기반이 중앙정부가 있는 漢城이 아니라 지방의 농장이었기 때문에 과전법의 폐지는 귀족관료층의 土地兼併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층 더 심화되어 대토지소유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임진왜란과 함께 16세기 이후는 흉년과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 등으로 농촌을 떠나 유랑하는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결되고 상업에 종사하려는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의 왕조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양반 및 관료집권층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노계는 집안 경제가 매우 어려운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장 이후에도 문과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벌도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조라포 만호라는 무관의 직책은 넉넉한 개인소유의 토지도 없는 몰락한 양반신분 정도를 유지시켜 줄 뿐이었다. 따라서 그의 처세 방법은 이름난 유학자·학식 있는 선비들을 종유하면서 관념적인 유교덕목을 내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의 안빈낙도 하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제5단락 ‘밤새워 느끼는 슬픔’을 노래한 부분이다.

98) 신정일, 『신정일의 新 택리지: 살고 싶은 곳』(타임북스, 2010), 287쪽.

蝸室에 드러간들 잠이와사 누어시랴
 北窓을 비겨안자 시빅롤 기다리니
 無情호 戴勝은 이너恨을 도우느다
 終朝惆悵호며 먼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農歌도 興업서 들리느다
 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줄을 모르느다
 아짚은 저소취는 벗보넘도 丘홀세고
 가시영권 묵은 밧도 容易케 갈련마는
 虛堂半壁에 슬티업시 걸려고야
 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두자

양인에게 소를 빌리러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와 좁은 자기 집에 돌아와 소가 없음을 한탄하며 농사를 단념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세상인심은 잠도 못 들게 하는데, 삐꾸기 울음소리는 작자의 서글픈 심정을 더욱 슬프게 하고, 흥겨운 農歌도 흥 없이 들리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노제는 불만도 원망도 하지 않는다. 농사일이 불가능하다면 깨끗이 잊어버리고 안빈일념으로, 산수에 몸을 던져 은거낙도 하고자하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락이다.

제6단락 ‘은거낙도’를 노래한 부분이다.

江湖 淸澗을 쭈언지도 오러러니
 口腹이 爲累호야 어지버 이저써다
 瞻彼淇澳호던 綠竹도 하도할샤
 有斐 君子들이 낙디호나 빌려스랴
 蘆花 김픈곳애 明月淸風 벗이되야
 넘지업슨 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랴
 無心호 白鷗야 오라호며 말라호랴
 다토리 업슬손 다문인가 너기로랴

은거낙도에 대한 축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락이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기 위해 몸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니, 평소에 마음먹었던 산수락을 통한 은거낙도를

소원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江湖 흐름을 꾸언지도 오러러니” 구절은 강호라는 산수와 살겠다는 노계의 의지가 오래 되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有斐 君子들이 낙디 하나 빌려스라 蘆花 김핀곳에 明月淸風 벗이되야 넘 지업손 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구절에서 푸른 대숲 인접한 맑은 물가에서 낚시대 드리우고 유유자적하고자 한다. ‘넘지업손 風月江山’은 노계 자신만의 소유물이며, 산수락을 즐기면서 은거낙도를 실천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제8단락 ‘안빈낙도’를 노래한 결사 부분이다.

貧而無怨을 어렵다 ㅎ건마는
네 生涯 이러호더 설은 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飲을 이도 足히 너기로라
平生 ㅎ 뜻이 溫飽애는 업노왜라
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 信朋友 외다 ㅎ리 ㄴ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ㄷ로 살렷노라

노계의 안빈낙도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단락이다. 가난하여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타인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노계 자신은 공자가 말했던 찬밥에 물만 먹는 검소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평생 품은 뜻은 배부르고 따뜻함이 아니라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삼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 간에 믿음이 있는 생활실천 위주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노계는 삼강오륜의 유학사상을 실천한 유학자이자, 철저한 도학자였다. “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 信朋友 외다 ㅎ리 ㄴ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ㄷ로 살렷노라” 구절은 노계의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인생무상을 체념하는 앞의 단락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그의 무관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성다운 강인함을 이 단락에서 엿볼 수 있게 하였다.

이상의 고찰에서, 조선시대 士林들의 은거는 화려한 출사와 유배를 거치고 난 후 혼란한 관료사회에서의 현실도피인데, 노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 했듯이 그는 문반으로서의 사회적 진출도 없었으며 자신의 계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쟁의 계과에 속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노계의 은거낙도는 현실도피보다는 유학자로서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몸부림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산수락을 즐기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이동인 것이다. 현실로의 복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이라는 궁극적인 이상의 세계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삶은 타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현실적 소외였기 때문에, 그의 학문과 문학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노계 시가 지도의 실제

고전 시가란 과거에 창작되어 후세에 모범이 되고 있는 작품을 일컫는다. 우리 고유의 전통을 수립·지속시키는 데에 뚜렷한 기여를 하는 문학작품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 전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표현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니게 된다.

문학을 삶의 모습을 언어로 형상화 한 것으로 국어과 교육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의 한 범주로 볼 때,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전 작품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키고 현대의 변화된 시대를 조명하고, 전통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여 우리말과 우리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노계의 시가들이 이러한 해석에 맞는 고전작품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노계의 시가는 당시의 삶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학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평사」·「선상탄」·「조흥시가」의 충효사상, 「독락당가」·「입암이십구영」·「노계가」의 도학사상과 자연애 사상, 그리고 「누항사」의 안빈낙도 사상을 앞서 고찰하였다. 노계 시가의 가치를 이해하고 습득한다면, 현대 문학과 다른 생활양식·사회구조·세계관·가치관 그리고 문학적 경향 등을 이해·습득할 수 있게 된다. 고전시가의 교육은 이러한 고전적 가치를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인생을 이해하고, 인간성을 함양하며 미의식을 기르는 등 더 나은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는 고전문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전문학의 정의는 고전의 개념을 적용시켜 보면, '원숙한 정신적 소산의 문학 작품으로서 역사적 전통성을 지니며, 후세의 규범이 될 만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⁹⁹⁾

윗글은 학생들에게 고전 문학을 교육하는 것은 선조들의 정신세계를 파악하여, 민족 문학의 전개와 핵심의 인식,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 문학의 형식과 내용 이해, 현대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99) 이상의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집문당, 1998), 13쪽.

등의 교육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 작품들은 학교 교육에서 지도상의 難點이 따르기 마련이다. 노계 시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문제이다. 창작 시기가 과거이므로 당연히 현재와는 시간적 거리가 있다. 이것은 시간적 거리라는 낯설음으로 작용하여,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고전 시가는 과거 조상들의 보편적인 삶과 정서를 노래로 표현한 문학작품으로서 현대에는 '민족 문화의 계승'으로 받아들여져 이해되고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 노계의 훈교적 충효사상, 은거낙도의 삶, 산수락 등이 모두 '민족 문화의 계승'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간적 거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로 남기고 있다.

둘째, 언어의 문제이다. 고어로 인한 낯설음으로 학습자들은 작품에 대하여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은 국문학자들에게도 문제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많은 연구가들이 고전시가 작품들을 다양하게 해석하게 된다. 노계 시가에서도 창작 시기에 대한 추론이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 다르게 주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근거 자료의 차이와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논쟁의 중심에 있기 마련이다.

셋째, 생활양식의 차이이다. 우리는 고전시가를 통해 민족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문화의 계승'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의 지향으로, 삶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 시대의 문학으로만 간주하고, 연구와 관찰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한 시대의 유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가치의 문제이다. 노계시가는 조선 사대부 문학이라 할 수 있다. 도학을 습득하고 충신의 관점으로 충효의 주제를 드러내는 유교적 규범을 노래하는 시가의 일방적인 이해가 쉽지 않다. 현대적 가치의 충효를 훈교하고, 당시의 시대상황을 알리는 학습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한 가치의 통일을 이루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상에서 고찰한 지도상의 난점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계의 작품은 유교적 이념을 추구하는 사대부로서의 사회적·계층적 삶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충효사상을 노래한 「태평사」·「선상탄」·「조흥시가」, 도학사상과 자연애 사상을 노래한 「독락당가」·「입암이십구영」·「노계가」 그리고 안빈일념을 노래한 「누항사」 등의 그의 시가작품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적 의의에 맞추어 노계 시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노계시가 작품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습득을 토대로, 작품을 예 대한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주된 정서 또는 정신이 무엇

이고,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에 고시되었던 제7차 교육과정이 마무리 되고, 2009년 3월 시작된 개정 교육과정¹⁰⁰⁾과 2011년 3월 시작된 개정 교육과정¹⁰¹⁾이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개편과 더불어, 국어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 및 수업 방법도 발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논의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계 시가 지도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노계 시가 지도의 교육적 의의 및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노계 시가 현황을 고찰한 후 노계 시가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1. 노계 시가 지도의 교육적 의의

문학 교육은 문학적 문화의 고양을 목표로 문학의 자율성, 작용태로서의 문학 현상, 개방적 시각에서의 범위설정, 보편성을 띤 가치 있는 문화양태의 하나로서의 문학을 전제로 삼는다.¹⁰²⁾ 따라서 문학 교육은 작품 중심에서 벗어난 사고와 표현, 문화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고전 시가는 문학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전 시가 작품을 통하여 당시의 사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노계 시가 역시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교육활동에서 노계 시가를 친숙하게 받아들여 정서와 형식의 전통 계승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그의 시가 지도에 관한 교육적 의의를 찾고자 한다.

첫째, 노계의 생애 전체에 기본 사상으로 굳건한 위치를 차지했던 충과 효이다. 오늘날 개인주의 성향의 사회 변동 양상에서 결핍되어 나타나고 있는 충효사상을 고취시켜야 하는 현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노계가 벼슬을 청산하고 멀리 하면서도 우국지성과 태평성대를 염원했듯이, 오늘날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결핍되고 있는 충과 효에 대해서 재고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100) 2007 개정 시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2008.09.11.)에 의거 국어과 과목을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로 분류 명시.

101) 2009 개정 시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에 의거 국어과 과목을 ‘화법과 작문 I·II’, ‘독서와 문법 I·II’, ‘문학 I·II’로 분류 명시. (‘국어’는 2007 개정 시기 교재를 사용)

102)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삼지원, 2001), 38쪽.

것이다.

둘째, 안빈을 통하여 노계가 실천했던 윤리 도덕성이다. 노계가 임진왜란 후 가난한 현실생활을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드러내어 유학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사회 윤리성을 강조하였듯이,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사회 현상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윤리 도덕성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계가 인간의 본래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찾아 갔던 자연이다. 노계는 회재를 경모하고 독락의 참의미를 깨닫게 되고, 훗날 노계곡에 들어가 인간을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자연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신수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 문명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이 인간의 삶'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과 반대로 노계 시가에 대한 정체성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그의 시가 작품들은 지나치게 사대부지향적이다. 따라서 文以載道의 문학관으로 인식되어 도학사상 지향의 성격으로 지나치게 훈교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그의 역사에 근거한 작품 창작 배경 또는 상황과 연결하여 볼 때, 그는 철저한 유교적 규범 속에서 생활하고자 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글 유교적 가치관에서만 평가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셋째, 은거낙도와 연군충신에 대한 관점으로 노계를 유학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까지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노계 시가는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새로운 교과서를 출판할 때마다 고등학교 교재의 지문으로 줄곧 소개되고 있다. 노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학사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교훈적이고, 섬세한 필치와 풍부한 어휘 구사의 능력이 돋보이는 시가 작품을 남긴 문인으로서 송강·고산과 함께 평가 받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를 통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원리를 익힐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활용함으로써, 오늘날 전통의 계승 발전이라는 교육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노계 시가 현황

노계의 시가 작품들 중 시조는 「동기로~」와 「조흥시가」, 가사 작품으로는 「누항사」와 「선상탄」이 교과서 지문으로 주로 실려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조흥시가」와 「누항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입암」과 「독락당」은 일부 참고서에 실려 있는 현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1>, <표2>는 노계 시가의 교과서 지문 현황이다.

<표1>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¹⁰³⁾의 노계 시가 지문 현황

(2007 개정 시기 교재 기준)

종류	작품명	선정 수	출판사 명 (대표저자)	비고
시조	동기로~	1	창비 (문영진)	

<표2>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¹⁰⁴⁾의 노계 시가 지문 현황

(2009 개정 시기 교재 기준)

종류	작품명	선정 수	출판사 명 (대표저자)	비고
시조	조흥시가	3	미래엔 (윤여탁), 천재교육 (김윤식), 천재문화 (고형진)	
	입암	0		'더 읽을 작품'으로 추천
가사	누항사	3	교학도서 (윤석산), 도서출판 지학사 (최지현), 천재교과서 (정재찬), 해냄 에듀 (조정래)	
	선상탄	1	천재교육 (김윤식)	
	독락당	0		'더 읽을 작품'으로 추천

위의 표에서, 그의 교훈적인 삶이 담겨있는 「조흥시가」와 섬세한 필치와 풍부한 어휘 구사의 능력을 보여줘 노계 작품의 백미로 꼽히는 「누항사」가 많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선

103) 16종: 교학사(조남철), 금성출판사(윤희원), 더 텍스트(김병권), 도서출판 디딤돌(이상형), 두산동아(우한용), 미래엔(윤여탁), 비상교육(한철우), 유웨이 중앙교육(박호영), 좋은책 신사고(민현식), 지학사(박갑수), 지학사(방민호), 창비(문영진), 천재교육(김대행), 천재교육(김종철), 천재교육(박영목), 해냄 에듀(오세영)

104) 13종: 교학도서(윤석산), 교학사(조남현), 도서출판 지학사(최지현), 미래엔(윤여탁), 비상교과서(유병환), 비상교육(박영민), 좋은책 신사고(이승원), 지학사(권영민), 창비(박종호), 천재교과서(정재찬), 천재교육(김윤식), 천재문화(고형진), 해냄에듀(조정래)

정 이유와 작품의 선택이 일치한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 준다.

3. 노계 시가의 교수·학습 과정안

문학교육의 주요 목표가 문학적 문화의 고양, 상상력의 발달, 삶의 총체적 이해, 심미적 정서의 함양 그리고 민족정서의 이해와 습득임을 앞서 고찰하였다. 「조홍시가」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좋은 자료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조홍시가」의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해 보고, 노계의 산수락을 느낄 수 있는 「누항사」의 1차시, 총 2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해 보고자 한다.

「조홍시가」는 미래엔 ‘문학 I’ 교과서에서는 대단원 ‘II. 문학의 갈래’, 중단원 ‘1. 서정문학’ 그리고 소단원 ‘(1) 서정 문학의 개념과 특성’ 지문¹⁰⁵⁾으로 실려 있다. 그리고 천재문화 ‘문학II’ 교과서에는 대단원 ‘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중단원 ‘1. 한국 문학의 흐름’의 지문¹⁰⁶⁾으로 실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재문화 ‘문학II’ 교과서에 실려 있는 「조홍시가」를 중심으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 고안하고자 한다. 미래엔 ‘문학 I’ 교과서 보다 본 연구의 논의 내용이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활용하기로 한다.

제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한국 문학의 개념·영역·갈래에 관한 고찰이라 할 수 있겠다. 문학 작품의 감상이므로 반응 중심 학습법 또는 토론 중심 학습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직접 교수법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직접 교수법은 국어과의 대표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기도 하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므로 이 교수법을 선정하였다. 그렇지만 수업 진행 절차를 변형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겠다. 다음의 <표3>은 직접 교수법의 절차이고, <표4>는 제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이다.

<표3> 직접 교수법의 절차¹⁰⁷⁾

105) 윤여탁 외, 『문학 I』(미래엔, 2011), 67쪽.

106) 고희진 외, 『문학II』(천재문화, 2011), 29쪽.

107) 이재승, 『좋은 국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 교수학습 연구 총서1(교학사, 2009), 88쪽.

과정 (단계)	주요 활동	비고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분위기 조성하기 • 학습 동기 유발하기 • 선수 학습 확인하기 • 학습 목표 (기능 또는 전략 제시하기) • 전략의 필요성과 중요성 설명하기 • 전략의 사용 방법 설명하기 	20분
시범보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사용 예 제시하기 • 교사의 시범 보이기 	5분
질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세부 질문하기 • 질문에 대해 학생 답변하기 • 학생들의 질문 제기 및 교사 응답하기 	5분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적용해 보기 • 독립적으로 연습하기 • 다른 상황에 적응하기 • 학습 활동 정리하기 • 과제 부여 또는 차시 학습 안내하기 	20분

〈표4〉 제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년	교2	문학	대단원명	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차시	1/2	쪽수	29~32
			소단원명	(1) 한국 문학의 흐름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의 갈래를 이해한다. • 「조흥시가」에 나타난 효 사상을 이해한다. 							
수업 방법	직접 교수법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설명하기	동기 유발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早紅柿’의 語義 이해 ☞(교사활동) ‘早’, ‘紅’, ‘柿’ 한 글자씩의 PPT 화면을 보여 준다. ☞(교사활동) ‘早’의 뜻은? ☞(학생답변) ‘빠르다’입니다. ☞(학생답변) ‘이르다’입니다. ☞(교사활동) ‘紅柿’의 PPT 화면을 보여 준다. ☞(교사활동) ‘紅柿’는? ☞(학생답변) 익은 감, 홍시입니다. 	5분	PPT자료 (‘ 早紅柿 ’)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p>☞☞: ‘早紅柿’는? ☞☞: 일찍 익는 홍시입니다. ☞☞: 다른 감보다 일찍 먹는 감의 종류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 제주 감귤에도 ‘조생종’이 있다. 이 단어는 ‘早+紅柿’의 형태로 ‘접사+어근’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우리 제주도에도 많이 사용하는 같은 구조의 어휘는? 감귤 중에? ☞☞: ‘조생종 감귤’입니다. ☞☞[교사활동] 작품의 소재 ‘早紅柿’를 통한 동기유발을 확인하고 본시 학습 내용을 예고한다. ☞☞: 조생종은 일반 품종에 비하여 가격이 높고 귀하다. 그리고 맛도 좋다. 일반적으로 홍시는 10월말에서 11초에 먹을 수 있는데 ‘조홍시’는 매우 귀하고 맛있는 ‘특별한 감’이다. 이것을 통하여 시적 화자는 ‘특별하고 귀한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조홍시’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노계박인로의 「조홍시가」를 배우겠습니다.</p>		
	조홍시가 이해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홍시가」의 교육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활동]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조홍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 어머니에 대한 효를 나타내는 상징물 -효사상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도할 수 없는 안타까움 · 효를 실행하겠다는 마음 • 「조홍시가」의 시대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활동] 박인로 시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유학자 취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육적의 회궐고사 	15분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상의 잉어 · 맹종의 죽순 · 노래자의 효도 · 노나라 효자 증자 - 교훈적 성격의 작품 · 성현의 효를 본받아 효를 실행 · 부모님의 불로장생을 기원 <p>☞〈학생활동〉 교사의 설명 중 필요한 부분을 학습장에 정리한다.</p>		
시범 보이기	시범 보이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홍시가」 제1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활동) 내용 감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盤中 早紅감이 고아도 보인다 홍시(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柚子 안이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는 육적의 '회골고사' 인용(중국 오나라의 육적이 원술의 집에 갔다가 굴을 대접 받고 어머니를 드리기 위해 굴 세 개를 품에 품고 나왔다는 고사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를 의미함)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식 글노 설워호는이다 죽음으로 인한 부재 안타까움의 정서 • 「조홍시가」 제2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성이 지극하여 겨울에 죽순을 구해다가 어머니께 드림. 王祥의 鯉魚 잡고 孟宗의 竹筍 썬거 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어머니에게 대접한 효자 검던 멀리 희도록 老萊子の 오솔 입고 아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나이 일흔에 어린아이 옷을 입은 효자 一生애 養志誠孝를 曾子又치 호리이다 중국 노나라 사람, 공자의 제자로서 효자 • 「조홍시가」 제3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萬勺을 늘려내야 길게 길게 노흘 쏘아 九萬里長天에 가는 희를 자바 밉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 과장법 	15분	PPT자료 (「조홍시가」 제1, 2, 3수)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北堂의 鶴髮雙親을 더디 늘게 흐리이다 늙으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음		
활동 하기	작품 읽기	모듬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흥시가」 개요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개요 이해 ·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 연시조: 전체 4수(제4수는 현인군자들을 풍유하는 즐거움을 노래) -작품 감상 및 내용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감상: 흥시를 대접 받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흥시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음을 서러워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 부모님의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을 노래함 ≡〈학생활동〉 각자 작품에 대하여 정리한다.	5분	
	정리 하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별로 정리한 결과물 발표 -모듬간 비교 •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성평가 문제 풀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화자의 상황 및 정서·태도〉 화자는 쟁반에 담긴(조흥감)을 보고, 이를 가져가도 반가워하실 부모님이 없는 현실을(안타까워)하고 있다.</p> <p>〈핵심 시어 및 시구〉 (조흥감):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화자에 대한 효를 함축한다.</p> <p>〈표현 및 시상 전개〉 육적의 '회굴고사'와 성현의 '효'와 관련된 고사를(인용)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효를 실행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학습을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계 박인로의 안빈낙도를 감상할 수 있는 「누항사」를 예고하고 예습을 시킨다. 	10분	PPT자료(형성평가)

위의 제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노계의 「조흥시가」를 토대로 한국 문학의 갈래의 시조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 방법으로 직접 교수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학습 목표 제시’ 등의 주요 활동과 과정을 1차시 수업시간 인배를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에서 생략하였다. 상투적인 수업활동이기기에 생략한 것도 있고, 전체적인 구성에서 불필요 한 것으로 판단하여 생략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 작품 감상에는 반응 중심 또는 토론 중심 학습법의 적용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재승이 제시한 좋은 국어 수업 방법 19가지는 두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수자가 주도하는 교수법과 피교수자인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는 학습법이 바로 그것이다. 직접 교수법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업 방법이다. 따라서 제1차시의 수업 방법은 교수자인 교사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시범 보이기’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위의 제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노계의 충효사상 중 ‘효’에 대한 학습을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효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규범이며 보편적 윤리라는 것을 학습활동에 반영하였고, 노계는 효성이 지극한 삶을 살았다는 인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려고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태평사」와 「선상탄」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충에 대해서도 환기 시켰다.

제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노계의 산수락 지도법에 관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권장하고 있는 기존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해 보았다. 「누항사」를 중심으로 제1차시의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는 역사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역시 직접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다음의 <표5>는 제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이다.

<표5> 제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년	고2	문학	대단원명	Ⅱ.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차시	2/2	쪽수	26~31
			소단원명	(1) 한국 문학의 흐름 (심화)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계 사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누항사」에 나타난 안빈낙도와 산수락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 방법	직접 교수법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설명하기	동기 유발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陋巷」의 語義 이해 ☞ [교사활동] 「陋」, 「巷」 한 글자씩의 PPT 화면을 	5분	PPT자료 (「陋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p>보여 준다.</p> <p>☐☐: '陋'는 어떤 한자? ⊕⊕: 어려워요. ☐☐: '더러울 누' 그리고 옆의 한자는 '거리 항'이다. 의미는 '좁고 누추한 거리'이다. 홍콩을 '香港(향기로운 거리)'이라 하는데, '누항'과 반대 되는 의미로만 보지 말라. 『논어』에 있는 어휘이다.</p> <p>☐(교사활동) '누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인하고 본시 학습 내용을 예고한다.</p> <p>☐☐: '陋巷詞'는 박인로가 가난한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사 작품이다.</p>		巷)
	누항사 이해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항사」의 창작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음이 노계 박인로에게 두메 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자 대담으로 지은 가사 작품 -박인로는 임병양탄 이후 고향에 돌아와 생활 • 「누항」의 의미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적 의미: 좁고 누추한 곳 -『논어』에서의 의미: 가난한 삶 속에서도 즐겁게 도를 추구하는 공간 -박인로 자신이 가난한 삶에 대한 안빈일념 • 「누항사」의 문학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대부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갈 수 여건도 갖추지 못하여, 양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노래한 작품 -「누항사」는 현실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일상의 언어를 대폭 받아들여, 사대부 가사의 한계를 탈피하고 조선 후기 가사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작품 -자연에 은거하면서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은거낙도¹⁰⁸)를 노래한 다른 가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15분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조선 후기 사대부 가사에는 임병양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노계의 작품만은 전란 후의 현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음		
시범 보이기	시범 보이기	전체 학습	<p>• 「누항사」의 본사 3(본 연구의 「누항사」 제4단락: 농우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돌아오는 정경)을 분석 설명</p> <p><u>旱旣太甚 旱야 時節이 다느즌제</u> 가뭄이 몹시 심한 상황</p> <p><u>西嘯 渴흔논애 잠깐긴 녀비에</u> 지나가는 여우비</p> <p><u>道上無源水</u>을 반만잔 더혀두고</p> <p>쇼흔적 두마 旱고 엄섬이 旱노말삼</p> <p><u>親切호라 너건집의 달업슨 黃昏의 허위허위 다</u> 라가셔 허둥지둥(의태어 활용으로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p> <p>구디다돈 門밖기 어득히 혼자서서 큰기춤 아함이를 良久토록 旱온後에 <u>어화 기 뉘신고 廉恥업산 너옴노라</u> 대화체 활용(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함)</p> <p><u>初更도 거윈더 기 엇지와 겨신고</u> 年年에 이러 旱기 苟且흔 줄 알건만는 쇼 업슨 窮家애 헤염 만하 왓삼노라 <u>공흔이나 갑시나 주업죽도 旱다마는</u> 농우를 빌려 줄 수 없음을 암시</p> <p>다만 어제밤의 거빈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 雉을 玉脂 盎계 꾸어니고 간이근 三亥酒을 醉토록 勸 旱거든 <u>이러한 恩惠을 어이 아니 갑흔년고</u> <u>來日로 주마 旱고 큰 言約 旱야거든</u> <u>失約이 未便 旱니 사설이 어러왜라</u> 소를 빌려 달라는 화자의 요청을 거절함</p> <p><u>實爲</u> 그러 旱면 혈마 어이할고</p> <p>헌먼덕 수기스고 축업슨 집신에 <u>설피설피</u> 물너 오니 맥없이 어슬렁어슬렁 걷는 모습 의태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p>	15분	PPT자료(「누항사」 본사 3 본문)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風彩저근 形容에 지즈칠 썸이로다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활동 하기	작품 읽기	모듬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항사」를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작품 개요 이해 · 가사문학 · 안빈낙도 사상 -작품 감상 및 내용이해 · 주제: 선비의 곤궁한 삶과 안빈낙도의 추구 · 감상: 궁핍한 삶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토로하면서도,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면 충의·우애·신의를 지향하는 삶을 사고자하는 다짐을 드러낸 가사 · (궁핍): 전란 후에 돌아와 몸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처지→(기대):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빌려 감→(좌절): 소를 빌리려다가 거절당함→(비애): 야박한 인심을 한탄하며 봄갈이를 포기함 ☞ <학생활동> 각자 작품에 대하여 정리한다. • 「누항사」에 대한 모듬별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분석 ☞ <학생활동> 토론을 내용을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계의 산수락은 인간과 자연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 · 물질세계를 벗어난 정신세계를 중시하고 인간이 행할 도리를 지키면서 만족 · 자연에서 비록 빈궁하게 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도리를 지키겠다는 유교적 삶에 대한 의지 	10분	
	정리 하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정리한다. -화자의 갈등 양상 	5분	PPT자료 (화자 갈등 양상)

학습 단계	학습 요항	학습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형성평가 문제 풀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화자의 상황 및 정서·태도〉 화자는 몸소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삶을 살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지만, 자연과 벗하면서 (빈이무원)과 (안빈낙도) 하는 삶을 살려 하고 있다.</p> <p>〈표현 및 시상 전개〉 -궁핍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화) 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제시하고 있다.</p> </div> <p>• 차시학습을 안내한다.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를 예고한다.</p>		PPT자료 (형성평가)

위의 제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교과서 일부를 재편성하여 노계의 산수락 지도를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학교 교육에서 '산수락'이란 용어는 다소 생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빈낙도·강호가도와 견주와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누항사」는 노계 작품 중에서 백미로 손꼽히는 가사작품이며, 표현 기교적인 면에서도 묘미가 있는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계의 산수락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적 의미는 노계의 산수락은 인간과 자연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며, 자연에서 빈궁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도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대적 의미는 물질세계를 벗어난 정신세계를 중시하고 인간이 행할 도리를 지킴으로써 만족을 찾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8) 현행 교육과정에는 '강호가도(江湖歌道)'로 교육하고 있다.

VI. 결론

이 연구는 노계시가의 주제의식과 산수락 지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노계의 작품 중 「태평사」, 「선상탄」, 「조흥시가」, 「독락당가」, 「입암이십구영」, 「노계가」, 「누항사」를 중심으로 그의 유자적 삶과 문학 환경 등을 고찰하고, 아울러 그의 시가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까지 작성하여 보았다.

노계는 조선 명종·선조·광해군·인조 4대에 걸쳐 생존했던 무관 출신 문인으로, 13세에 한시 「재승음」을 지어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뛰어난 시적 재능을 보여 주었던 인물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외적이 침입하자 의병장 정세아의 별시위로 전쟁에 참가하여, 강좌절도사 성윤문의 막하에서 전쟁을 마쳤다. 무과 급제를 통하여 벼슬길로 나아가, 수문장·선전관 그리고 조라포 만호를 지냈다. 벼슬을 그만두고 공자의 “조문도석사가의”를 좌우명으로 삼고 독서와 묵상에 전념하였다. 자옥산의 회재 유적지를 탐방하고, 지산·한강·여헌 등을 종유하여 성리학을 배웠다. 그는 82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지만, 儒者 생활을 하면서 가사 「사제곡」·「누항사」·「독락당가」·「영남가」·「노계가」, 시조 「신유추여정한강육우물산초정」·「입암이십구영」·「오륜가」 그리고 국한문 작품 등 3권 2책의 『蘆溪集』을 남겼다.

노계는 자신의 삶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인물은 아니었지만, 많은 시가 작품을 남긴 문인으로서 송강·고산과 함께 ‘근세 삼대 시가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노계는 ‘충’과 더불어 ‘효’의 실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의 충효사상은 노계 자신의 전 일생을 통하여 일관되게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지만, 전쟁가사인 「태평사」와 「선상탄」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아울러 「조흥시가」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노계의 대표적인 시조 작품으로서, 「태평사」·「선상탄」과 더불어 노계의 충효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평사」는 임진왜란이라는 서사적 국난에서 승전의식을 드높이고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전쟁가사이다. 조선의 역사를 들로 쪼개는 7년 전란의 시련 속에서도 강직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불굴의 저항의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국충절을 근간으로 하는 태평성대의 염원

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선상탄」은 노계가 우국지성을 노래한 전쟁가사이다. 그런데 작품 내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이 「태평사」와 다른 성향의 전쟁 서술 방식을 보였다. 단적으로 「태평사」보다 노계의 무관적 기질이 결여되어 나타났다. 창작 시기로부터 이유를 찾았다. 「태평사」는 임진왜란 중에 창작되었고, 「선상탄」은 전쟁이 끝나고 10여년이 지난 뒤의 작품이기 때문에, 「태평사」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었고, 「선상탄」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쟁을 분석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그리고 전투장면의 묘사도 근거가 되었다. 「태평사」에서는 왜적과 실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지만, 「선상탄」에서는 실제 전투 장면에 대한 표현이 없었다. 실제적인 전투가 아니라 왜적에게 항복을 권유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난리에 대한 권태와 왜적과의 싸움에 대한 종료를 기대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노계의 가사에는 거의 태평성대에 대한 축원이 삽입되어 있는데, 「태평사」는 하느님께 축도하여 하늘의 운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태평성대이다. 그렇지만 「선상탄」에서는 오랑캐의 항복에 의한 전쟁승리로서, 전쟁에 패한 왜적을 무리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만민공생의 태평성대를 염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상탄」은 늙고 병든 몸으로 대마도를 바라보며 왜적들의 항복과 태평성대를 염원함을 노래한 전쟁가사이다. 섬나라 오랑캐들에 대한 적개심과 왜적을 격파하고 항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는 조선민족의 평화주의 정서도 담겨 있다. 비록 「태평사」에 비하여 무관의 기질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노계의 소극적인 성향도 분석되기도 했지만, 「선상탄」 전체에서 드러나는 우국지성의 정서는 노계의 생애에 이념적 지주로 자리 잡고 있는 충효사상의 실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조흥시가」는 제작 동기 등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상보·박성익의 황충기의 견해가 한음과 여현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수에서는 세 연구가 모두 「조흥시가」 4수로 인정하고 제1·2·3수와 제4수가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조흥시가」 고찰을 통하여 효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 규범이며 보편적 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노계가 효성이 지극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는 「태평사」·「선상탄」의 총과 더불어 노계 작품의 토대를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훈교적 실천의지와 유자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노계 시가의 주제 의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노계는 무관생활 이후 향촌으로 돌아와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사조였던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그가 경주 자옥산의 회재 유적지인 '독락당'을 찾아가 「독락당가」를 지은 것은 학문적 자기 수련의 과정이었으며, 그의 학문과 사상이 회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대

목이다. 회재는 우리나라 성리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선구적인 인물이며, 선배학자 망기당과의 ‘무극태극논변’을 벌였던 학자이다. 그리고 영남학파의 창시자이다. 조선의 성리학은 회재에 이르러서 학문적으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가 성장했던 외가가 있는 경주는 조선전기 성리학의 중요한 한 기점이자 영남학과 태동의 기원이 된 곳이다. 그리고 회재의 학문적 업적과 독창성이 퇴계로 이어지는 성리학적 전통에 영향을 끼쳤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다섯째, 「독락당가」는 성현들의 태평스런 세상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서경가사이다. 자연경물의 뛰어난 풍경과 회재에 대한 경모를 독락당에 대한 감흥과 중국사적과 비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 노계는 회재에 대한 경모를 통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도리를 행함에 있어 철저한 유학적 세계를 깊이 연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자옥산의 은거는 당쟁이 심화되는 당시의 현실 속에서 독락을 통하여 단순한 선현추모가 아닌 도학적 이상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노계의 학문적 스승은 여현이었다. 노계는 여현을 존현하였으므로 입암에 은거하고 있는 여현을 찾아가 종유하였다. 따라서 노계는 이름 있는 유학자이자 학식이 높은 선비였던 여현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여현을 종유함으로써 「입암이십구영」이 창작되었다. 여현의 시조를 인용하고 축소시킨 경향은 보이지만, 노계 시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가가 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노계의 시가 작품은 삶의 구체적 실상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삶이 작품과 밀착 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때문이다. 「노계가」와 「누항사」는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은거낙도의 삶을 지향하는 선비의 모습과 노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노계의 문학 환경은 전쟁, 유학 그리고 은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계의 창작활동은 대부분 이러한 환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학 환경이 노계를 다작의 시가인으로 만들었고, 평생 학구적이고 실천적인 유학자로 살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덟째, 『노계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계가」는 어떠한 해설도 없었다. 그렇지만 작품 서두 부분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학계에서는 노계의 나이 76세 때에 「노계가」가 창작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대체적인 기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계의 은거는 타의에 의해서 산수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유인처사로서 스스로 산수에 은거하기 위해 들어온 자발적·능동적 행위였다는 추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홉째, 「누항사」를 통하여, 조선시대 士林들의 은거는 화려한 출사와 유배를 거치고 난 후 혼란

한 관료사회에서의 현실도피인데, 노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문반으로서의 사회적 진출도 없었으며 자신의 계파가 없었기 때문에 당쟁의 계파에 속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노계의 은거낙도는 현실도피보다는 유학자로서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몸부림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산수락을 즐기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이동인 것이다. 현실로의 복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이라는 궁극적인 이상의 세계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삶은 타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현실적 소외였기 때문에, 그의 학문과 문학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째, 고전 시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키고 현대의 변화된 시대를 조명할 수 있다. 전통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여 우리말과 우리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학적 사유를 통하여 정신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계 시가는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새로운 교과서를 출판할 때마다 고등학교 교재의 지문으로 줄곧 소개되고 있다. 노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학사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교훈적이고, 섬세한 필치와 풍부한 어휘 구사의 능력이 돋보이는 시가 작품을 남긴 문인으로서 송강·고산과 함께 평가 받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를 통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원리를 익힐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계 시가가 교과서 지문 선정됨을 알 수 있었다.

노계 시가의 교과서 지문 현황을 살펴볼 때, 시조는 「동기로~」와 「조흥시가」, 가사 작품으로는 「누항사」와 「선상탄」이 교과서 지문으로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조흥시가」와 「누항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입암」과 「독락당」은 일부 참고서에 실려 있는 현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노계가 환기되는 이유가 노계의 생애 전체에 기본 사상으로 굳건한 위치를 차지했던 충과 효이며, 안빈을 통하여 노계가 실천했던 윤리 도덕성 그리고 노계가 인간의 본래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찾아 갔던 산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저서

- 朴仁老, 『蘆溪集』〈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김문기 역주, 『國譯 蘆溪集』, 역락, 1999.
- 張顯光, 『旅軒集』〈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박성익, 『송강·노계·고산의 시가 문학』, 현암사, 1972..
-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 _____,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 신정일, 『신정일의 新 택리지: 살고 싶은 곳』, 타임북스, 2010.
- 이상보, 『개교 박노계 연구』, 일지사, 1962.
-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 _____, 『한국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51.
- 황충기, 『노계 박인로 연구』, 고전문학연구18, 국학자료원, 1994.
- 황폐강 외, 『한국문학작가론2: 조선시대의 작가』, 집문당, 2000.

◆ 문집 및 논문

- 구자균, 「노계의 가사와 시조의 교주」, 『고려대학교 50주년기념논문집』, 고려대학교, 1955.
- 김광조, 「〈누항사〉에 나타난 탄궁의 의미」, 『고전과 해석』, 제2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7.
- 김기탁, 「노계가사의 현실인식: 〈누항사〉를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제7집, 영남어문학회, 1980.

- _____, 「노계 박인로의 문학사상」, 『영남어문학』, 제15집, 영남어문학회, 1988.
- 김사엽, 「노계 〈입암곡〉의 계보」, 『국어국문학』, 제20권, 국어국문학회, 1959.
- 김석배, 「朴仁老의 〈早紅柿歌〉 研究」, 『문학과 언어』, 제27집, 문학과언어학회, 2005.
- 우응순, 「박인로의 안빈낙도 의식과 자연」, 『한국학보』, 41집, 한국학보, 1985.
- 이동희, 「晦齋 李彦迪의 생애와 사상」, 『한국학논집』, 제19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2.
- 이종문, 「〈蘆溪歌〉의 창작 연대와 蘆溪 朴仁老의 蘆洲 隱遁 시기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제4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 최현재, 「재지사족으로의 박인로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회, 2003.
- 황충기, 「〈조흥시가〉 고구」, 『어문연구』, 통권 제55호·제56호 합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7.

◆ 교과서 및 교재

- 고형진 외, 『문학Ⅱ』, 천재문화, 2011.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 권일경 외, 『해법문학1: 고전문문문학』, 천재교육, 2009.
- 이상익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8.
- 이운영 외, 『명강: 수능국어 고전시가』, 꿈을 담은 틀, 2012.
- 황재웅·공명철 외, 『손에 잡히는 교과서 문학: 고전시가편』, 미래엔, 2012.

<Abstract>

Teaching of The theme idea and Sansurak on Nogaе's poetry

Nam, Seung-do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This thesis focused on the theme ideas and Sansurak presented in Nogaе's poetry, and then researched teaching methodology in this regard. Nogaе(1562~1624) was one of the best three modern poets of Chosun dynasty, along with Songkang Jung Cheol(1536~1593) and Kosan Yun Sun-Do(1586~1671). His poetry has been highly valued due to the educational theme, spectacular plot, sophisticated writing and use of rich vocabularies. But not many researched theme ideas and Sansurak of Nogaе's poetry or teaching methodology about this. So this thesis made it possible to see this point more specifically.

Firstly, Chung-Hyo thought, the spirit of wartime(Imbyoengyangran) was seen from *Taepyeongsa* and *Sunsangtan* written while he was in service as a soldier and from *Johongsiga* written in his retirement.

Secondly, through the reserch of Hoejae Leeunjeok, a pioneer of Chosun Sungrihak, and Yeohyun Jang Hyun-Gwang, Nogaе's academic mentor, it was made known that Nogaе's life was dedicated to Sungrihak

Thirdly, through the study of *Nogaega's* Eungeorakdo and Anbinilnyum of *Nuhangsa*, Sansurak, his way of understanding the theory and Dao of the nature and Anbin, his life without greed pursuing Dao were clearly seen.

Fourthly, the classic poetry can preserve our own traditions and illuminate the altered modern period. In the Nogaе's poetry, people are likely to understand our languages and writings deeply by upholding their traditional value and interpreting those languages in a modern sense.

Fifthly, it is clearly seen that Nogaе's poetry has a significant role in literature history because his poetry has been continuously introduced in man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extbooks while nationally certified new textbooks are being published according to the curriculum change of high school education. Throughout developing a study curriculum and methodology for teaching Nogaе's poetry, it can be said that studying classic poetry is educationally significant in its historical value, which is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